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관 만 장

현장조사 체험기



통계청

발간사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파란만장 현장조사 체험기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통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경제적·사회적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국가 통계작성기관의 임무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주요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고용·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 직원들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호흡하며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하고, 어려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 우려, 정부에 대한 불신 등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는 국민들, 응답자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지만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담당자들,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뭉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통계 조사 응답자분들과 조사담당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장 **유 경 준**

CONTENTS

● 조사직원 부문



보통 우수사례

파란만장! 좌충우돌!

- 대 상 이정미 | 통계조사로 다시 이어진 인연 • 08
- 금 상 강명호 | 마음의 소리 • 20
- 은 상 한난이 | 나는 베테랑이다 • 26
- 동 상 김은경 | 다가서면 멀어지는 그대... 이젠 그만! • 36
- 동 상 김인선 | 내일은 더 무뎌지기를... • 54

말하지 말고, 대화하라!

지방청 장려상



- 장려 상 최재원 | 이름 불러주기 • 70
- 장려 상 정경미 | 좌충우돌 '통계인' 으로의 성장기 • 82
- 장려 상 이명희 | 선배님들~ '산전수전공중전' 저보다 빨리 해보신분? 손!! • 95
- 장려 상 고현아 | 나의 선생님이자 가족인 통계청 • 104
- 장려 상 권정숙 | 괜찮아? 괜찮아! • 116
- 장려 상 김민음 | 이젠 꽃길만 걸으소서 • 124
- 장려 상 최은주 | 좌충우돌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통계속의 나의 삶 • 134
- 장려 상 박정찬 | 등고자비(登高自卑) -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 141
- 장려 상 김현미 | "일" 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 152
- 장려 상 서한경 |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 162
- 장려 상 이재민 | 저는 외판원이 아닙니다 • 173



- 장려상 박정숙 | 내 인생의 동반자 • 184
- 장려상 나재민 | 당신의 삶에 다정한 그 무언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193
- 장려상 김경애 | 내 인생 최고의 선물 • 203
- 장려상 심효신 | 내 마음속의 블랙홀 • 208
- 장려상 임현서 | “금금한 어느 하루” • 217
- 자체추천작 최혜림 | 겨울날의 연동을 좋아하세요? • 221
- 자체추천작 유해경 | 나의 두 번째 스무살 통계일기 • 226
- 자체추천작 우정식 | 그게 바로 통계인의 길 • 236

● 응답자 부문



인연으로 얻는 노하우!



- 특별상 한득수 | 두 번의 인연 • 248
- 특별상 김옥진 | 통계청 3년 만기 적금, 이자로 받은 이모 • 252
- 특별상 이승모 | 농사를 배우면서 • 256
- 특별상 전매란 | 국민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통계청'을 응원합니다! • 262
- 특별상 최천덕 | 영농일지는 우리 집 나침반 • 268
- 특별상 강후인 | 통계청과의 인연 • 278
- 특별상 손상남 | 나! 가계부 쓰는 여자야~ • 282
- 특별상 김시덕 | 왜 하필 나를?! • 286
- 특별상 이병천 | 40년간 통계와의 묘한 인연 • 291



본청
우수사례

파란만장! 좌충우돌!

통계조사 덕분에 끊어진 인연도 다시 잇게 된 것이었다. 조사를 위해 힘든 일도 많지만 이렇듯 운명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통계청과 통계라는 매개체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었으리라. 통계조사는 수치가 아니라 영혼의 갈피에 한 장씩 추억을 끼워가는 것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고 그러다 보니 끊어진 인연도 소중하게 다시 이어진 것이라 믿고 싶다.

소중한 삶, 숨 쉬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어촌 내 사랑~ 통계 또한 내 사랑~입니다. ♡♡♡

- 대상작 「통계조사로 다시 이어진 인연」 중에서 -

통계조사로 다시 이어진 인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하나

동남지방통계청 이 정 미



몇 년 만에 업무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일을 맡으면 업무도 업무지만 모르던 지식을 얻게 되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 덤으로 얻는 그 무엇 때문에 채워지는 기쁨 또한 있다. 어가조사를 하면서 물고기 이름은 모조리 터득하리라 기대가 크다.

어가경제조사와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맡게 되면서 다정한 듯 익숙한 바닷사람들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익숙하고 투박한 말투, 경계심, 이 조사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수반하지 않으면 결코 원만히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는 듯했다. 어가경제조사와 비계통조사를 하는 곳은 ○○면 ○○리에 있는 ○섬과 ○섬이라는 도서지역과 ○○구에 있는 조사구였다.



첫 정이 무섭다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첫 정을 끊기가 쉽지 않은 듯 매주 방문할 때마다 “전에 조사 오던 양양은 요새 뭐하노? 한 번 오라 해라. 보고 싶다”며 새로 온 사람에게 쉽사리 마음을 내어 주지 않았다.

“양양은 이랬는데...”

이러시면서 매번 살갑게 어촌의 일원이 되었던 전 담당자를 잊지 못해 하셨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정 떼시는 게 힘드시겠지 생각하면서도 나도 앞에 담당하던 언니 뒤꽂무니라도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했다.

도선배를 운행하시는 선장님과 부선장님 또한 어가경제조사 대상처다.

선장님은 유난히도 잔소리와 요구가 많으셨다.

“술 사 왔나? 간식도 자주 사 오고 해야지.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적어주지”

그러시면서 항상 뭍 사 오라고 하시고 술을 권하셨다. 어가일지 기재에 필요한 생산량, 지출 등을 여쭙보면 이유 없이 화를 내셨다. 오락가락하는 선장님 마음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가는 아들 두 명이 장가는 가지 않고 사업한다고 그 많은 재산을 거의 다 털어갔기 때문에 화병이 나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는 이웃분들의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된 후로는 섭섭함보다 애잔한 마음이 앞섰다.





첫 정보보다 무서운 두 번째 정보의 매력에 빠져보시라

그래,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내 고집은 잠시 접어두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자. 술은 마실 줄 모른다며 한사코 거부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맛있다고 소문난 족발과 양념닭발을 사러 전통시장에 들르고 막걸리도 챙겨서 급하게 배를 타러 간다.



섬 풍경...

간식거리를 보며 만족해하시는 선장님의 표정, 그날은 마을 정자에서 동네어르신들이 모여서 간식을 드시는 날이 되었다. 어느덧 간식을 꼭 챙기지 않고 한 번씩 걸러도 조사가 잘 이루어질 정도로 조사구분들과 많이 친해졌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고만 사 온나. 네가 무슨 돈이 있다꼬 자꾸 사 오노?”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고맙았다. 이젠 슬슬 내 방식대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딸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조사대상처 어르신들과 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방식이라면 방식~~. 자주 들러서 조사구분들의 부탁을 꼼꼼히 적어서 다음 조사 때 챙겨 왔다. “공과금 마지막 날이니 섬 밖에 좀 들고 나가서 내 주라”, “전동칫솔에 끼워 쓰는 칫솔모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읍내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함 알아봐 주라”, “다리 수술 후 아직 장 보러 못 다녀서 그러니 뭐, 뭐가 필요하다. 담에 올 때

사다 주면 돈 주꾸마~”, “△△방송료 OO씨 집에는 얼마 낸다 하던데 우리는 와 이리 많노? 더 할인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봐 주라”

전동칫솔은 모델명 적고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마트 다니면서 사용 가능한 교체 칫솔 알아보고 가격 비교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검색하고 주문해서 가져다 드렸다. 교체용 칫솔이 없어서 한 달 가량 불편해하시다가 너무 좋아하시고 가격에도 무척 만족해하셨다. 그로부터 그 집 배우자도 많이 친절해졌다.



도선배 선생님(무서우심)



도선배 부선장님
(무뚝뚝하심)



김○○ 아버지
(다정다감하심)

김◇◇ 아버지
(정밀해서 못살겠다)



이△△오라버님
(꼭 오빠라 불러)



최☆☆님
(나도 국가유공자다)



이♡♡ 아버지
(포즈 멋지세요)

이것저것 장을 봐서 조사 때 챙겨갔더니 다리 수술하신 어머니는 “이거 갖다 준다고 일부러 왔냐”고 미안해하시면서 어획한 거랑 돈 쓴 것 등등... 술술 말씀해 주신다.

섬에서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다. 5천 얼마 내시는 분은 보훈 대상자 할인이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 “아, 그라모 나도 국가유공자다.” 그러시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내 보이셨다. 6.25 참전하셔서 TV 수신료는 면제받고 계신다. 국가유공자 번호를 말하니 할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유공자증 사진 찍어서 사무실 들어가서 신청양식을 프린트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찍어온 신분증도 프린트해서 팩스 보냈다. 다음 조사때 가니 △△본사에서 언제부터 할인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법에 관심이 많으신 조사구 일부 어르신들은 내가 섬에 오기만 기다리신다. 자전거 타고 섬을 한 바퀴 조사하고 나서 컴퓨터 강의를 해드린다. 핸드폰 2년 이상 쓰신 분들 20% 할인되는 것도 일일이 전화해서 처리해 드렸더니 자식들보다 낫다고 좋아하셨다.

부선장님은 부산에 무선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던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통화 내용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를 넘겨받아 절차와 방법을 숙지한 뒤 부선장님의 증명사진과 수수료를 챙겨 받아 사무실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원하는 날짜의 교육은 정원이 마감직전이었다. 다행히 접수를 끝내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심해 하셨다.

그 다음 조사때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어촌계장님과 이장님이 소문을 내셨다나...

교육신청접수증

20160907	지 격 출 회	배환부
원 〇〇	교 육 함 소	무산자
2016-04-12 (4학년)		
(001)〇〇 무산생역서 〇구 〇〇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원 부산본부장		
보 및 접수된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정미 아니면 교육도 못받고 도선배 운행 못할 뻔 했다 카더라”

섬 밖에 사는 자녀들 집에 가실 때 차도 태워드리고, 읍내가면 버스타기 좋다시길래 읍내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래저래 이젠 조사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젖어 뿌듯하다.

무선교육 신청 건 이후로 부선장님도 어획량을 착실히 적어주시고 유선비 할인 건 처리해 드린 최〇〇 경영주는 도다리 썰어 놓고 기다리신다. 이젠 모두 나의 팬이 되신 것 같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가 보다.



도다리회로
상차려 주심



난 통계조사하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콩닥콩닥~~

〇〇에 있는 조사구 중 한 곳은 생산량이 꽤나 많은데다 글 적는 것이 서툴러서 일일이 받아 적어야 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생산량은 수협에 전량 위판한다면서 비계통으로 동네횃집에 판매하는 것은 숨기시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어렵게 조사를 이어오고 있던 터라 이전 담당자의 방식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연금이 삭감되고 다른 불이익도 있을 거라 철썩같이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선불리 재설득하여 비계통생산량을 끌어내다가 조사중단의 소지가 있는 대상처였다. 전 담당자는

수시로 드나들며 동네횃집에 판매한 양을 어렵게 파악하여 비계통생산량을 힘겹게 조사하고 있었다. 돈 지출한 것은 빠짐없이 술술 말씀하시면서 돈 들어온 어획량은 철저히 숨기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제가 조사하는 섬지역 어민께서는 횃집에서 물차 끌고 와서 신선한 횃감 사 가려고 줄을 서던데요. 위판하면 수수료 떼이고 손해잖아요. 언니는 단골횃집 없어요?”하고 여쭙지만 “우리는 위판만 하고 집에서 먹는 거하고 동네 할매들 고기 나눠주는거 말고는 엄따. 저번에도 물어보더만 내가 없다 안카더나?” 화를 버럭 내셨다. 의심도 많고 경계도 많이 하신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 택은 가정형편상 고등학생, 대학생 손주와 함께 살고 있기에 이모처럼 손주들을 챙기며 어가 언니의 마음을 열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햄버거도 사다 주고, 한 여름 통학길에 사용하라고 핸드폰용 선풍기도 사다 주고 식구들 목욕탕에 태워도 드리고 병원에도 태워 드리고... 경영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은 기본~ 가족처럼 살갑게 챙겨 드렸다.

이런 노력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이제는 나한테 넘어가셔서 비뿔비뿔한 글씨로 어가일지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적으시고 좀 못 내켜 하시기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수첩을 내어서 보여 주신다.





이상가족 상봉하다

○○에 있는 조사구는 이전 대상처에서 어업을 그만두셔서 대체한 곳이다. 어촌계에 소속된 분들이 다함께 피조개양식을 하시는 곳이 대부분이라 2년 내내 생산량이 없거나 어업일수도 어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어업을 병행하시는 표본가구로 대체하기 위해 몇 번이나 왕래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은 후에야 우선순위와 대체조건을 만족하는 어가를 찾았다.

낮에는 볼 일 보러 멀리 나와 있으니 밤에 오라는 말씀을 듣고 어가 아버님과 밤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9시경 찾아 뵙고 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더니 사실은 낮시간 집에 계셨다고 하셨다. 밤에 오라고 한 이유인 즉, 요즘 이상한 전화가 하도 많아서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신분증과 연락처, 어가일지를 내 보이며 설명을 드리자 이제야 사람을 믿으시는 것 같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활개를 치는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의심 안하고 자신을 지키실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아버님 참 똑똑하신 분이신 것 같았다.

“평생 이런 조사는 처음 오는데 들은 적이 없다. 귀찮타. 안 할란다. 내 개인적인 것을 다 적어 간다는기 말이 되나? 2만원도 싫타.”

“아버님, 정 그러시면 귀찮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불러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일일이 받아 적어 가면 됩니다. 그냥 딸이라 생각하이소. 따님이 넷이나 되면 우리 집하고 똑같네예. 올 친정도 딸 넷에 남동생 하나인데 저는 딸로는 막내 아입니꺼. 막내 따님이 생활비도 보조해 준다 하는 걸 보니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용돈 계속 드리고 있거든예. 어디 가나 막내딸이



30여년만에 상봉하심

최고지예?” 자화자찬에다 막내딸의 남다른 부모사랑에 대해서도 성토했었다. 성이 이씨라서 혹시 본이 같은지 여쭙다. “아버님 혹시 ○○이십니까?”하고 여쭙더니 이내 그렇다고 하셨다. “아, 그래예? 저도 ○○이쥬데예, 저는 ◇◇◇파 ☆☆대손

입니더”, “뭘라꼬? 니도 ○○이씨 ◇◇◇파라꼬?” 어투가 금세 달라지신다.

“친정이 오데고?”, “▣▣입니더” 갑자기 덩석 끌어 안으셨다.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 꼭 껴안으셨다.

‘밀어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이 할배가 미친거 아이가? 이 일을 우짜믄 좋노. 꼭 밀어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잠시 후

살짝 밀어내고는 “어째 이리십니까 이르신”하고 말씀드리니 “집이 사이다 공장 밑에 아이가? 아버지가 ‘◇’자 ‘◇’자 아이가?” 그러셨다. “맞는데예?” 하고 대답하니 “내가 니 아재다. 한 8촌쯤 될기다” 그러시는 것이었다.

“아버지한테 △△△아재 얘기 들은 적 없나?” 물어보신다.

옛날에 그런 말씀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라 관심도 없었고 하도 오래된 이야기고 직접 뵈 적도 없어서 전혀 뜻밖이었다. “내가 한 3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중일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주 갔었다. 아버지도 그때



작은아버지들과 단체상봉

삼촌들하고 여기 몇 번 왔다 가셨다. 경주이씨 ❖❖❖❖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서 밭길이 끊겼다 아이가. 아버지 잘 계시나?”하고 말씀하셨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문중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데 ▲▲▲에 계신 친척을 어찌어찌 해서 찾았으며, 본 문중에서 ▲▲▲에 산과 재실을 구입해 주고 문중 재산 일부를 떼서 ▲▲▲ 문중을 하나 만들어 독립시켜 주었다는 내용이였다.

한밤중에 인근에 사는 아들이 들러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다짜고짜 “○○아, 인사해라. 너거 누나다. ○○에 ■■아재 딸이다.”
‘흐미... 어찌다 동생도 생겼다.’

이리하여 여러 말할 것 없이 어가 대체는 성공하였다.

아버지랑 함께 만날 자리를 만들어 볼 것을 약속하고는 밤길을 나섰다. 주말에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에 갔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아버지로부터 자세한 관계를 설명 들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께 효도하나 한 것 같았다.



얼마후 아버지를 아재택에 모시고 갔다.

함께 식사하면서 어른들은 옛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시는 것 같았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시고 나가시던 동네청년이 아재 대신 밥값을 계산 하시면서 “저번에 찾았다던 친척이신 갑네예? 이산가족 상봉하셨네예. 맛있게 드시고 가이소”하고 가셨다.

얼마후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통계청직원이 이○○ 노인회장의 친척이라고...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아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어느 날 갑자기 아재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중 땅이 아직 문중으로 넘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의 계약서와 문중어르신들 동의서 등 서류를 찾을 수 없어 그러니 아버지께 여쭙봐 달라는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귀가 어두워 전화로 상세한 내용을 통화하기 어려워 직접 가서 여쭙봤다. 다행히 산과 재실계약서 원본을 갖고 계셔서 복사해서 아재께 갖다 드렸는데, 알고 보니 ○○문중 재실을 ▲▲▲에 살고 있는 총무아재가 팔아버린 것을 찾아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문중산은 넘어가지 않고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얼마 후 피조개 생산시기가 되었는데 아재께서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아버지 갖다드려라” 하시며 손질해 놓은 피조개를 주셨다.

아버지도 문중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주셨다. 이제는 두 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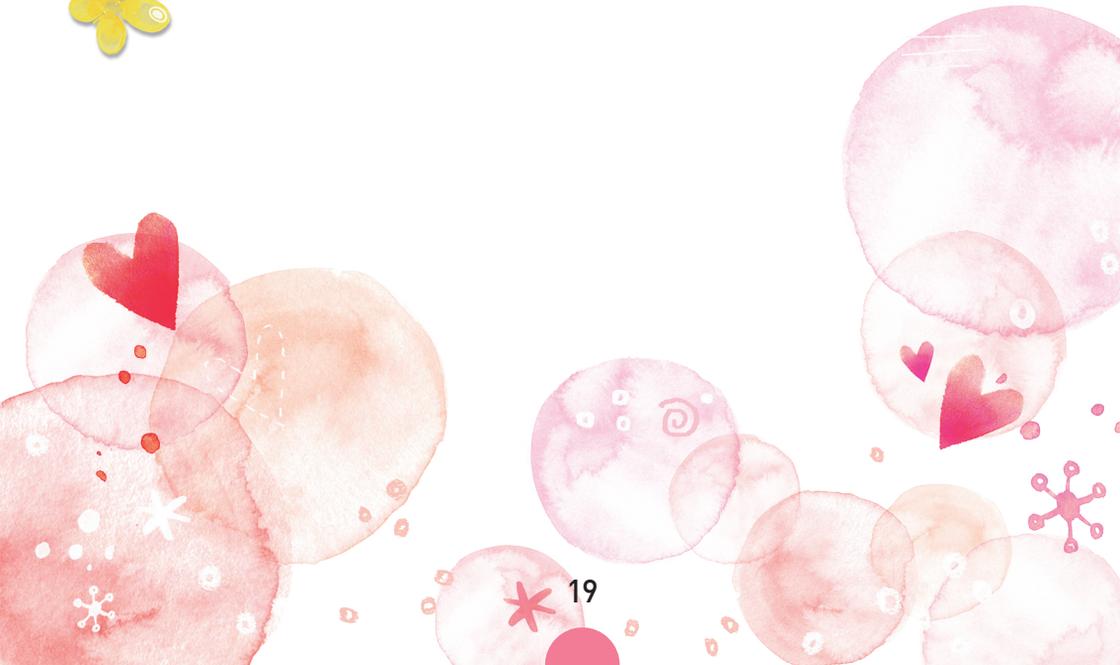


통계조사 덕분에 끊어진 인연도 다시 잇게 된 것이었다. 조사를 위해 힘든 일도 많지만 이렇듯 운명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통계청과 통계라는 매개체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었으리라.

통계조사는 수치가 아니라 영혼의 갈피에 한 장씩 추억을 끼워가는 것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고 그러다 보니 끊어진 인연도 소중하게 다시 이어진 것이라 믿고 싶다.

소중한 삶, 숨 쉬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어촌 내 사랑~ 통계 또한 내 사랑~입니다. ♡♡♡



마음의 소리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둘

충청지방통계청 강 명 호



저 멀리 시원하게 뻗어 있는 길옆,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길의 끝.
그 길 끝에서 애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표정과 눈짓, 손짓만으로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두 모녀가 있습니다.
쫄쫄같은 여름을 보내고 찾아온 이 가을에 아련하게 찾아오는 손님같은
내 기억 속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 합니다.
3년동안 같은 응답자에게 매월 방문하여 응답을 얻어내는 통계조사
그 3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또 다른 응답자를 새로이 찾기 위해 낯선지역으로
설득을 나섭니다.
나의 6번째 연동표본 작업은 시작되고, 두려움이 기대감보다 앞서 항상
무겁게만 다가오는 연동표본지역.

○○시 근교에 위치한 조사구로 그리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시를 벗어나 조사구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평온한 동네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사구를 향하는 동안 모든 것을 잊고 달려 도착한 ○○시 ○○면에 위치해 있는 조사구 시골 한적한 곳에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은 외딴집.

욕실과 냄비를 던지시는 할머니에게 내쫓겨, 아쉽게 1패를 하였습니다. 걸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계세요~~~”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로 방문 드렸습니다”

갑자기 뒷마루에서 냄비가 날아오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여? 누구 맘대로 들어오는겨?”

내 딸 없으니 어서 나가라며 마구 집어던지십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병병하여 서 있는데 이번에는 큰 장대를 가지고 툭툭 치며 떠밀려 쫓겨났습니다.

오늘을 건너뛰는 내일은 없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해도 오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나서야 새날은 동터오는 것, 그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다시 찾은 어제의 그 조사구의 가구~



통계조사 경력 30년차.

어질 인(仁)과 참을 인(忍)으로 중무장하고 다시 찾은 외딴 집.

불용 가구 앞에서는 웬지 모르게 자꾸만 움츠러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 넣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날아오는 냄비도, 할머니의 불호령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불러 봐도 집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내심 다행이기도 싶고, 또 와야 하는 번거로움에 투덜거리며 외딴 집에서 터덜터덜 걸어내려 와야만 했습니다.

저 멀리 파란 하늘과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들판 옆 길 노모는 딸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쪼그리고 앉아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며 딸에게 가을 들녘의 메뚜기를 보여주며 가을을 만져보고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감동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제 나에게 마구 집어던지며 욕을 하던 80대 노모가 아니던가?

놀라움을 진정시키고 두 모녀가 하는 행동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화창한 햇살을 받으며 두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가을에 핀 들꽃을 꺾으며 한참 동안 가을을 만끽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인 듯, 두 사람의 모습에 제가 낄 자리가 없어 보여 오늘은 한 보 물러서기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느 모녀 같지 않은 그녀들의 모습과, 가을을 만끽하며 미소 짓는 두 모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외딴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집안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그리고 마음 한편이 묵직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은 조사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주간의 어느 날, 외딴 집에 도착하니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 혼자 멍하니 앉아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반기며 다정히 제 손을 잡아끌며 “왜 이제 왔어? 밥은 먹었니? 잠깐만 기다려 배고프지?” 얼떨결에 마루에 걸터앉게 되었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으니 할머니는 찢 고구마를 가져 오시더니 어서 먹으라며 나에게 고구마를 건네셨습니다.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에 웬일인가 싶다가도 이제 조사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 싶은 마음에 “어머니~”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너 누구여~ 왜 남의 집에 와서 내 딸 것 빼앗아 먹는 거?” 하며 나를 밀쳐내셨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에 당황해서 마루에서 일어서다 발을 헛디뎈 다리가 겹쳐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픈 다리를 끌며 다시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 힘들다.....”

내가 평생을 바쳐해 온 일이 오늘따라 정말 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 더’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났습니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방문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라고 말을 하자 하얀 머리가 올라오고 있는 딸은 신문지 한 장과 펜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 합니다’

어렵게 만난 딸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필답과 수화로 진행된 3년간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그런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요? 여기에다 적어주세요’ 나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조사에 필요한 이야기를 필답으로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필요에 의한 말 없는 대화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청각장애인의 딸...

영순씨가 장애를 앓게 된 사연.....

그렇게 응답자인 영순씨와 필답으로 이루어진 몇 달 간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와 함께 알게 된 사연들...

영순씨가 장애를 앓게 된 것은 결혼초부터 남편의 구타와 외도로 고막이 터지는 사고 후 엄마와 생활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엄마는 딸의 불행했던 시절 사위로부터 딸을 지켜 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동표본 3년, 그 가을 들녘 낚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모녀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매달 이 조사구를 방문할 때면 두 모녀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좀 어떠신지?

장애로 힘들어하는 딸의 우울증은 어떤지?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주간에 만나지 못해도 딸과 그녀의 어머니를 보러 매달 그 외딴 집 대문을 열곤 하였습니다.

3년간 긴 시간 동안 응답해준 두 모녀와 아쉬운 이별을 하며 이젠 어머니가 나이 들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어머니 없이 외롭게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는 딸의 모습이 다가와 가슴이 아립니다. 이렇게 내가 맡은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힘들지만 서로에게 배려 해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저리도 맑고 푸를 수 있을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맞는 가을 하늘처럼 두 모녀의 삶도 늘 푸른 신호등처럼 내 가슴속에 드리운 햇빛 슬픔이며 쓸쓸한 그들이 한순간 말끔히 지워지는 참 좋은 오늘이 길 바라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는 만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일 관계로 배운 수화로 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참 아름답고 희망된 삶이 됩니다.

“마음의 소리” 가을 하늘처럼 푸르게 흩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리

- 강명호 -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의 소리를 모른다.
그들은 많은 시냇물의 소리를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리는 없지만,
특별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

그들은 가족의 소리는 모르지만,
가족의 사랑의 소리는 안다.

많은 시냇물 소리는 모르지만,
깨끗한 자연의 소리는 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리는 없지만
특별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무언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베테랑이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셋

경인지방통계청 한 난 이



나는 사회조사과에서만 10년 경력을 지닌 베테랑(?) 통계조사관이다.

그간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연의 경험들이 많지만 가구를 처음 방문하는 그 순간은 처음처럼 두렵고, 그때의 떨림은 새내기 때나 나를 베테랑이 된 지금도 여전한걸 보면 베테랑인 나에게도 연동표본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10년의 경력이 나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언제나 힘든 연동표본이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2015년 겨울 즈음 7번 조사구의 가게동향조사 연동이 시작되었다. 조사구 특성과 주소만 받았을 뿐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이 두근거림이 즐거운 만남을 예견한 설레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응답자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조사구 특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 최고의 방법은 우선 그 동네 터줏대감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조사구 입구에 ○○마트가 보인다.

마트를 중심으로 옆으로 나란히 4개의 거처를 표본으로 선정한 상태다.

그 동네에서 35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아들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 참 고운 분이셨다. 늘 곱게 화장을 하시고 예쁜 레이스 옷을 즐겨 입고 계셨다.

먼저 정중히 나를 소개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면서 넌지시 요즘 장사는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요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이 동네마트보다 훨씬 싸고, 집안까지 배달해주니 누가 동네 마트를 이용 하겠냐며 장사가 예전보다 훨씬 못해” 하시며 푸념에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주섬주섬 집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과 또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과자 등을 골라 담으며 말문을 이어갔다. 통계청에서 이 지역이 표본구역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씀 드리면서 “저 안쪽으로 네 집 모두 대상가구인데 혹시 잘 아세요?” 했더니, 마트 여사장님께서서는 주인가구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다. ‘와~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든든한 아군을 만난 듯 기뻐다.

지금도 휴식처가 되어 간혹 음료수 한잔 같이 마시면서 한참을 이야기 보파리를 풀고 오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대략 네 거처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한 집 한 집 예비조사에 나섰다. 협조공문과 얼굴이 담긴 통계조사 자료를 미리 우편 발송한 상태라 딱히 거부반응은 없으셨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은 거의 낮 시간에, 또 그다음부터 퇴근시간에 맞추어 저녁시간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하였다. 부재가구는 방문시마다 협조공문, 얼굴이 담긴 통계자료, 손글씨 메모까지 동원해 정성과 흔적을 남기는 것과 다음 방문시기와 시간을 적어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최대한 통계조사 표본대상이 됨을 어느 정도 인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한 흔적 남기기에 치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딱히 문제될 것 없이 연동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의 일이다. 조사를 하다보면 참 가지각색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때면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론 내 맘을 할퀴고 지나가는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그날의 일이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된 가구였다. 두 부부가 살고 있다고 주인댁에서 정보를 준 상태였으며, 더 이상 아는 게 없다고 하였다.

첫인상으로 결정하는데 3초면 충분하다고 한다. 한번 결정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60번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날도 첫 면접에서 진정성을 드러기 위해 부드러운 미소와 공손한 태도로 온몸으로 무장(?)하고 오늘은 기필코 만나리라 학수고대하며 부재 가구를 만나기 위해 조사구로 향했다.



있어도 아무도 없음!

조용조용~ 귀를 기울이고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달그락 달그락 설거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남의 집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자탄도 하면서, 언제나 그리했던 것처럼 인기척은 있으나 ‘있어도 아무도 없음’ 설정 아닌 설정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오늘은 기필코 면접을 하리라 다짐을 하고 몇 차례 노크를 했다. “똑! 똑! 똑!”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 뵈 수 있을까요?” 한참 후 드디어, 대문이 열렸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90°배꼽인사와 함께 “통계청에 근무하는 한○○입니다.”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가구로 선정되셨음에 통계 조사차 방문하였습니다. 몇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부재중이심에 주말에 찾아뵈 점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명함과 함께 통계조사에 협조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렸다. 딱히 문제가 되는 가구도 아닌데 왜 그동안 문을 굳게 닫고 응답이 없으셨던 걸까 정말 의아했다. 부재 시 남겨 놓았던 자료 덕에 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음에 쉽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깡! 하는 문소리에 내 마음도 쿵!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들어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분이 나왔다. 순간 술 냄새가 진동했다.

“국가기관 맞아? 통계청에서 왜 신상정보를 꼬치꼬치 캐묻고 다녀 영?” 정말 한 대 때릴 기세로 아주 무섭게 퍼 분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서웠다.

“우리 집에서 나가!”, “깡!!”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깡소리 만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흙탕물이 회오리바람으로 되어 내 머릿속을 가득 휘감고 다니는 기분이랄까 무섭고 떨렸다. 어이가 없어 한동안 꼼짝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파출소였다. 그 남편분께서 신고를 하신 것이다. 신고가 들어와 확인 차 전화를 걸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수상한 사람이 개인 신상을 캐묻고 다닌다며 신고를 했단다. 신원을 밝히고 통계조사차 방문했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신원은

확인됐고,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하며 고생하신다고 한마디 하시고 사건은 종결됐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를 신고한 그 남편분은 실직상태로 몇 달째 술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었겠는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업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가? 실업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실업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프고 슬프고 남에게 알리지 싫은 일인건 틀림이 없다. 다행히 그 후로 취업과 동시에 아주머님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는 VIP가구로 자리매김하고 계시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수승황강,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연동예비조사를 마치고 본 조사에 들어갈 즈음의 일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전화벨소리에 긴장하게 되는게. 그날도 어김없이 심상치 않게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말투의 할머니님이셨다. 목소리만 듣고도 대충 어느 유형의 가구인지 짐작이 갔다. 웬지 할머니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집에 놓여있는 협조 공문과 명함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다. 우리 집은 통계 조사에서 빼달라고 하신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바로 찾아뵙겠노라고 말씀드렸다. 내 심장은 이제 이쯤 되었으면 딱딱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작은 언성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가구주이신 할아버지께서 예비조사때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협조의사를 밝힌 가구였기에 딱히 문제 될 가구가 아니었다. 무슨 일일까?



머리가 뒤죽박죽 복잡했다. 일단 달려갔다. 3층짜리 15평정도의 작고 아담한 집이었다. 옥탑엔 이혼한 큰아들의 손주가 기거하고 있었고, 2층엔 노부부가, 1층엔 중국 조선족 부부가, 지하층엔 작은아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옥탑에 사는 손주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큰아들이 이혼하고 줄곧 초등학생 때부터 키워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지층에 사는 막내아들은 심장판막증으로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가정사가 또 있을까?

상처로 얼룩진 할머니는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허름한 작은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 주방기구는 수십 년째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았고, 냉장고며 모든 세간들이 볼품이 없었다. 그 낡고 볼품없는 세간들 만큼이나 할머니 또한 쪽진 머리에 허름한 옷차림 이셨지만 눈빛하나 만큼은 예리하면서도 정갈하셨다.

작고 허름한 분식집도 생계를 꾸러가는 중요한 사업장이었으며 막내아들 심장판막증으로 대수술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어도 동사무소며 구청이며 안 가본 곳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혀 도움을 못 받음에 정부에 대한 미움이 매우 커 보였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 평생 백화점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며, 머리한번 미장원에서 다듬은적 없이 살아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검소하고 정갈한 분이셨다.

내 아들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이 판국에 통계조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버럭버럭 화부터 내시는데 마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나부터도 어처구니가 없는 설득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겠나.

통계청 조사관으로서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 자료로 이용되는 중요한 조사 이기에 다시금 조사내용,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 할 수밖에 없었다. 몇 마디 건네는 동시에 또 한 번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정말 응어리가 많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었다. 굳게 잠겨있는 마음의 문을 어찌 열까?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까? 고민 또 고민이다.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란 없다!

끝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 회수율은 늘 바닥이다.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또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된 것일까? 불신으로 푹푹 뭉친 가구들을 눈 녹이듯 해결할 방도는 없는 걸까? 통계조사관으로서 설득이란 내 몫이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다. 수차례 방문한 끝에 할아버님께서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협조해 주겠노라고 하셔서 조사에 응해주고 있으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대체하여 다른 가구로 대체한 상태이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대체라 해서 아무 가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구주 직업과 가구원수가 맞아야 가능하기에 이것 또한 적합한 가구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다행히 가구구분이 맞는 가구가 있어 만두가게는 현재 대체를 한 상황으로 대체가구에서 두 달째 가계부를 쓰고 계셨다. 근데 며칠 전 대체가구에서 불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유인즉 첩엔 식료품비만 적으면 된다던 가게부가 점점 세금이며
히물며 모든 수입 지출을 자세히 조사한다며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협조 못해주겠다고 하신다.

한번 설득했다고 해서 3년을 보장받는 가구는 없다. 전출로 혹은 가정사로
인해, 혹은 귀찮아서, 혹은 건강상 문제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3년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한참을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서며
“어머님 뉴스에서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것 있잖아요?
취업률, 실업률 이런 거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신 거 들으셨죠?”, “바로 어머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자료의 결과치가 뉴스에도
보도되고 또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라고 어르고 달래며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다.

간혹 노인복지 및 노인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혹은 저출산 문제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같이 토론하며 그리 한참을 사회의 큰 주체가 된 것처럼 대화에
대화를 거듭하다 다시 협조해 주겠노라는 답을 듣고서야 집으로 향했다.
이럴 때마다 진땀이 난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기에, 또 나의 욕심이자 성과이기에
놓칠 수 없다. 또 어떤 가구는 한번으로 끝나는 조사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고
물으며 귀찮다고 오지 말라 하신다. 그리 설명한적 없는데도 말이다.

3대가 함께 기거하는 가구는 도저히 가구원 씬씀이를 개개인에게 물어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러다간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다면서 예쁘게
불응하셨다. “다시는 오지 마” 난 잠상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설계사도,
이상한 종교전도자도 아닌, 단지 통계조사관으로서 조사의 협조를 받고자
방문했을 뿐인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지금도 조사구 방문시 만두가게를 들러 만두 한 접시를 주문하며 혹시나 작은 정성으로 그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길, 말벗이나 되어 드릴 겸 찾아뵙곤 한다. 꼭 설득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꼭 무언가의 자료를 얻지 않아도 나의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 큰 스승이 되어줌에 다시금 깨닫는다.

서두르지 않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겐 낯선 사람이기에 서서히 다가가는 법을 배워 통계조사에 큰 힘을 보태길 원한다.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불응 가구의 실태로 인해 아주 많이 힘에 겹지만 그래도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위한 나의 발걸음은 오늘도 밝은 미소와 인내심을 필수품목으로 준비 하고 오늘도 힘차게 조사구로 향한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또 해내보려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간다.





다가서면 멀어지는 그대... 이젠 그만!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넷

동북지방통계청 김 은 경



대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대구의 여름은 불볕더위에 열대야까지....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가을이 처서를 만나며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느낀다. 일기예보는 틀려도 어김없이 들어맞는 계절의 변화 흐름을 알리는 절기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련 고민도 조금만 견디다보면 시간이 해결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기간제 근로자로 시작해 6년@!!! 보파리 폼다 집었다 하며 임시조사원으로 보낸 2년! 통계조사와의 인연으로 통계밥 먹은 8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사실 난 대학 졸업 후 줄곧 한 직장에서 생활하며 사업체통계 조사표를 작성해주던 아주 협조적인 응답자 중 한사람 이었다.

출산과 세 아이 육아만으로도 벅찬 가정주부로 10년의 공백을 깨고 두 돌된 셋째 늦둥이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절박함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경험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도전해 보길 원했고 당장 절박함으로 돈벌이가 필요해 선택한 통계조사 현장! 지난 8년간 틈틈이 갈겨 써내려간 통계 현장 속 일기장!

짠했던 기억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어본다.

경험자 우대! 면접보며 눈치 없이 리얼하게 힘든 현장얘기를 거침없이 내뱉는 요령 없는 면접자세로 면접만 보면 탈락하는 나는 또 떨어질 거 하고 싶은 얘기라도 실컷 해야지 하는 맘으로 주어진 1분 스피치를 초보자에게도 경험을 쌓을 기회를 달라는 바램을 말하였다.

면접 보며 느끼는 거지만 경력자만 뽑으면 초보자는 언제 일 해보냐고 일정한 수는 초보자를 채용해 경험을 쌓게 해 달라는 당돌한 건의에 싱긋? 고개를 끄덕이던 ★★사무관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다 한 것처럼 들떠서 교육받으며 들리는 수군거리는 말들 속엔 “답례품이 5만원상품권! 답례품이 크면 조사가 힘들다는 거야!” 더구나 패널조사? 조사표도 두툼하니 사업체 달랑 1장 조사표랑은 달라... 통계조사가 쉬운 거 있나! 힘들거라 예상은 하지만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 같은 사람 사는 곳을 방문하는데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라고 스스로 긍정의 체면을 걸어본다.



사회동계부분 경험(experience)사례

내게 주어진 조사구역 ○○동 주택가, ○○동 임대아파트, ○○아파트 등... 그렇게 원했던 일 노력할 수 있는 건 다해서 조사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보지만 한 조사구 두 조사구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불응형태 접근금지, 문전박대, 외면, 욕설.....

의욕만 앞서 밤낮없이 방문하여 방문 전 붙이며 불 꺼진 대상가구 불 켜지기를 바라며 차안에서 죽치고 기다린 시간들과 더불어 조사는 진행 중 ~ ing.

어느 집 한집이라도 시원스럽게 들어오란 소린 고사하고 문조차 열리지 않는다. 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편부모 가정, 대부분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이다.

가계금융조사 이다보니 가구 수입·지출, 가구 자산, 저축, 부채 등 민감한 부분을 조사하는데 선뜻 응해 주리란 생각도 무리였다. 오히려 이 조사를 해주다가 혹시 재산이 노출되어 자신들의 현재 거주하는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거처를 잃을까 걱정하는 눈치도 느껴지고 조사가구 통로에 전염처럼 번지는 가계금융조사 거부는 초보 조사원을 또 당황하게 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말 빨이 먹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리 저리 머리를 돌려보지만 관리소장님 말고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주 거주 계층이 영세민에 장애인, 편부모가정 등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곳!

조사에 관해 들으려고도 관심도 없는 패쇄적이고 황무지 같은 막막함이 느껴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복지관을 들러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해보지만 무심하게 돌아오는 대답은 아침저녁 통계조사협조 방송은 해주지만 관리 사무소에서 통계조사를 해줘라 말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 주택가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통장 댁과 위치 찾느라 방문해 도움 받았던 ○○관할동사무소(주민 센터) 사회복지사를 다시 찾아가 공문과 조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도움을 구하였다.

쉽진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어설픈 초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조사원의 모습이 안 되어 보였는지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함께 방문해 임대아파트 집단거부만이라도 지원 설득해 일단락 마무리 하는 가운데 한 가구씩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가구조사하며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짝~하게 남아 코끝 감성을 자극하는 ○○임대아파트 한부모 부자가정의 설득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춘기 아들 둘에 이혼한 신용불량자 아빠! 부자가정

밤낮으로 방문해도 사춘기 전후 아들 둘만 덩그러니 집을 지키는 가구로 아버지는 주야간으로 일을 하셔서 만나기 어렵다는 말에 수차례 방문으로 얼굴과 목소리가 익숙해질 무렵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애들한테 통사정을 하였다.

살짝 열린 현관문 안으로 아이들만 있는 집안은 뭔가 그늘이진 듯 무겁고 눅눅한 분위기가 감성을 자극한다. 식탁 위 수북이 쌓인 컵라면, 먹다 남은 밥,

여기저기 두리뭉실 걸쳐놓은 옷가지며... 정돈되지 않은 집안이 엄마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을 감지하는 순간 조사원의 맘보다 엄마의 마음이 앞섰다.

“엄마 아빠께서 많이 바쁘신 모양이구나! 애들이 밥은 먹었어? 몇 학년이야? 학원은 안가니?” 등등 사소한 대화로 아이들의 경계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자 아이들은 대뜸 “우리 집엔 엄마 없어요!” 라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나의 짐작이 맞구나 싶어 더 이상의 무거운 분위기를 피하고 싶었고 얼른 봉투에 조사표와 조사답례품에 관한 메모 그리고 나의 연락처를 주어 아빠께 전달케 하였다. 며칠에 한번 집에 들르시는 날 꼭 전해드리고 통계청 조사원 아줌마가 전화 드린다고 당부하며 뭔가 모를 찻잡한 심정으로 나왔다.

통계조사 경험은 짧지만 조사하며 만난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할까? 한집도 사연 없는 집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도 조사해야하나 온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애들을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겨도 묵묵히 무응답인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며칠 후 다시 방문하였다. 이게 웬 난리인가! 조사표는 볼펜으로 쓰다가 지운 흔적에 반쯤 찢어지기까지.....

아이들은 상품권 오만원이 갖고 싶어 아이들이 하는데 까지 조사표를 작성해 놓았고 자산부분이나 어른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선 아버지께 물어보고 작성하고자 했으나 신용불량자였던 아버지의 강력한 거부와 애들만 있는 집에 방문하여 조사표를 전달한 조사원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낮선 사람 집에 들이고 허락 없이 작성했냐고 죄 없는 애들한테까지 매몰차게 야단을 친 것 같았다.





“아줌마! 다시는 오지마세요! 아빠가 한번만 더 오면 사생활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낯선 사람한테 문열어주면 가만 안 놔둔데요”

나의 잘못은 통계조사 하고자 어른 안 계신 집에 방문해서 조사표 전달한 죄! 물론 죄송하고 미안했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끼리 거의 방치하다시피 생활하도록 해놓고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문 열어줬다고 나로 인해 야단맞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맘이 아팠다. 나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우선 아파트 입구 슈퍼에서 음료수랑 과자와 빵 등 간식이 될 만한 것들을 구입해 전해주며 “애들아 아줌마 때문에 아빠한테 야단맞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방과 후에 학원 안다니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면 좋지 않을까? 간식이나 저녁도 해결할 수 있는데” 라며 살짝 말을 꺼내보았다. 낯선 반응을 보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주공임대아파트 집단조사거부로 도움을 받았던 그 복지사를 다시 찾아가 가구사정을 설명하고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통해 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조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우선 아이들 아빠를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연결을 해주려고 문자로 연락을 취해보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거의 매일을 부모 없이 집안에서 맴도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조사한다고 밤낮으로 남의 집? 조사가구 주위를 맴도느라 많은 시간을 어린 아이들끼리 놔두고 나온 자신과 우리 집 세 아이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여전히 그 아이들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 그간의 일어난 일들 사정을 다 알았을까? 그렇게 불통이던 전화기에 낯설지 않은 번호이다.

통화가 시작되자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과 가정사를 묻기도 전에 마구 얘기하는 이 남자! 한 번도 본적 없고 들은 적 없던 여린 목소리로 펼쳐놓은 사정은 드라마 속 이야기였다.

애들 엄마가 도박으로 남긴 빚 때문에 집과 가게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가고, 애들도 버리고 그나마 남은 거 다 싸 들고 도망가 가출한지 몇 년째라고 한다.

애들 엄마가 진 사채 등 모든 부채를 떠안은 상태이고 통계조사에 써줄 내용도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신용불량자라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낮에는 현장 막노동일, 밤에는 식당 주차원, 대리운전하며 애들 엄마 행방을 수소문해 찾아다니고 하느라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애들끼리 집에 있는 상태라 한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무슨 통계조사에 관심 있겠냐며 되묻는 그는 통계조사하러 방문한 조사원도 귀찮고 신용불량자라 빚 독촉으로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꾼다며 더 이상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짧지 않은 통화로 그간의 맘고생은 사그라지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다가섰다. “선생님! (가구든 사업체든 방문하면 호칭은 일단 선생님으로 우선한다.) 힘드신데 자꾸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간식비라도 하게 답례품으로 나온 농협상품권 애들한테 주고 싶은데요. 조사표 완성하지

못한 거보다 애들만 있는 모습이 맘이 아프네요!”라는 말에 한참의 침묵 후에
말문을 여는 그는 “제가 뭘 해 드리면 됩니까?” 대신 제가 낮에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울컥!! 하며 진심은 통하는가 보다 ...자신의 사는 모습과 처한 상황을
보이고 싶지 않아하던 그 자존심이 아이들이라는 같은 부모마음의 공감대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확한 위치도 알려 주지 않고 ○○근처라는
말만 남기고 끊은 전화기속 응답자를 찾아 숨바꼭질 하듯이 장소 불분명한
그 곳으로 찾아다니게 하였다.

조사 마지막 날이라 끝까지 불응 처리 않고 붙들고 있는 그 가구가 사무실
에서는 관심 집중이었다. 처음 보는 남자응답자??? 관리자 언니는 혹시
모르니(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위치도 문자로 남기고 중간에 전화도 하라며
우려 반 호기심 반 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응답자인듯한 남자의 선량한 모습에 살짝 긴장되었지만
몇 번 본 사람처럼 유연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사는 게 힘든 아빠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진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신경 써주어 너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주고받은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진심이 통한 건, 단지
조사표 100% 완성이 목적이 아닌 보통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이었다.



**불응보다 더 겁먹고 난감한 옆집 비대상 가구(非對象 家口)
목쟁이 할아버지**

○○동 주택가 장애인이 혼자 사는 가구에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밤낮으로

다니며 문 두드리고 메모붙이고 하던 어느 날 옆집 비대상 가구(非對象 家口) 욕쟁이 할아버지께 입에 담도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다. 방망이까지 들고 나와 “뿔하러온 어떤 ×××이야” 라며 눈앞에 들이미는 방망이 앞에 자초지정을 설명할 틈도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생명에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뒤희쳐갔고 갈 것 있다고 밤낮으로 남에 집 앞을 서성이고 대문을 두들기며 막무가내 내뱉는 이해 못할 욕설뿐인 단어들... 뒷걸음치듯 도망친 나는 어둡고 인적 드문 그 긴 골목을 다신 밟고 싶지 않았다.

낯은 주택이 즐비한 동네라 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먹고살기 바쁜 삶에 찌든 모습들이 더욱더 조사를 힘들게 하였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충격이 가라앉을 즈음 조사는 어떻게든 해야 하고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아 ○○동 통장 다크를 찾아서 그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재활 자립센터로 찾아가 보라며 거기서 주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자립센터의 친절환 직원 도움으로 응답자를 만나 장애인 가구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두 번 다신 가기 싫던 그 골목길에서 욕쟁이 할아버지(고추 방앗간 운영)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여전히 차갑게 쏘아보는 살벌한 눈길에 당황스러웠지만 며칠 전 겁에 질려 말 못 했던 나의 신분과 내가 왜 여기 밤낮으로 방문했는지

또랑또랑 설명을 하였다. “할아버지 저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저는 이 동네에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하러 온 조사원입니다. 인구 조사 하는 통계청 아시죠? 할아버지 맥도 통계조사 표본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라며 두근거리는 맘을 감춘 채 더 당당하게 나의 존재를 설명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對象 家口)는 아니었지만 이상한 여자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끝없는 오해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동 조사구 조사표 100% 마무리하던 날 음료수 몇 박스를 사서 가구마다의 사정을 알려주시고 적잖은 도움을 주신 통장님, 인근 부동산업소, 동네 미용실 그리고 방망이로 무지막지하게 위협했던 욕쟁이 할아버지께도 들러 전달하며 앞으로도 조사협조 당부와 더불어 감사 인사드리며 가볍고 활기분한 맘으로 그 긴 골목 동네를 빠져나왔다. 이렇듯 조사 현장엔 때론 조사 불응보다 더 당황스럽고 난감하게 하는 때도 있고 온갖 욕 실컷 먹고도 간 쓸개도 없는 듯 속없이 다시 방문하고... 속이 다 썩어가는 씁쓸한 감동 노동자! 바로 현장조사원 모습입니다.



경제통계부문 경험(experience)사례

한동안 있고 지낸 절대 잊을 수 없는 조사 불응 대상처를 혼신의 힘을 다해 설득한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가족같이 느껴졌던 사업체 부문 설득 스토리~

1. 혼신의 노력(인내, 노력, 땀, 정성) 결정체! 보험회사 대리점

처음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도 한 달도 거른 적 없고 수없이 방문하고도 절대 전화조사는 불가능한 곳, 방문하고도 상황에 따라 그림자 취급

받아 가면서도 내 혼신을 다 쏟아붓는 곳,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번덕스러움에 늘 조마조마 함으로 노크하는 곳, 보험대리점!

첫인상에서 풍기는 『나! 깐깐함』. 처음 방문 당시 조사 목적 설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린 그런 거 모릅니더” 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매출액은 비밀인데 당신한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생뚱맞은 거절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버렸다. ‘그래 오늘만 날인가 오늘은 여기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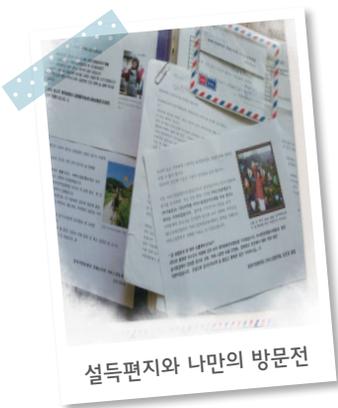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통계이며 영터리 통계는 세금 낭비이고, 정책 불신에 대구 경기 바다, 보험업계 불황으로 인한 대리점 경영 악화 등

그 모든 것이 통계청의 책임이고 조사원의 잘못된 것처럼 질책하고 호통 치는데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이다.

대리점 직원들 보는 가운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엉거주춤한 내 모습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 입에선 엉뚱하게도 “대표님 그래도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로 조사의 여지를 남기는 당당한 한마디에 한 달 두 달 세 달...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거머리처럼 딱 붙어 보험영업도 잘할 것 같은데 직업 바꿔 볼 생각 없냐”며

보험 상품 설명을 한 시간 이상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때론 무작정 기다리게 만드는 그림자로 취급한다. 나 역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문하며 나의 히든카드 “마음으로 다가서는 설득 편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글로도 쓰고, 방문 전 안부 메모도 정성껏 작성하여 늘 흔적을 남기기 작전으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며 늘 살얼음판 딛는 심정으로 다가갔다.



어느 날 빌딩 1층 로비에서 조사대상처 보험대리점 김○○(사모님)을 찾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험계약으로 방문한 고객인 듯해서 사무실까지 동행하여 안내해 드리고 보니 나를 향해 대표님의 표정이 살짝 미소를 띠며 차 한잔하고 가라신다.

한없이 쌀쌀맞고 변덕스러운 모습에서 의외의 반응에 어떤 교육예선가 들은 적 있는 “방문하는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만 잘해도 분명히 얻는 게 있다”는 걸 체험한 날이었다.

인간은 원래 변덕스러운 동물인가? 통계조사에서 안심은 금물이다. 3월 어김없이 자료 수집을 위해 방문한 사무실에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 2월 달도 만나지 못 해서 이번 달은 반드시 봐야 하는데 조급함이 앞섰다.

좋은 소리 못 듣고 눈시를 부히며 돌아서곤 하는 뒷모습을 일 년 이상 옆에서 지켜본 사모님은 요즘 저 양반(대표) 심기 불편하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단 소리에 불안하고 또다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조사라는 놈도 생명이 있어 아는가 보다.” 그동안 조금은 편해지고 적응됐다고 긴장 풀고 안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 돌아가는 길에 1층 로비에서 대표님과 마주쳤다. 꾸벅 인사를 하며 내심 ‘올라가서 차 한잔하고 자료 받아가요’ 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아래위로 훑어보곤 이젠 방문해도 없으니 사무실에는 더 이상 오지 말라 한다. 전혀 생각지 않은 생똥맞은 한마디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날 3월 23일 결국 소리 없이 내리는 보슬비 빗길에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다. 불안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에 순간 브레이크를 놓친 것이다. 그날 이후 내가 하는 일! 내 맘 같지 않은 통계조사에 대한 회의감에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까지도 잃게 만들었다. 여리고 감성적이라 눈물도 많고 정도 많지만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는 내 맘을 조절하지 못해 한참을 헤맸다.

그러나 마냥 다 포기하고 있을 순 없었다. 난 씩씩해야 하는 대한민국 아줌마이자 세 아이 엄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파이팅!

똑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빈 사무실이었다. 전화조사는 생각도 않는 터라 늘 그렇듯이 무조건 찾아간 업체가 사라지다니... 곧장 빌딩 관리 사무실로 향했다. 3층에서 2개 사무실을 사용하던 것이 영업활동이 부진해 7층 조금 더 넓은 한 개 사무실로 줄여서 이사했던 것이다.

그동안 영업실적이 안 좋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대부분 60세를 훌쩍 넘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다. “경로당처럼 장기도 두고 소일거리로 시간도 보내고 용돈벌이 삼아 보험 영업한 걸 수수료 떨어졌다고 수당을 줄여 줄 수 있겠냐고 차라리 내가 경비 줄이며 어려운 게 맞지 ~ 안 그래요?” 라며 되묻는 대표님!

가슴 쓸어내리며 “살아 있어(폐업, 행불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며 7층으로 찾아가 만난 그 깐깐하고 고약한 고집불통 대표님 모습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고집으로 농사짓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다.

분명 업체 나름의 사정과 사연들이 있음에도 기다리지 못해 순간적으로 서운해하며 원망 가득했던 나의 성숙되지 못한 맘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조사 현장의 현실은 아주 단순하다. 직원들 간단한 간식 챙기며 내편 만들고, 이사 간 업체에 휴지라도 선물하며 사업 번창하길 바라고 등등..



사무실 이사후
한결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대표와 조사후 면담중

그러며 고마워하고 공감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가 된다.

업체의 자료만 실적 챙기듯 받아 가면 되는 게 아닌 진심으로 내 일처럼 다가가는 자세와 업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함께 호흡해야만 유대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배웠다.

통계청 김은경이가 매달 조사하러 방문하는 날이 영업실적 신통찮아 마음 비우고 던져둔 우리 대리점 영업수수료 계산해보는 날이 되었다며 쓴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은근히 제가 방문하는 날을 습관처럼 기다리는 듯한 따뜻한 착각의 기운이 느껴진다.

올해 6월 우리 집 막내 아이가 아파트 분수대에서 넘어지며 코 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대상처 관리 차원에서 가입했던 아이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표본 개편으로 오랜만에 만난 대표님과의 대화로 요즘은 아파트 놀이터 시설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혀 몰랐던 새로운 보험정보를 알게 되어 우리 아파트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적지 않은 보험금까지 탈 수 있게 되었다.

자료수집으로 방문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통계 현장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2.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물가통계조사 현장의 요모조모!

불응보다 더한 숨 막히는 열기와 뜨거운 햇살 속을 헤치고 비장하게 시장으로 향하는 나는 대구 3권역 ○○재래시장에서 2013년 3월 이후 4년째 한결같이 소비자물가 조사 중이다.

지수 개편의 시기로 2015년 기준 추가품목조사와 더불어 조사대상처 권역 조정, 음식료품 유형조정, 거기다 숨바꼭질하듯 푹푹 숨은 OECD-PPP 조사 품목을 찾아 대구 시내를 헤집는 연간 조사 OECD-PPP 가격조사 등 물가 조사를 담당한 4년 중 가장 발품을 많이 파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사 현장에서 모바일 가격 입력은 편리성보다 두 번 일이라 할 만큼 많은 내검 건수 발생과 시스템 불안정, 등락코드 오류, 도난 파손위험, 기기 무게로 인한 손목 절임을 호소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 흐름을 따라 종이 조사표 대신으로 보급되는 모바일 기기의 효율성 미흡이 현장에서 수시로 노출되곤 한다. 모바일 입력 내검 프로그램의 완벽을 꾀하여 현장에서 바로 내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람과 동시에 한편으론 편리성이 현장 조사원들의 발목을 잡는 기기로 전락 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물가 조사는 가구처럼 엄청난 불응은 없으나 단순한 가격조사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게 180개 이상의 수많은 조사대상처 481개 품목에 품목마다의 조사 세부규격, 그리고 농축, 공업, 서비스 순기라는 정해진 날 정해진 기간에만 조사해야 하는 조사다 보니 교육, 휴가는 물론 그 무엇도 물가 순기를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조사대상처 관리를 하며 장돌뱅이 발품 팔듯 조사를 다니다 보니



굽 있는 구두를 좋아하던 내가 4년 물가 조사하며 변한 것은 운동화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가지 많은 나무처럼 조사대상처 수가 많다 보니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동 사항들. 폐업, 이전, 대표자 변경, 담당자 변경, 품목 미출회, 거기다가 대상처 경조사, 화재, 입원, 출산 등등..... 한 달이라도 조용한 달이 없는 물가 현장 모습이다.

상복이 많은 올 한해 나의 대상처들! 20년 이상 한결같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점장 이하 마트 직원들의 가족과 같은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는 Best 대상처 대구 ○○농협 ○○마트는 “통계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였다.

○○농산물 직판장 사장님은 뇌졸중으로 입원하고 었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로 가게가 소실되어 마음 졸이고 안타까웠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꺾끗이 버터내는 여장부 사모님의 소식과 함께 물가 팀장님은 경제통계부문 우수 조사대상처로 적극 추천(팀장님이 수년 전 물가 3권역 조사담당으로 그 대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하게 하였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달에 세 번 하는 과일 가격 조사를 한 번도 귀찮고 힘든 내색 없이 과일 가격을 짚어주는 프로 응답자! 오히려 더운 날도 마다않고 조사하러 시장 나온 나를 향해 고생한다며 시원한 냉커피로 더위를 식혀준다. 내가 직접 상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흐뭇하고 수십 년 동안 변함 없는 조사협조에 감사할 따름이다.



무사 안일한 일상을 뚫은 달콤쌉싸름한 도전!

참 부끄러운 자기고백 같은 얘기!.... 대학 졸업 후 93년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전부인 자격증 하나 없이 오직 성실성 하나로 직장생활을 줄곧 했었다. 그다지 자격증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림하며 폭 퍼진 아줌마로 자기계발에도 게으른 나에 모습이 뒤돌아 보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은 위기감으로 시작된 나의 도전은 우선 컴퓨터활용능력 2급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시작이 반이라고 6개월 만에 힘들게 컴퓨터활용능력2급을 취득하고 그 자신감으로 사회조사분석사2급에도 욕심을 내었다. 전공한 것도 아닌 생소하기 그지없는 용어들! 이해되지 않는 책 내용을 씹어 먹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다.

머리로 안되면 시간투자와 노력이 전부인 나는 손이 저리도록 노트에 정리하여 기록한 것만 몇 권! 인터넷강의 수강에 거의 1년 이상을 주말엔 도서관으로 향했다.

세 아이들과 함께 주말이면 맛난 점심 사준다는 것으로 도원 도서관으로 유인하여 책과는 별로 친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엔 내 집처럼 드나드는 걸 보며 자격증 공부랑 상관없이 또 다른 흐뭇함도 느꼈다.

몇 번의 실패와 도전을 끝으로 올해 5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았던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 취득을 하게 되었다. 시간에 쫓기며 바쁘고 엄청난 공부스트레스에 힘들었지만 하면 된다는 깨달음과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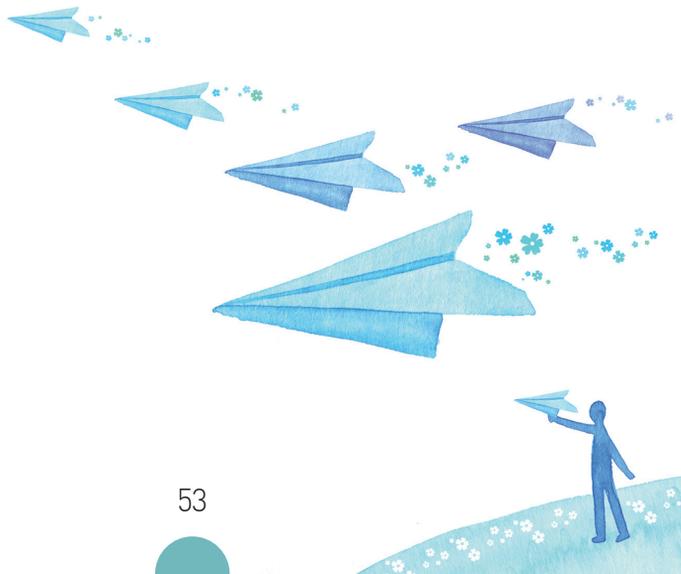


나는 통계조사를 산모의 출산 고통과 동일함으로 생각하곤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출산한 산모가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해가 지나고 아기의 재롱을 보며 그 아픔은 잊고 다시 산고를 참아내고 위대한 엄마가 되는 것과 견주어 보려 한다.

불응의 순간만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못할 거 같지만 두근두근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지방이 닿도록 방문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론 비굴하리 만큼 애원하고 최선을 다한 후 빈칸 채워지는 조사표 한 장 한 장! 그 성취감, 자신감으로 다음 조사 현장으로 향하는 바로 현장 통계인들의 모습인 것 같다.

통계에 있어 Icon 같은 현장조사!

그 현장조사를 아무나 한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현장조사를 낮춰보는 시각과 열악한 조사 현장에서의 푸대접에 이어 같은 조직 내에서의 화려한 성과주의 뒤에 소리 없이 묻히는 현장조사원의 고생과 수고로움을 다시 한 번 되새김해보았으면 한다.



내일은 더 무뎌지기를...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다섯

호남지방통계청 김 인 선



농가경제조사를 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받던 '나'는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사무소로 발령받았다. 사회조사팀에 배치된 나는 사회조사팀이 된지 2달 만에 16년 연동 7그룹을 조사하게 됐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내겠다는 열정으로 푹푹 뭉친 나는 겁 없이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기초 조사에서 조사를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설정한 가계부 구역에서 강력한 불응 가구들이 등장한다.

매섭게 눈보라가 치는 날, 불응 가구의 문을 열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동정심에 호소하기. 20분간 밖에서 눈을 맞으며 기다려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다.

어렵게 연결된 통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나를 상처받게 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와 비웃음이다.

‘오늘 집에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자주 방문했던 나, 사실은 그 말이 거부 의사를 몰랐다. 표본 가구는 급기야 나를 청와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시간이 흘러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해보지만 결국 불응 가구는 표본과에 전화하여 허위사실로 나를 음해한다.

사무소 회수율이 낮아 불응 가구 처리도 어려운데 새로 이사 온 집들마저 사무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겠다고 나를 협박한다.

연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나. 내일은 사나운 응답자들의 대답에도 조금 더 무뎠을 수 있을까?

이전 사무소에서 농가경제 업무를 맡다가 2015년 10월 ○○사무소 사회조사팀으로 발령이 나서 16년 연동 7그룹 아파트 조사구를 맡게 됐습니다. 농가에서 손녀딸같이 예쁘게 생각해주시고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셔서 가계업무 조사구에서도 딸처럼 생각해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계업무 하룻강아지인 저, '불응'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현장조사 스킬은 부족하지만 열정 하나만 있으면 불응 가구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의 기억

기초 조사 때부터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기를 꺼려하시던 집,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나왔다는 제 말을 듣고는 전화를 끊으시더니 제 번호를 차단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1월의 어느 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느 날처럼 전화에도 문자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 밖은 눈이 내립니다. 1층 창문을 훑어 보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감, 오늘은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해.’

도어벨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나 : “(딩동-) 통계청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나왔습니다.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 묵묵부답. 침묵만이 저를 기다립니다. 분명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10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도어벨을 눌러봅니다.

“딩동- 통계청입니다. 선생님,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치직- 누구세요?” 아들이 인터폰을 받습니다. “통계청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나왔는데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림) 저 여자한테 아빠 집에 없다 그래!”

순간 정말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일부로 들으라고 크게 말하신 것인지 고민을 할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 안계시니까 오지 마세요!”

멍-. 이 거짓말에 1.5초간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데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 공포의 불응인가? 내가 꼭 설득하겠어!’ 당혹스럽긴 하지만 일단 신규자답게 패기를 잃지 않고 뒤돌아섭니다. 뒤 돌아 밖으로 나가는데 창문으로 설거지를 하는 응답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 보고 말씀드리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아버지~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이에요. 집에 계셨네요? 잠깐이면 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녀석 좋은



척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넵니다.

힐끗, 눈길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마저 설거지를 합니다. 표정의 미동도 없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저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계속 기다리면 미안해서라도 열어주시겠지?’

10분이 지납니다. 설거지는 끝났습니다. 응답자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곧장 거실로 갑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또 10분이 지납니다. 발은 얼어가고 코는 빨개져 숨을 쉴 때마다 아립니다.

그때, 갑자기 응답자가 창문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문을 열어주시려나 봅니다. 기대에 가득찬 눈빛으로 미소를 보내며 응답자를 바라봅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커튼을 칩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온데간데없습니다. 발을 떼서 돌아가려는데 얼어붙은 발은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온몸의 눈을 털어내고 차로 돌아옵니다.

‘아, 역시 쉽지가 않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문을 열어 주실 거야.’

다음날, 다른 가구에서 가계부 기입을 약속받고 기분 좋게 돌아서는 길에 차에 올라서는 응답자를 만났습니다. 가계부 설득 후 자신감이 상승돼 있는 상태라 자신 있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통계청 직원이에요. 어디 가세요? 잠깐 5분만 시간 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가씨 아직도 포기를 못했소? 하.. 나 어제는 마누라가 문 열어 주면 죽어버린다 한게 문을 못 열어줬는다.. 이거 조사해주는 거 아내한테는 비밀이요. 꼭이요. 나 진짜로 들키면 큰일 나오요.”

“아버지, 그때 말씀드렸던 가계부는 어떡하죠?”

‘같은 공무원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나는 저 사람의 짜증 쓰레기통이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 불응으로 처리하고 몇 달 간 전화통화 시도 후에 간단히 취업시간, 가구원수 등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 달 째 되는 달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 목요일에 3시간 야근했고 금요일은 쉬었네요. 아들은 대전으로 대학 가서 없어요.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문자로나마 경제활동인구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자를 보내는 손가락은 항상 두려움에 걸음이 늦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구, 다음 달도 응답해주실까요?



상사 이름이 뭐야? 당신, 청와대에 신고 할거야!

부모님과 장성한 두 아들로 이루어진 이 가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집일 것입니다. 기초 조사 때 가계부를 써주겠다고 한 배우자 분의 얘기만 덜컥 믿고 1구역으로 구역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막상 가계동향조사 설득에 들어가니 집안 살림을 하는 배우자,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만 주고 재정 관리는 따로 하시는 가구주, 장성한 두 아들의 개인지출은 따로 조사 해야합니다. 한 가구에 지출 내역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네 명.

기초 조사 때 가계부를 써주겠다고 쉽게 약속했던 배우자는 막상 본 조사에

들어가지 생각보다 조사항목이 세분화돼 있다며 난색을 표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영수증을 모아주기로, 두 아들은 지출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초 조사 때는 1구역에서 4집이 가계부를 써준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가계부를 들고 가니 써준다는 집은 1집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1구역에서 가계부 1권만 나오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가구원들의 협조도가 좋은 만큼 배우자 분을 꼭 설득해야 합니다.

배우자 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구에 방문하였는데 문을 열어준 것은 두 아들,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 여기까지 오셨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머니와 통화하고 오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왔지만 갑작스레 몸이 아프신가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어머니는 항상 외출하시거나 몸이 아프십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아파트에 도착해서 혹시나 만나주실까 싶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옆집에 전자 가계부 시연을 해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어? 1시간 전에는 서울에 계신다고 했는데…….’

“저, 어머니 ……”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요, 집에 없는 척했어요. 전화를 안 받고 문을 안 열어주면 하기 싫단 줄 알고 오지를 말아야지.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나는 장이나 보고 집안 살림이나 하지 나머지는 다 우리 아저씨가 해서 난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랑 아드님 두 분은 영수증 모아주기로 약속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쓰신 것만 적어주시거나 영수증 모아주시면 안될까요?”

“아니 글썄 하기 싫다니까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요.”

도망치듯 계단으로 사라지는 어머니. 아버지께 한번 설득을 부탁드려 보려고 회사에 돌아가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통계청 직원인데요. 오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번엔 조사해주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안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아가씨, 거 안 그래도 집사람이 왔었다고 말합디다. 근데 집사람이 저번에는 그냥 길게 말하기 귀찮아서 대강 조사해준다고 말하고 돌려보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사실 그런 거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조사 안 하면 안 되겠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니깐 옆에서 보기가 그러네요.”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아버지께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간이 돼, 조사차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수증은 잘 모으고 계시죠? 큰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계속 취업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디 지원서 넣으셨다고 하시던가요?”

“아들이오? 아니,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된답니까? 애들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요?”

“아버지, 이 조사는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구요. 혹시 이번 달에 취업을 하셨으면 취업자로 조사를 해야 돼서 여쭙봤어요~ 어머니는 가게부 쓰는 거 뭐라고 하세요?”



“하.. 아가씨..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애 취업 못하고 있는 거 좋은 일도 아닌데 자꾸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가게지출인가 뭔가 조사하는 것도 남의 집 빚에 보خم 든 것까지 물어보고 밥 먹고 술 먹는 것까지 알려주라니 국가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식구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내가 뉴스에서 통계청 얘기만 나와도 몸서리를 칩니다.”

“아버지.....”

“참, 그놈의 아버지 소리. 아가씨, 딱 보아 하니까 이제 막 발령받았죠?

아가씨도 시키니까 이러는 것도 이해하고 그 열정도 존중하는 데 그래도 사람이 싫다고 하면 돌아서야지요.

국가가 깡패도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계속 찾아옵니까? 나는 한달 월급쟁이라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위에다가 우리 집은 안 한다고 보고하세요.”

“아버지, 힘드시죠. 그렇지만 규정상 저는 다음 달에도 또 설득하러 방문 해야 해요...”

“아, 이 아가씨 정말 좋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아가씨네? 규정상 어떻든 간에 우리 집은 못하겠다니까? 나도 당신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줄까? 당신 상사 이름 뭐야? 아니 당신 지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 뭐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통계청이 아니라 당신, 청와대에 신고할 거야! 모가지 날아가기 싫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아가씨.”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 처음 겪는 상황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구를 어떻게 다시 설득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응답자 간담회가 있었고 경제활동인구조사라도 다시 설득해보고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통계청인데요. 가게부 때문에 아니고요~ 경제활동인구조사 땀에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그대로 ○○○회사 다니시죠?”

“네, 그거 물어보러 전화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집 앞에 두고 갈게요. 다음 달에도 전화받아주세요~”

“알겠어요. 참나, 국가에서 드럽게 할 일 없나 보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무시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남에게 홀대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국가 발전을 일한다 생각하고 버티내고 있는데……. 차라리 쌍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간 창문을 열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다음 달 어머니께서 자기는 신경 쓰기 싫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라는 통보를 듣고 하는 수 없이 남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가씨, 그때 그 아가씨요? 하.. 뭐 내가 의무가 있다고? 아~ 그게 협조 공문이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오. 내가 꼭 응답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 앞으로 3년간은 성실히 전화를 받아줄 것이고 그런 조항이 없으면 당신은 내가 공갈죄로 상부에 고발할 거야.”

공문을 팩스를 보내고 1시간 뒤, 표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무관님, 표본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말 안 해도 누군지 알 거라고.. 조사 시작한 지 3년 차인데 1년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분 말씀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협조 공문을 보내면 성실히 전화를 받아준다더니 표본과에 전화를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거짓말. 그동안의 나의 방문과 연락은 없었던 것처럼 1년간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조사를 들어간 7그룹 표본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처벌받게 하고 싶었던 것인 걸까요? 다음 달에 또 전화를 드려야 할 텐데..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상처에 무뎠지는 삶

위 두 가구는 끝까지 가계동향조사를 설득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이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를 위해 더 이상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통계청에 들어와서 체험수기를 읽을 때는 ‘와-. 이런 집이 다 있어? 난 이런 일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다들 열심히 하셔서 조사에 성공하셨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다들 잘 호응해 주실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가구업무를 맡은 동기 언니들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도 ‘에이, 언니들이 마음이 약하구나.’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체험사례를 쓰기 위해서 똑같은 체험수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의 감상은 처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글 한줄 한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처를 읽어냅니다. 어떤 구절은 왈각 눈물이 쏟아지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약해진 탓이겠지요.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서, 생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홀대를 받다보니 처음에는 몸이 지쳤습니다. 저녁에 연동 출장을 갔다 오면 진이 빠져서 저녁일과에는 신경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탓인지 잠만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상처받은 만큼 주위 사람들을 상처 주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요즘 왜 이렇게 매사에 못되고 날카롭게 반응해? 이런 모습 처음 본다..”

그다음에는 사람들의 냉대가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면서 패배감이 깃들고 분노가 샘솟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연동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면 조사구가 안정 된다는데 왜 내 조사구는 왜 이렇게 이사를 왔다갔다 할까? 왜 꼭 한 달에 한두 가구씩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난 구제불능이야. 고작 20가구 관리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이래서야 남은 인생도 불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할까?

아름다운 동행? 인연?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마다 표본가구 설득에 끌려다니는데 웃기시네.

뭐? 힘들면 불응 처리하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평소에 너무 잘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일일이 영수증 챙기기 많이 힘드시죠?”

완벽하게 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는 데까지 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뚜 - 아무 대꾸도 없이 그대로 전화가 끊깁니다. 전화가 끊기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혈관에 흐르는 진통제 때문일까요? 왜인지 생각보다 덤덤합니다.

‘생각보다 별 말씀 안 하시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약이나 먹자.’

이제 이 생활도 조금 익숙해져 어느새 이 정도 싫은 소리에는 무뎠나 봅니다. 그러나 상처에 강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뎠질 뿐... 내일의 나는 조금 더 무뎠질 수 있을까요? 내일의 나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표본가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지방청
장려상

말하지 말고 대화하라!

그리고 보면 택을 방문할 때마다 모두들 걱정의 말을 들었다. 집이 멀어서 힘들겠다고, 그래서 얼굴이 많이 상했나보다라고,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느냐고, 이제 운전은 할 만 하느냐고, 그리고 그 걱정은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집이 멀지만 처음에는 다 힘든 거니까 괜찮다고 하였고, 일을 하더라도 먹을 건 잘 챙기라며 음식들을 내어주셨다.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게 제일이라며 그거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하다며 용기를 주셨다.

- 장려상작 「이름 불러주기」 중에서 -

이름 불러주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섯

경인지방통계청 최 재 원



부름을 받다

“최재원 주무관님.”

“.....”

“최재원 주무관님!”

“앗, 네!”

통계교육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지방 사무소로 발령을 받은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 이야기도, 기시감도 아닌 현실이다. 형식상으로 공무원이 되었고, ‘주무관’이라는

공식적인 명칭도 얻었지만, 어디까지나 간판일 뿐 진짜배기 공무원은 아니었다. 어느 떡볶이 가게가 간판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가게'라고 바뀌 단다고 해서 곧바로 그런 가게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손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가게'라고 불러줄 때, 그리고 주인 자신이 그런 가게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가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주무관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주무관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던 그 주무관님의 시도는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는 지도 모른다. '부름'은 직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독일어에서 직업을 뜻하는 'Beruf'라는 낱말은 영어의 calling(소명)과 같은 의미다). 어떤 이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신(神)의 부름의 결과라는 뜻이다. 종교가 세속화된 요즘 시대라면 신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리라. 낭만적인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이제는 조금은 진부한 시 한 소절을 떠올릴 테고, 냉소적인 사람이라면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되는 주체'라는 루이 알튀세르의 말을 생각할 것이다. 둘 중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인지는 그러한 부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주무관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두 번째는 화들짝 놀랐다. 아무 생각도 없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였고, 놀란 이유는 비로소 '내가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의미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요즘 시대에 30대 중반의 신규 9급 공무원이란 일정한 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다가

안정성을 좇아 안착한 이를 뜻한다(그래서 그들 모두에겐 뭔가 사연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 글이 동화가 아닌 이상 현실을 이야기하며 ‘모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와 같이 하하 호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무관’이란 호칭이 낯설과 동시에 약간의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20~30년 동안 반복되는 업무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니 말이다.



내가 맡은 ‘반복되는 업무’는 농업관련 업무였다. 농사와 관련된 것이라곤 TV 속 드라마에서 본 것이 전부인 내게 현지로 나가서 조사를 하라는 임무를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은 ‘동물의 왕국’만을 본 사람이 아프리카 톰슨가젤의 생태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마주했을 때의 것과 같았다.

그중에서도 내가 맡은 조사업무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농가경제조사였다. 이 가련한 톰슨가젤에게도 한 줄기 빛은 있었다. 사무소에는 훌륭한 조련사로

이름난 사육사 선배님들이 계셨다. 사자와 마주치더라도 가젤이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문제는 그 방법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농업에 대한 설명들은 독일어의 관사 변화만큼이나 잘 알 수 없었다. 묘상, 식부, 본답과 같은



용어들은 의사가 휘갈기는 라틴어 낱말 같았고, 작물 도감에 있는 각종 작물들의 사진들은 세포분열이라도 한 것처럼 꼭 닮아 있었다. 몇 달 일했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다.

농업이라는 업무의 성격만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내게는 쉽지 않았다.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조사 방법론을 비롯해 방법론에 대한 공부로 꽤나 오랫동안 했지만 방법론을 논하는 것과 방법을 수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모르는 사람에게(심지어 아는 사람에게조차도!) 전화 한 통화 거는 것도 힘들어하는 내가 조사에 응해줄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을까? 지나는 사람에게 길 묻기조차 제대로 못 해서 1시간을 방황하는 내가 말이다.

교육원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도 이러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여러 지방청에서 오신 선배들은 하나같이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생각 보다는 응답자 대부분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지만 10~20% 정도가 어렵다고 했다. 어딜 가든 10~20% 정도의 응답자들이 난관이다. 그분들의 말에 상처 받지 않고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내 의문은 과연 그 10~20%를 잘 설득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다. 기존 가구의 불응으로 새로 대체된 가구를 설득하고자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길 위에는 내가 던진 물음표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이들은 썩썩 지나는 자동차들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10~20%가) 30%가 될까요, 40%가 될까요?'

다행히 그 길에는 조사 총괄 주무관님이 동행하였다. 나는 당연히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겠거니 생각했지만 우리가 내린 곳은 마을회관이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 역시 뛰어난 사육사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작은 마을이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 몇 분이 계셨다. 우리는 통계청 직원들임을 밝히며 여기에 온 취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를 듣던 한 할머니께서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하셨다. 상품권에 마음이 가셨던 모양이다. 너무 열성적이셔서 그분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냥 마음뿐, 아쉬움을 가득 담은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대신 우리가 찾아온 분에 대해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 거기 작년까지 이장 일을 했었잖여.”

이장을 하셨다니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었다.

택에는 할아버님만 계셨다. 총괄 주무관님은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기라도 한 것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였다. 조금 전에 수집한 이장 일을 하셨다는 정보를 같이 사용하면서 말이다. 다행히도 할아버님은 10~20%가 아니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영수증만 잘 모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구말구요.” 해주신다는 말에 넋죽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마침내 할아버님 택이 대체 가구가 되었고, 이번엔 나 혼자서 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7년 전에 면허 취득은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운전을 하던 나였다. 운전보다 지하철 타기를 좋아하는 내게는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황량한 초원에 홀로 남겨진 가젤을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지켜주고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그곳은 세상의 끝과 같이 느껴졌다.

농촌의 복잡한 골목들을 헤매던 그때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지판 ‘〇〇로 〇〇길 〇〇’이 미소 짓고 있었다. 뭐 하러 번거롭게 저런 걸 만드냐고 했던 새 주소의 고마움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진입해도 되나 싶었지만 과감하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는 주차 걱정이다. 이때 나를 반기는 할아버님의 손. 개가 짖는 소리에 나오셔서 주차하는 걸 봐주러 오신 것이다. 이쪽으로 대라며 손을 휘저으시는데 나를 구원하는 손 같았다.

무사히 주차를 마시고 안에 들어갔지만 걱정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분명히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저번에 드린 영농일지네요.”

“어, 거기 영수증만 모아놨어.”

“네, 감사합니다.”

긴 침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긴장한 나는 숨을 죽인 채 손에 든 조사표를 응시했고, 할아버님은 문밖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다. 마치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공교롭게도 단둘이 타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대체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내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차를 타고 나오면서 어느 소셜에서 보았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떠올랐던 기억만 난다.

‘처음부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니야.’



최서방 왔어?

또 다른 한 집은 연세가 여든에 가까운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사시는 덕이었다. 인수인계를 받으러 처음 갔던 날, 어르신께서 염소를 키우는 축사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셨다. 여기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축사 증축과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였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이어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 애석하게도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못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할아버님에게 일이 잘 안 되었다고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본인도 전화했을 때 똑같았다며 괜찮다고 하셨다.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다.

아마도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어르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보통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오후 때 방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과일을 내어 주셨고, 한 번은 직접 기르는 닭이 낳은 날달걀을 주기도 하셨다. 어느 날엔 가는 시간에 맞춰 방문을 했는데 덕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가셨는지 연락을 안 되었다. 그때 할머니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이 보였다. 연로하신데도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다. 나를 알아보신 어르신께서는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점심 때쯤 오면 말이야, ‘아버님, 저 점심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오라구.” 단순히 조사 때문에 귀찮게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아들이나 손자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말로 잊지 못할 기억은 따로 있다. 그 날도 댁에 아무도 안 계셔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 소리의 모양은 처음에는 그게 뭘까 싶을 만큼 희미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누구를 향한 소리인지가 분명해졌다.

“최 서방 왔어?”

현장조사를 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만큼 나를 감격시킨 말은 없었다. 어르신의 이 부름으로 인해 업무상의 관계는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누군가를 무엇으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나도 어색해서 입에 잘 올리지 못했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다. 이제는 다른 분들을 만나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장조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과 고충이 따르지만, 농가라 그런 것인지, 내가 운이 좋아 그런 것인지, 다들 친절하셨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분도, 짜증을 내는 분도, 집에 있으면서 아무 대답도 없는 분도 안 계셨다. 이것이 농촌의 정인가 싶었다.

가끔은 내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처음 만나 뵈러 가면 나이, 사는 곳 등 호구조사를 먼저 하신다. 어느 집에 가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모두 똑같았다.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만난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의 관심의

표현, 호의의 표현으로서의 그러한 말들 덕분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걱정과 염려도 많은 힘이 되었다. 집이 서울에 있어서 사무소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거리에 던져두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면 다들 놀라워하시면서 어떻게 매일 다니느냐고 하신다. 그 놀라움이 그저 놀라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젊은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고 하신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택을 방문할 때마다 늘 무언가를 먹을 수 있었다. 점심쯤에 갔을 때는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간단하게는 과일이나 고구마를 먹기도 했다. 젓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직접 짜서 나온 우유를 주셨다.

사실 택에 도착하면 이것저것 정신없이 확인하느라 내어 오신 음식을 다 먹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놓여 있는 음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시는 분들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고작해야 1만원짜리 상품권 두장 뿐이다. 2만원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사대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귀찮음’의 무게와 비교하면 많이 적어 보인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곤 한다. 그런데도 너무 고맙다고 손을 꼭악 잡아주신다. 내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닌데도.



다시 대체농가 얘기로 돌아가 봐야겠다. 보통은 만나 뵙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잡곤 했지만 다른 업무에 쫓겨서 조금 급하게 일정을 잡을 때도 있었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그래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이 늘어나기 시작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 거 미리 전화를 줘 주지.”

아직까지도 조금은 얼어있던 나는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통명스러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댁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거 미리 전화를 줘 주지.”

똑같은 말. 동일한 낱말의 배열. 이 글에서는 둘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듣는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저 말이 짜증과 통명스러움이 아니라 친근한 충고라는 사실을. 같은 말에 미소가 동반되자 전혀 다른 느낌이 되었다. 전화에서의 목소리만 듣고 마음을 졸였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와 비슷했던 일이 한번 더 있다. 갑작스러운 업무 때문에 보통 가던 시간 보다 30여 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다. 딱 시간을 정하고 간 건 아니어서 특별히 늦는다는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댁에 들어갔을 때의 아버님, 어머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어이구, 왔네, 왔어.” “난 또 사고라도 난 줄 알구 걱정했잖어. 늘 오던 시간에 안 오니까 뭘 사고라도 생겼나.” “아닙니다. 처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시간 늦은 일에 타박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어른들은 나에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걱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보면 댁을 방문할 때마다 모두들 걱정의 말을 들었다. 집이 멀어서 힘들겠다고, 그래서 얼굴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느냐고, 이제 운전은 할 만 하느냐고. 그리고 그 걱정은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집이 멀지만 처음에는 다 힘든 거니까 괜찮다고 하였고, 일을 하더라도 먹을 건 잘 챙기라며 음식들을 내어주셨다.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게 제일이라며 그거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며 용기를 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조사를 하러 다니며 그분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나인데, 오히려 내가 나에게 대해 그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그분들은 그저 대화를 할 누군가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대화를 하자고 생각하자 조사도 더 잘 되었다. 어쩌서 그럴까.

사람들 각각에게는 자기 나름의 중심이 되는 어떤 점이 있다. 그것은 아주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나간다. 상대에 대한 질문은 그 무엇인가를 찾아낸 후에 저절로 나온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가 될 테지만 상대에 대한 애정과 이해, 그것이 선행한 후에야 비로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단순히 A라는 사람이 밭에 어떠한 작물을 심었는지를 알아내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요즘 밭에 뭘 심었는지를 궁금해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둘 다 똑같지만 그 태도는 참으로 다르다. 댁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내게 물었던 사소한 질문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과일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들도 나에게 뭔가를 얻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서로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어쩌면 이분들이 초심자인 내게 조사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른다. 통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조사방법론을 수강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조사하든 조사는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고,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분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체득하고 계셨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리고 출발은 상대를 어떻게 불러 주느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주무관”이란 호칭이 낯설과 동시에 약간의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20~30년 동안 반복되는 업무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니 말이다.’

글 첫 부분에서 썼던 말이다. 이제는 그 부름이 낯설지 않다. 공포스럽지도 않다. 이제 주무관이라는 부름을 받으면 ‘네’라고 대답하고 달려간다.

‘20~30년 동안 반복되는 업무’(?)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업무들에 내가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름을 불러 준다면. 아직 호명되지 않은 그 누군가의 이름을 말이다.

좌충우돌 '통계인' 으로의 성장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일곱

경인지방통계청 정 경 미



통계청 사무소에 첫 발을 내딛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소로 발령받은 정정미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실에 빈자리가 많아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신규 직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실사 기간이라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을 나가서 안 계시네요. 오후에는 들어오실 테니 차라도 한잔하면서 기다려요.”

직원분들과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를 통해 기관의 업무 특성상 빈자리가 많은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일과시간이 되자 한두 분씩 출장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팀 배정을 받고 인사를 드린 후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긴장을 한 채 출근 첫날은 그렇게 되근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의 첫 업무는 가구부문 통계조사

사회팀으로 배정을 받고 오전부터 업무 인수인계로 분주했습니다.

통계조사가 생소하긴 했지만 뭐든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해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조사구는 가계동향조사 조사구 2개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 1개였는데 그중 1개 조사구는 연동이 막 시작된 가계동향 조사구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빨간 가방을 받고 연필 몇 자루와 조사표를 담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선배님과 인계인수를 위해 연동조사구로 향했습니다.

북한강을 끼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조사구는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1구역 한 가구씩 벨을 누르기 시작했으나 남의 집 벨을 누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본능적으로 저는 선배님의 뒤에 숨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낮이라 이집 저집 벨을 눌러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11층부터 쪽쪽 내려가 6층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시는 백발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네요.. 몇 번이나 왔었는데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도통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너무 다행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통계청에서의 첫 업무인수인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할머니에게 그렇게도 살갑게 말을 붙이는 선배님의 모습을 보며 평소 낮가림이 있는 저는 가슴 한구석이 꼭 막히며 답답해졌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아프기도 했고,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그리 반갑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세요..”

선배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 붙여진 성당 스티커를 보시고는 “어머 어머님, 성당에 다니시나 봐요. 저도 성당 다녀요. 너무 반가워요. 어디로 다니세요..?” 하시며 5분가량 대화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조사방법론에서 ‘레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면접조사 시 레포 형성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피부로 느끼며 3구역 가구명부를 그렇게 채워 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북한강을 바라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심 두렵기도 했고,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첫 가계부 회수, 설득의 실패를 맛보다.

4월의 첫날. 가계부 회수를 위해 혼자 조사구로 향했습니다. 연동 조사구이기 때문에 꾸준한 가계부 기입 및 설득이 필요한 조사구였습니다. 1구역에서 가계부가 1가구만 회수된 상황이었고, 2구역에서 한 가구가 가계부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사구의 20가구 중에서 10가구에서 가계부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멍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가계부를 쓰도록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한참이나 고민했습니다.

먼저 전자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며 명함 한 장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미 설득이 된 가구여서 저를 상냥하게 맞이해 주셨고, ‘이 정도면 어렵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 가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의 생각은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음을 902호 아저씨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계세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문을 다시 두드려 보았는데 찌푸린 얼굴로 아저씨가 불쑥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그만큼 싫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만 올 것이지 왜 자꾸 와!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자꾸 와서 귀찮게 해”

하시며 문을 쾅 닫으시려 했습니다.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 하며 문을 잡았는데 너무 빠르고 급하게 문을 닫는 바람에 저의 손이 부딪쳤고,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가계부 설득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902호는 선배님께서도 설득을 해보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가구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사담당자가 바뀌면 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응답자가 마음을 돌리시지는 않을지 내심 기대를 하고 갔었습니다.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이 기회에 설득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비협조가구도 방문을 해봐야겠다 싶어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까칠한 가구주이지만 명부작성에는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은 있겠다 싶었습니다.

평일인데도 집안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 이때다 싶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이 가구도 조사에 예민한 집이라고 선배님으로부터 들었던 지라 각오는 하고 벨을 눌렀지만 예상대로 배우자의 냉랭한 목소리는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공무원 정정미라고 합니다. 조사 담당자가 바뀌어서 앞으로 제가 방문 드리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터폰으로나마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걸 하는데 선생님 댁이 표본 가구로 선정이 되셔서 제가 매월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최대한 정중히,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린 덕분인지 꼭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기쁨도 잠시, 팔짱을 끼고 화를 내며 나오시더니 굳은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여기가 북한 공산주의예요? 왜 우리가족의 개인정보를 자꾸 캐물으러 오는거예요? 지난번에도 누가 왔는데 한번 해줬으면 됐지.

안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서 개인정보유출 기사도 나고 세상도 흥흥한데... 나 이런 거 안 하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하며 기 썬 얼굴로 저를 쫓아 내셨습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고 그냥 이 순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다시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준비해 간 팜플렛과 신문기사를 보여드리며 통계청 조사가 어떤 것인지를 짧고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제가 드린 팜플렛과 신문기사는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셨기에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했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집으로 가려니 착잡하기도 하고 결과도 좋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는 큰 힘이 되었고,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조사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나의 부족한 지식과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하는지 깨닫게 해 준 하루였습니다.



첫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시 한 번 두드리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간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운운하시던 가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기 전날 미리 문자를 보내고 왔는데 다행히 별말이 없으셔서

좀 생각이 바뀌셨나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왔었던 통계청 직원이에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워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닫힌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만상 찌푸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친근하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명부작성 때 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주제로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이번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요즘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시고 정말로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를 받아왔는지 몰라도 제가 건네는 축하에는 민망할 정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기에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고 그제서야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이세요?”

“네. 경찰공무원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어느 서로 발령 받으셨어요?”



“아직 발령 전이라 모르겠지만 ○○청으로 갈거예요.”

세상에나! 얼어붙었던 표정이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통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아들로부터 첫 조사를 하였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어머니가 통계청 조사에 불편함을 느끼시니 앞으로는 본인이 조사에 응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불응을 설득하는 기분이 이런 느낌이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중우돌 정경미, 이는 응답자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여전히 연동 조사구의 가계부 회수율은 심각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마음뿐이었고 가계부 설득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가계부 기입 설득에 실패했던 중학생 자녀 2명을 둔 801호. 그곳에 다시 한 번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사들고 벨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은 열어주셨습니다. 때마침 중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의 성적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 중인데 가계부 이야기는 꺼내봤자 역효과만 날 듯 싶어 어머니께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친밀감을 쌓아야 저를 신뢰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대학생 때 중학생 과외를 수차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만났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었고, 공통 주제를 통해 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셨습니다.

1시간 30여 분 정도 대화가 지속되었고, 대화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계부 이야기를 슬며시 다시 한 번 꺼내보았습니다.

가계동향조사를 응답해 주는 가구에 대해 중·고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되는 점이 부모님을 설득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큰 아드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재촉하지 마시고 꾸준히 독려하다 보면 차차 성적이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거예요.”, “네 고마워요. 어두운데 조심히 가세요.”

“네 어머니님, 근데 혹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가계부 작성도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큰 아드님 고등학교 진학하면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봉사활동 시간만큼은 어머니가 좀 챙겨주셔야죠!”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개인적인 가계부도 쓰기 번거로워요... 어떤 건지 한번 보기는 할게요. 다음번에 올 때 가계부를 하나 가져와보세요.”

단했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뻐합니다. 세 번 이상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던 가구에서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아직 가계부를 쓰겠다는 확답은 없지만 가계부를 가져와보라는 말만 들어도 날아갈 듯 기뻐합니다.

이 가구 어머니의 성격이 꼼꼼한 편이시라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내실 있는 가계부를 쓰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계부 첫 설득이어서 그런지 퇴근하는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약속한 대로 801호로 가게부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하여서 그런지 어머니가 집에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네. 그럼 시원한 냉수 한 잔만 주세요.”

처음과 달리 이 정도면 어머니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진 편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저를 믿고 집안까지 들어오라 하신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준비해 온 팜플렛, 신문기사, 가게부를 꺼내고 간략하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의 한 달 치 가게부를 기입한 것을 어머니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월급, 세금, 저축액, 공과금, 보험금 납부액, 카드 내역서, 마트 영수증 등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며 이렇게 기입하시면 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가계부에는 한 가정의 수입,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드러내기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빚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적어달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저의 가게부를 먼저 오픈하는 것이 응답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둔 저의 가게부를 보시고 내실 있는 가게부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가게부를 참 자세하게도 잘 적었네요.”

“네 저도 처음엔 습관이 안돼서 어려웠어요. 저도 매월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라도 하니까 훑어보면서 반성하는 날도 많아요.”

그리고 한두 달 쓰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이제 안 쓰면 허전해서 매일 꼭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최대한 한번 써볼게요.”

“네 어머니 감사드려요. 저희 매월 농협상품권도 2만원씩 드리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도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를 만나서 마음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을 다해 찾아뵙다 보면 언젠가는 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통의 문자와 선물을 받다.

신규자 교육으로 한 달 간 자리를 비우고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교육 중 문자 한 통이 왔고 번호를 보았는데 공산주의를 운운하시던 가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사는 아들이 잘 해주고 있는데 혹시나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닐지 내심 불안했었던 찰나에 문자 내용을 보고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역사회에서 문예활동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쓴 시집이 출간되어서 저에게 소포로 시집을 보내주시겠다며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 눈을 의심해서 몇 번이나 문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볼도 꼬집어보고 옆에 있는 동기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아들로부터 조사를 하는 몇 달 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집을 보내주신 점으로 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시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교육 중에 사무실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경미씨한테 택배가 왔는데, 혹시 주말에 올라오면 꼭 챙겨 가요.”

“네 주무관님. 근데 발신자가 누구예요?”

“○○○씨라고 적혀있는데?”

그 시집이었습니다. 얼른 잘 받았다는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에 그 주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대전에서 사무실로 달려가 택배를 확인하고 시집을 잘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집 첫 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메모

기쁘게 읽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어머니의 문자에 더 감사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타 지역 발령으로 개인 전출을 하였고, 어머니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통계청에 입사하여 가구부문 통계조사를 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가구조사는 처음엔 두렵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공들인 만큼 기쁨과 보람은 두 배 세 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모진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따뜻한 정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런 따뜻함이 늘 가구조사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연동이 다가오면 '내가 또 이걸 어떻게 하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응답자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2015년 4월 첫 조사 시 일희일비했던 저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될 때까지 해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 스스로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며 오늘도 빨간 가방을 메고 조사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산전수전공중전' 저보다 빨리 해보신분? 손!!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덟

경인지방통계청 이 명 희



2015년 꽃 피는 봄이 올까 싶었던 3월로 기억됩니다.

가구부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조사구란 단어도 그 외 모든 단어가 낯설게만 들리던 새내기.... 세 개의 조사구를 받아들고 '조사구 파악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구의 위치를 찾아보고 주차를 어디다가 할지, 몇 시에 출발해야 길이 안 밀리고 갈수 있는지... 첫 출장을 나가기 전에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사전조사를 하고 또 하고... 응답자 이름, 성별, 직업을 미리 어느 정도 보고 나가면 덜 떨릴 것 같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드디어 첫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맡는 가구 업무임에 더욱 떨렸지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저에게 많은 조언과 힘을 주시던 팀원들은 한 걱정을 하며 말하길, ‘중대형아파트 연동이라 어찌냐? 업무도 처음인데... 그래도 연동 잘 해 놓으면 3년이 수월할 거야. 그 조사구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거지’하며 격려와 위로(?)를 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땐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었고, 머릿속에선 ‘연동(?) 중대형(?) 도대체 뭘 소리야? 뭐 부딪혀 보면 알겠지’하고 전 용감하게 조사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었던가요?

이집 저집 구분하며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각 가구를 파악하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처 생각하지도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연동이라는 ○○조사구는 가계부가 하나도 설득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돼 버린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중대형아파트 연동이라며 왜들 나를 그렇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었는지, 그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걱정이 어깨를 누르고 한숨이 입에서 멈추지 않는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아파트 뭐가 그리 별나다고 출입하기도 힘든건지, 관리실에 연락하면 경비실에서 또 잡고, 다시 경비실 통과하기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 되면서 간신히 인터폰 누르고 “통계청입니다”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가가호호 방문하며 ‘담당자가 집니다. 저로 변경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 좀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하기가 무섭게 “지금 바빠요. 다음에요” 하고, 현관문은 열리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그 어느 집도 현관문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고 꺼진 인터폰에다 대고 큰소리로 외치고 다음 집으로 향했는데, 역시 그 가구에서도 별반 다른 게 없는 데면데면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를 반기지는 않더라도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야 할 말도 많고, 부탁할 것도 많은 나는 똥줄이 타 들어가는데... 그곳의 응답자들은 너무도 한결같이 이름 석 자 말할 틈도 없이 인터폰을 꺼버리거나, 그나마 문이 열린 집도 “통계청 ○○○입니다. 잘 부탁...” 까지 말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이구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하루하루 밤이나 낮이나 하물며 꿈속에서도 나는 ○○아파트에서 출구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귀신 마냥 아파트 안을 빙빙 헤매다 깨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구에서 우리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내 얼굴을 알리고, ‘이 구역이 내 구역이다!! 이 라인은 내 라인이다!! 그러니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한다’ 인사하고 외치고 부탁하며 알려야 했습니다.

현관문마다 리플릿을 명함과 함께 붙여 놓는 건 기본이고, 아이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명함에 사탕이나 젤리를 붙여서 놓아보기도 하고, 인사장과 안내장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문구로 바꿔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식상하시지들 않게 나의 조사구역임을 알렸습니다.

공동현관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슈퍼모델처럼 미소를 띠며 시간대를 바꿔가며 거의 매일 혼자 고군분투하며 홍보를 해가던 어느 날, 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건네는 702호 응답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자는 첫인상도 좋았고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웬지 친근하게 느껴지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일 이렇게 정말 힘드시겠어요”라고 한마디 하는데 순간 반가움과 뭔지 모를 고마움에 과하게 반응했는지, 약간 당황하는 눈빛을 보였고, 그 모습에 응답자가 빙그레 웃어 주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답고 천사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빠지고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그동안 감정이 폭발쳐 올라오는데, 떨리는 목소리와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곤,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보다... 어떻게 가게부는 설득하신 집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응답자. 주책맞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인적인 이성으로 “아직이요. 제가 하나씩 다 도와드릴 건데 시작만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불편하지 않게 도와 드릴 수 있는데, 가게부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부담이 커서 그러신지 선택하시겠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인사도 받아 주시고, 그럴 때 또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집 한 집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조사의 당위성을 알리는 게 지금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슬쩍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힘들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 드릴 수 있는데...” 용기 내어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어... 그럼 한 번 그 어려운 가게부를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자 가게부로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나올 것 같아서요. 가게부 쓰면 좋지요. 신혼 때는 쓰긴 했었어요. 애들이 크면서는 귀찮고 바쁘고,

그렇다고 씹씹이가 줄어들지는 거도 아닌 거 같고, 이리 봐도 내가 쓴 돈, 저리 봐도 내가 쓴 돈, 그러다 보니 안 쓰게 됐어요. 전에 주신 책자는 집에 있는데 다리도 아프실 텐데 차 한 잔 하시러 가요.”

이렇게 중대형아파트 OO조사구의 첫 번째 가게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반일까? 힘이 엄청 생기는 거 있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공통점도 많고, 예전에 노동부에서 하는 조사도 해 보았다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서로의 이야기에 꽃을 피우며 그 간 나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대견함과 다시 해보자는 힘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첫 가게부를 시작으로 설득은 탄력을 받게 되었고, 아랫집인 602호 엄마가 애들이 같은 학교라면서 모임에 나가면 가게부 얘길 해 보겠다고... 그렇게 귀 동냥 도움을 받아서 또 한 권 추가요~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만나기도 싫어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도 간신히 하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 전입 온 가구를 또 설득해내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구는 부인을 너무나 소중히 아끼는 약사 남편! 이 응답자는 설득을 위해 직접 만날 수 있는 약국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닌데...) 직접 약국의 컴퓨터에 전자 가게부를 설치해 주고, 약사 응답자가 조제를 하고 있는 동안 오는 손님도 직접 응대하고 약도 찾아주고 했습니다. 가게부 반복 지출을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다고 하며, 전자 가게부를 바탕화면에 깔아 두면서 또 한 권의 가게부를 설득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조사구에 나의 정열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말 처음엔 누구한테든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간절함에 단체로 홍보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구역, 이 라인은 가계동향조사 대상입니다”라고 같이 알려 줬으면, 누군가 좀 리플릿이라도 한 장 더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의 업무량이 있고, 우리 업무 특성상 같은 조사 기간에 일을 해야 하고, 그 뒤에 바로 또 다른 조사의 마감일이 있고... 그걸 너무 잘 알기에 그런 부탁의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저를 도와주셨던 팀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조사구와 정들어 갈 무렵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동으로 조사구를 바꿔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꼴도 보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첫 정이라 그런지, 너무 시원섭섭한 헤어짐이었습니다.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 권 한 권 일궈 낸 ○○조사구를 뒤로하고, 새로운 ○○조사구를 인계받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걱정 한 아름 안고 새로운 응답자를 만나 나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나, ○○조사구도 해낸 여자야!!” 결의에 찬 마음으로 조사구를 찾아갔습니다.

○○조사구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르신 응답자들이 많았고, 도심 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반겨 주시기까지 해서 너무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살고 손가락은 몇 개인지 속속들이 잘 알며, 서로들 정으로 잘 지내는 조사구였습니다. 제가 가는 날을 기다리시고 방문할 때 마다 끼니를 챙겨 주셨지요.

한 가구는 아버님이 수기로 가계부를 직접 작성해 주시는데 명필인데다가 어찌나 꼼꼼하게 기입해 주시던지, '명필아버님'이라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명필 아버님은 기입 지도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여쭙고 하느라 조금 오래 있다 보면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음료수를 주니 그걸 다 마시고 가려고 늦어 지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부턴 주시던 음료수를 쇼핑백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갈 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또 다른 어머니는 설엔 만두와 떡국 떡을 싸 주시고, 정월대보름엔 나물을 한 상 차려 놓고 기다리시고... 그런 날엔 제 입은 호강하고 제 배는 터지고 제 살은 땅 넓은 줄만 아는 날이 됩니다.

다른 집 가서 얘기하려면 힘 빠진다고 많이 먹고 가라 하시고, 싸 줄 테니 집에 가서 애들이랑 먹으라고, 일하느라 바쁘니까 못 해 먹을 것 같아 조금 담아왔다면 챙겨 주실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와! 이걸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도 들고 그 조사구에서도 힘들 게 하는 몇 집은 기억에서 싹 지워지는 기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과 더 친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던 게 뭐지 생각하며 챙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다 요거트 등을 하나씩 드리며 당 떨어질 때 드시라고도 하고, 평소엔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제가 없는 애교도 부리며 "호호호 그러셨구나! 어머니" 하면서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가며 하루하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보상인 듯 응답자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지금도 친딸처럼 대해 주십니다.



어느 날은 명필 아버님께서 조그만 목소리로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실례가 될까?” 하시길래, “아유~ 뭐든 물어보세요.” 했더니 “혹시 결혼 아직 안 했지? 내가 꼭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고 빵 터지며 “아이고 아버님 어찌다 보니 결혼도 하고, 도망도 못 가게 애도 셋이나 있어요.” 기분 좋은 오해로 한바탕 웃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을 텐데 어려 보이냐고 명필 아버님께 물었더니, 결혼을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어머니랑 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하러 나가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어머님 승! 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이나 있어요~”하고 큰소리로 승리를 알려드린 후 아버님이랑 엄청 웃었습니다.



“명필 아버님”의 다양한 종류의 작은 정성

저는 그런 어르신들과 ○○조사구 응답자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로 시시때때로 명절 때도 잊지 않고 작은 정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지!’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깨닫는 우리 ○○조사구. 안 그래도 1번 연동이라 아쉬워 죽겠는데, 올해로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계지출조사로 바뀌는 바람에 더 빨리 가계부를 종료하게 되어 더욱 아쉽고 서운한 조사구입니다. 이 조사구도 아마 처음부터 가족처럼 챙겨 주시고, 제가 방문하는 날을 기다려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다른

가구는 불응을 하고, 저 만 봐도 “아직도 안 끝났어?” 하면서 핀잔을 주시는 가구도 있으니깐요. 그동안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준 전 담당자는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 몇 조사구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도대체 뭘 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었고, 그런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까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아파트에 사는 응답자나 작고 허름한 거처에서 사는 응답자나 뚜껑을 여는 데까지 노력과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미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지 마는지의 문제와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각자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극과 극 비교 체험 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 경력은 얼마 안 돼도 산전수전 다 겪어 본 새내기입니다.

이젠 어떤 조사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알아 버렸으니깐요.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조사가방 둘러메고

조사구의 가구로 출발합니다!!



나의 선생님이자 가족인 통계청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아홉

동북지방통계청 고 현 아



작년 이맘때는 통계청 공무원 합격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저 합격했다는 기쁨과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 축하받느라 정신없던 시기였다.

그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 동기들과의 신규자 연수원 생활이 있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에 발령받아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장조사 사례를 정리하고자 노트북 앞에 앉으니 감회가 새로우면서 작년 면접장에서의 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현아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통계청 본청에 있는 통계 홍보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엔 통계청이 있습니다.’라는 멘트로 끝을 맺는 홍보 동영상을 보았

습니다. 동영상의 앞부분에서 통계의 필요성과 이용 사례 등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멘트가 굉장히 힘 있고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면접장에서 기회가 되면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통계청이 있다면, 통계청엔 고현아가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다소 낮 뜨겁지만 정말로 실현된 그때의 다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면 통계청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계청이 있었던 것 같다. 통계청은 선생님처럼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다. 대학교 졸업 후 처음 내디딘 사회생활이었고, 경기도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방통계청 ○○사무소에 발령받아 홀로 살게 된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준 내 통계청을 사랑해 보고자 한다.



언니 같은 친구인 도우미 가구원

내가 맡은 ○○시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 조사구에는 동갑내기 친구 이면서 언니 같은 예쁜 응답자가 있다. 작년 12월 조사구 인수를 위해 선배 전임자와 같이 출장을 나갔었다. 첫 출장인지라 어찌나 떨리던지 쿵쿵대던 심장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봐도 봐도 헛갈리기만 하는 조사구요도만 꼭 쥐고 차에 탔었다.

조사구에 도착해서 위치 설명을 듣고 조사대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가계부를 회수하고, 앞으로 새로 담당하게 될 사람이라며 그저 얼떨떨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만 하면서 쫓아 다녔었다. 그러던 중 다음 방문할 집 앞에서 선배 전임자가 귀가 뜨이는 말 한마디를 하셨다.

“이 집은 현아씨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살고 있어. 몇 번 더 방문하면서 친하게 지내 봐!”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표본가구 관리명부를 살펴보니 25살 나랑 동갑내기 친구였다. 괜스레 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밝게 웃으면서 만삭이 다 되어가는 임신부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사실 내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없었기에 응답자가 두 명의 아기 엄마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날도 추운데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붙잡으면서 나에 대해 이것저것 먼저 물어보고 말을 걸던 모습에 놀랐던 마음은 잠시였고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 조사구에 갈 때마다 전화 연락도 먼저 하고 자주 방문하면서 스스로없이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 친구는 전자 가계부를 이미 2년 넘게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배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응답해 주었고, 비농가 양곡소비량조사대상 가구로 달력에 꼬박꼬박 가족들의 외식 표시와 쌀의 소비량을 적어놓는 등 정확한 통계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친구 덕분에 그 조사구 가는 길이 늘 즐겁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또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첫째 아이가 있어 주변 다른 엄마들과도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통계청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새로 이사 온 집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도 해주면서 해당 조사구의 제2의 현장조사원이 되어 주었고, 아직 현장조사에 미숙한 내게는 큰 도우미 역할을 해 주었다.

발령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처음에는 그저 일도 배워야 하고 업무에 적응하느라 생각도 못 했던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또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고향집이 그리웠기도 했다. 그동안 주말에 고향집에 갔었지만 피곤한 나머지 잠만 자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사무실 근무로 복귀해야 하였기에 향수병에 젖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조사 가구의 사귀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아야,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안 먹을래?”라는 친구의 말에 퇴근해서 부랴부랴 달려 갔더니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찌개, 달걀 프라이 등 밑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손가락을 드는데 괜스레 어머니도 생각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던 식사시간이었다. 그 이후에도 친구의 둘째 아이 출산과 첫째 아이의 재롱잔치 행사를 함께 하면서 이제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지역에 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귀게 된 좋은 친구였고 때로는 언니처럼 나를 위로해 준 정말 고마운 응답자다.



언제나 응원해주는 응답자 할머니와 응답자 어머니

사무소에 처음 발령받고 제일 걱정되었던 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낯선 지역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걱정만 한가득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앞에서도 나열했지만 언니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좋은 친구도 생겼고 또, ○○조사구에는 항상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할머니와 어머니 응답자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발령받은 초기엔 그저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는 대로 쫓아가기에 바빴고, 인수인계 동행 출장으로 정신없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혼자 출장을 나가게 되어서야 조사구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상황이 되었었다.

아직 사회인이 되기보다는 학생 티를 벗지 못한 내 모습과 사투리가 아닌 말씨를 보고 먼저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조사구 어머니들이 정말 고마웠다. 그중 특히 ○○조사구 아파트 103호 할머니와 404호 어머니가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3년 조사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조사를 하러 가지 않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들이다.

103호 할머니는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받으시면서 손주 두 명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8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경로당에도 가시고 시장에 먹거리를 사러 가시는 등 모든 살림을 챙기시는 분이시다. 경로당으로 할머니를 뵈러 가면 “우리 손녀딸 왔냐.”면서 엉덩이부터 두들겨 주시고 “오늘은 내가 뭐 대답해주면 되냐? 먹고 싶은 것은 없어? 내가 영수증이랑 공과금 낸 거 다 모아놨어. 일단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시면서 반겨주시곤 한다. 장 보신 영수증은 영수증 보관함에 항상 빠짐없이 모아두시고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전화비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폰돈으로 노점상에서 구매하시는 내용도 꼬박꼬박 가계부에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나를 친손녀처럼 손잡아주시고 껴안아주시던 할머니였고,

관사 생활하는 것을 아시고부터는 이따금씩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무리 거절해도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친할머니가 생각났었다. 마지막 가계부를 회수하러 갔을 때는 서로 섭섭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꼭 부둥켜안고 있기도 했다.

같은 조사구의 404호 어머니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분식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으신 어머니다. 처음에 업무 인수를 받을 때는 선배 전임자와 너무 살갑게 지내는 모습에 우리 통계청 조사에 우호적인 분이시구나 싶어서 내심 안도했었다. 그러나 다음번에 혼자 방문했을 때는 “왜 담당자가 바뀌었냐”면서 불편한 안색을 보이셔서 어떻게 다가 가야 하나? 고민했던 어머니였다. 사무실로 귀청 후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응답 잘 해주시던 분들도 담당자가 바뀌면 그러실 수 있다면서, 그래도 원래 우호적인 분이셨으니 조금만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면 협조해주실 거라며 응원을 해주셨다.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포장마차로 방문하는 것이 혹시 사업(장사)에 방해가 되지 아닐까 싶어서 망설이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전임자께서 알고 계시는 조사 내용 이외의 조사대상 어머니의 가족 관계를 최대한 여쭙보았다.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새로운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분께서는 근무하시던 곳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머니의 장사가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당연히 이러한 속내를 털어 놓으시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나 역시도 같은 입장이라면 마음을 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다가가면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았기에 일주일 동안 한 번 씩은 점심시간에 어머니네 포장마차로 달려가서 떡볶이랑 어묵을 사 먹고 오거나, 저녁 퇴근길에 설탕 문헌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가면서 자주 눈도장을 찍었다. 사실 맛도 정말 좋았다! 다행히 사무소에서 승용차로 10분 정도 되는 조사구역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담되지 않았고, 어머니네 사정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어떤 응답자보다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정말 오지 않기를 바랐던 마지막 가계부를 회수하러 가던 날은 오늘 장사가 쉬는 날이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방문하니, 저녁식사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직접 키우신 콩을 갈아서 만들어주신 콩국수와 여러 종류의 밑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만 계속 드렸던 기억이 난다.

많은 양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 조사가 끝났어도 오며



가며 꼭 들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어떻게 맺은 인연인데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일이며 반찬을 잔뜩 챙겨 주셨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내 첫 조사구의 소중한 응답자분들이었다. 지금도 퇴근하고 출출하면 가끔씩 들러서 핫도그나 떡볶이를 사 먹고 오기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현장조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고, 그 말에 나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응답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언제나 가족 같은 선배님들

조사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조사구 응답자들에게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던 만큼 사무소 선배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우고 있다. 그중 현장조사 업무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지난 1월, 집세조사 기간의 일이었다. 아직 집세조사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저 지침서만 읽어보았을 뿐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나에게 선배 언니 두 분이 먼저 선뜻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아파트 조사구였는데 젊은 맛벌이 부부가 많아 낮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 조사구였다. 조사뿐만 아니라 운전도 서툴렀던 나를 배려해 주셔서 선배 언니께서 직접 운전을 해서 조사구로 향하였다. 아마 혼자 조사

하러 왔었다면 째깍한 밤하늘 아래 15층 복도식 아파트 2개 동을 보았다면 좌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쪽 옆에 든든하게 계시는 선배 언니들 덕분에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12구역까지 비구역 집세를 확인해야 했었기에 약 40가구를 방문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아파트 복도의 전등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 조사가 쉽지 않았지만 두 명 언니의 도움으로 한집 한집씩 초인종을 누르고 집세조사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날 모든 집을 한 번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해서 다음날에 재방문을 해야 했었지만, 응답해 주신 모든 가구가 친절하게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아직 조사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선배님들의 조사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2명의 언니와 동행 조사하면서 어떻게 여쭙보면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5차 연동 8그룹 예비조사 때였다. 아주 조금은 집세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던 때에 연동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조사구를 인계받아서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지만, 연동조사는 새로 시작하는 조사구로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응답자에게 조사 취지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하기에 그 부담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물론 연동 조사구 가구명부 기초 조사부터 내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정이 가는 조사구가 되었지만 처음 조사구요도를 받아들였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예비조사를 나가는 첫날에는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오늘은 여기 ○○빌라 사시는 분들만 만나 봐야지.’하는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출장 업무에 임하였다.

낮선 사람의 방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호의적인 응답자는 없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었지만, 시작 지점 가구부터 달갑지 않은 반응에 나는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예비조사 명부를 채워나갔었다. 부재중인 가구가 많아 면접조사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그날은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관사로 돌아왔다. 막상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연동 심사 날까지 예비 명부는 채울 수 있을까? 8구역 까지 모든 가구가 불응하지는 않을까? 가계부 0권 회수하면 어떡하지?’ 등 온통 걱정스러운 생각만 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루었다.

그렇지만 내 연동조사는 그 다음날을 기점으로 간밤의 걱정은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출근하는 내 모습을 보셨던 사무소장님께서 연동표본 예비명부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실 처음에는 소장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으나, 나보다 훨씬 오래 조사업무를 하셨고 분명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출장 업무에 임했다.

조사구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내 걱정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인지 소장님께서는 예전에 본인이 직접 겪으셨던 응답자 이야기도 해주시고 다 잘 될 것이라며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덕분에 긴장도 풀리고 소장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초인종을 눌렀다.



조사대상 가구의 현관문이 열리고 소장님의 신뢰감 주는 목소리와 말투, 모습과 응답자의 성별과 나이 등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질문 방식을 바꿔 가면서 능숙하게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여러 동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허허 웃으시면서, 한 집 한 집 조사를 끝마칠 때마다 “우리 사무소 막내 직원인데 앞으로도 방문하면 잘 좀 도와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말을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었다.

주변의 많은 선배님들의 조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직접 출장에 동행하여 조사했을 때와 사무실에서 통화하시는 선배님들의 전화 내용에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응답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고 또 자연스럽게 필요한 질문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선배님들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배워 가면서 나만의 조사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사지침서 숙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 면접 노하우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선배님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10개월을 돌아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한 통계 현장조사원을 키우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 같은 친절한 조사대상가구의 어머니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비협조적인 조사대상가구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또한, 주변의 선배님들은 노하우를 알려 주시면서 나를 신규직원에서 어엿한 현장조사 베테랑이 되도록 길러 주신다. 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 사람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고 도와주듯이, 한 사람의 통계 현장조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나 또한 이렇게 도움받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 가구 응답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관심을 갖고 방문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선배님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들어올 후배에게도 제일 큰 조력자가 되고 싶다.



괜찮아? 괜찮아!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

동북지방통계청 권 정 숙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갑자기 물으면, ‘내 나이가 몇이더라?’ 한참을 생각하게 된다.

통계청에서 일한 지 21년이 넘었지만 나의 대뇌 전두엽은 아직도 20대에 멈춰 있어서 말이다. 통계 세상으로 첫 걸음마를 시작하며 사무실 문턱을 넘는 것이 엇그제 같은데...

내 기억의 시간을 거슬러볼까...



셀프 힐링 ; 힘들 때 울어도 괜찮아

가구부문 조사, 특히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는 퇴근 이후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해야 면접이 가능한 가구가 허다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 첫째 아이는 죽이고 싶은 일곱 살, 둘째 아이는 미운 네 살이었는데, 둘만 집에 남겨두고 조사하러 나갈 수가 없어(주말에만 집에 오는 남편이 있기는 하다) 저녁을 먹은 후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간식 거리를 챙겨 함께 집을 나섰다.

조사구 주차장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하나씩 쥐여주며 차 안에만 있을 것을 신신당부하고는 차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아이들 모습이 접이 될 때까지도 눈길이 떼어지지 않았다.

불이 켜진 집들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며 “통계청입니다~”를 외치면,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녀요? 공무원 맞아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남의 집에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세요?” 등등의 불만과 짜증 섞인 소리로 대답을 꺼려하며 주저하는 가구 앞에서는 눈썹을 팔자로 쪽 늘어트리며 주차장에 아이들을 버리고 온 비정한 엄마로 코스프레 변신했다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네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등등의 이해 섞인 토닥임에는 “제가 내려가면서 버릴게요.”





피할 수 없으면 극복하라 ;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농업통계를 담당하다가 사회통계로 업무가 바뀌던 첫날, 10월의 월요일 출근길, 책상 위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뭐부터 해야 할까, 조사구 인수부터 받아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역별 고용조사 양○지역 응답자가 일요일 밤에 112로 신고를 했대요.’

○○군이라면 내가 실사 지도를 하게 될 담당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지금껏 다양한 종류의 민원은 많았어도 112로 신고된 민원은 처음이라 해당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로부터 전화로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는 우주 최강 오지랴의 여왕답게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일요일 저녁 혼자서 야간 조사를 하는 것이 무서워 남편과 동행을 했다고 한다. 응답자의 집은 2층 건물로 응답자는 1층 상가 중 편의점을 운영하며 나머지 상가는 임대를 준 상태이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다. 응답자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로 배우자의 졸업 학과가 누락되어 보완 조사하러 간 것이라 사전 연락 없이 짧은 시간 면접이면 될 것으로 여겨 그날은 편의점 안까지 남편과 함께 들어갔다. 편의점 안에서 통화를 하는 중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더니 가게 안 CCTV를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며 옆에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며, ‘남편의 동행’과 ‘주말 저녁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 했다면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까지 작성했으며 사과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일단 해당 파출소부터 방문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했더니 이미 상부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설명에 생각보다 사건이 더 커졌나 싶어 덜컥 겁이 났다.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응답자는 뵙고 가야지 싶어 미리 약속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찾아갔는데도 면담을 허용해주셨다.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조사를 다녀도 되는 겁니까?”

“주말 가족과의 휴식시간을 방해할 정도로 조사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제가 법학과 졸업했는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 법까지 거론하시며 K언론방송에 제보까지 할 예정이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셨다. 낮 시간에는 비어있는 가구들이 많아서 밤이나 주말에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채용 과정이나 교육, 업무량, 통계법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사과의 말씀과 미숙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약속드리고 나니 2시간 정도 지난 상태로 내 뱃속에서는 전쟁이...

이렇게 빨리 대처할 줄을 몰랐다며, 기존에 보아왔던 고압적인 공무원이 아님을 신기해하시며 본인도 다소 흥분했음을 인정하시고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꼭 들러서 차 한 잔 하고 가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은 웃으면서 헤어졌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112민원 관련 공문이 접수되었고, 사무소장님과 지방청 감사팀장님, 사회팀장님과 ○○경찰서와 응답자를 차례로 방문했다.

신고 취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온 3일 뒤 신고는 취하되었으나, 듣기로는 금년 경제총조사는 불응하셨다고 한다.

늦은 시간 방문은 사전 약속을 해야 하고 동행자가 있다면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나, 응답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 과하게 응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한 올의 실이 천이 되기까지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 힘이 모여야 하듯 통계자료 또한 응답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 그리고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가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따뜻한 동행 : 꽤찮아?, 꽤찮아!

조사업무를 하면서 동행자가 있는 일은 나에게도 가끔 있는 일이다.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 길이나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로 조사를 다닐 때면 등골이 오싹 거리기도 해서 가끔 남편을 「수호천사」로 임명할 때도 있고, 주말에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데 주말에 조사구를 가야 할 때면

“OO에 유명한 맛 집이 있다는데?”

“OO다슬기축제에 놀라갈까?”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출장길에 나서기도 했다.



함께 참석도 했다. 주말이면 늘 ‘피곤해’ 를 연발하며 등짝이 바닥에 딱 붙어 있던 모습보다 이런저런 얘기하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남편은 더 좋아했다.

어느 날 행정자료 협조 요청 건으로 통계청에서 타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유달리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통계청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담당자가 바로 남편이었다.

귀촌 통계 작성 관련 통계인데 마침 본인이 담당이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 집 슈퍼 갑=나=통계청>>

이제는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다. 각각의 빅데이터 간 연계로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폭넓은 분석으로 창출하게 될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에 나가서 힘들게 통계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마음에 힘을 줘서,

농가의 고춧가루 50근을 구입하여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서,

김장하라며 배추, 무를 트렁크 한가득 실어주시던 응답자의 정성이 마음에 가득 담겨서,

여전히, 난 괜찮다.



이젠 꽃길만 걸으소서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하나

동북지방통계청 김민음



푸르렀던 들판이 고운 자태의 황금별판으로 물들어 버린 가을,
오늘도 그들을 만나러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

나는 통계청 소속의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란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며 이 길을 걸어왔다.

통계청의 한 가족이 된지 8개월. 아직은 걸어온 길이 턱 없이 짧지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만났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더듬어 본다.



통계의 길 처음 걷다

나의 첫 출장길.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무소에 들어와 일주일 안에 인수 인계를 마쳐야 했기에 선배님들께 이리저리 불려 다니며 지금은 나름(?) 통계 노하우로 가득 차 있는 통계 수첩을 들고 설 틈 없이 현장조사 출장 계획을 적어 내려간다.

“믿음아! 오늘은 ○○농원으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인수인계 간다.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조사표 챙겨서 얼른 나가자.”

○○농원은 어디고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는 무엇이더냐. 그리고 또 조사표는 대체 어디 있는 거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입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출장을 따라나선다.

매 순간이 혼란스럽고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던 직장에서 일을 배워간다는 것은 참 기쁘고 설레는 것이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까?’

소복하게 눈이 쌓인 추운 겨울, 아직은 아무 작물도 심어지지 않아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는 도화지 같은 별판의 매력에 빠져 있을 무렵, 앞으로 내가 담당해야 할 대상처 앞에 마주하게 됐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우리 아버지 나이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나와 함께 갔던 선배님을 알아보시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게 먼저 얼어붙은 손을 녹이라며 따뜻한 커피를 한 손에 쥐여주시고는 마음을 열어 사정을 말씀해 주신다.

“지금은 먹고살기가 너무 어렵지.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고 살기가 정말 갈수록 어렵네. 이런 조사에 협조한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통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원.” 어린 내게 꺼내놓으시는 한숨 섞인 푸념에서 그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만난 첫 대상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쓰렸다.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돌아오는 길, 그분의 어두운 표정과 말씀을 곱씹으며 나는 결심했다. 내가 비록 오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무어라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농가를 방문해야 하는 농가경제조사. 처음 방문부터 ‘여긴 진짜 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농가가 있다.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독불장군이시고 할머니는 조사 좀 그만 오라며 핀잔을 주시는 분이셨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왔어요.”

“아, 뭐 조사할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자꾸 와!”

“할아버지, 할머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오지요.”

“아니 뭘 샀어야 적기라고 하지!”



처음엔 주눅이 들어 제대로 묻지 않고 돌아가는 날도 있었고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쪽파 1평 심은 것이라도 적어가려 하면 그때는 사정없이 노발대발 하신다.

“남의 집 살림 다 파헤치려 하나! 이놈아 좀 가라 가!”

정이 들 만도 하건만 매번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한 번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너무 옷을 멋스럽게 입고 왔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 조사표만 들고 다니는 내가 부담스러울까?’

그 후로 한 번은 조사표 없이 설맞이 선물로 식용유 세트를 두 손에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은 뭐 조사하러 왔는데?”

“아니요. 오늘은 그냥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설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소가 보이진 않았지만 식용유 세트를 받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마음을 받았다.

‘아 이거다! 나는 이제 조사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자다.’

그 뒤로는 조사원의 얼굴이 아닌 손자의 얼굴로 할아버지께 다가가기 시작했다.

차 없이 트랙터만 가지고 계셔서 읍내에 나가기 어려우신 할아버지 대신에 가끔은 공과금 납부도 해 드리고, 일하고 계실 때는 집이 아닌 밭에 나가 나도 같이 흙바닥에 털썩 앉아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 가기도

하고, 무거운 농작물 상자를 도와 옮겨드리고 하니,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는 내게 편잔을 주기보다 더운 날에는 수고한다며 냉수 한 잔을 먼저 건네 주실 정도로 나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기 시작하셨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던 태양빛이 가득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할아버지께서 불쑥 내미신 검정 봉지.

“이거 가져가서 먹어라.”

봉지 안에는 햇살 가득 머금은 싱그러운 오이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순간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놓였던 높은 담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오이 하나를 바로 꺼내 잘라먹으며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했다. 그때 먹었던 달콤한 오이향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그 일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노력의 과정이 있기에 결과의 열매는 더 달콤한 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웠다.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시간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가갔을 때 우리 사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짐을 느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 하던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싶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마알밭고 파스한 햇살에 새싹이 조금씩 피어날 봄날에, 신규자로 온 지도 벌써 정신없이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제법 내 자리가 편안하고 일도 조금씩



익숙해질 때, 새로운 업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가축동향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혁’소리 날 정도로 많은 농업 통계업무들은 나의 머릿속을 헤집기에 충분했다. 조사표 쓰는 법부터 완성하기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온통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 투성이인 상황에서 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지침서와 사이버교육이었다. 선배님들께서는 3월부터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주어질 테니, 바쁘지 않을 때 틈틈이 읽어보고 숙지하라던 지침서와 통계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통계청에 들어오기까지 한 과목당 2,000페이지가 넘는 수험서들을 공부하던 내게, 지침서 공부는 흥미로운 학습이자 간접적인 체험이었다. 특히 생육단계별로 분류된 농작물도감을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웠다.

선배님들이 이 도감을 공부해서 싹만 보고도 작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나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의심했었다. 하지만 웬걸, 그것은 실제로 가능했다. 밭에 나가 도감이나 지침서에서 봤던 작물을 실제로 볼 때면 반갑고 신기해서 뿌듯하게 조사표를 정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며 내가 조금씩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자료입력과 내검을 마쳤을 때 그토록 애쓰며 들고 싶었던 말, “잘했다.”

철은 자신보다 단단한 물질로 연마해야 날카로워진다. 업무를 배우기 시작할 지 얼마 안 되는 나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매듭짓는 과정에서 직접 더 많이 부딪히고 터득하며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드디어 농업통계의 꽃, 논벼를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 정확히는 농작물 생산량조사 중 하나인 논벼생산량조사(이하 논벼)! 논벼는 보통 9월 중순 즈음에 조사하러 나가게 되는데 우리 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데 이번 추석은 하필 빨리 다가오는 터라 그전에 논벼를 베러 나가야 했다. 논벼를 나가기 전 선배님들께 정말 많은 조언을 들었다.

“믿음아 그동안의 업무 중에 이걸 정말 정점이야.”

“논벼 하는 날은 저녁 9시 전 퇴근은 꿈도 꾸지 마라.”

“포구에 잘못 들어가면 뱀이 다리 타고 올라온다.”

“내가 담당하는 단위구에서 난 시체도 봤다.”

‘헉! 시체라니...’ 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워낙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런 단체로 협동하는 현장업무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새로운 현장조사를 나갈 때면 맘껏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풍경이다. 특히나 농어업통계팀의 업무 특성상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빌딩은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집 한 채, 사람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많이 있다. 그런 곳에서 광활하고 푸른 초원에 멍게멍게 피어나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몸과 마음은 금세 자연에 동화되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역시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법. 논벼를 하러 철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스무 대가 넘는 전차부대와 사이클 대회로 인한 자전거 부대 덕분에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차 안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디찬 눈빛으로 우릴 바라보는 무장한 군인들의 검문소를 수차례 통과해야 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단위구에 도착하였다.

나는 줄자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깃발을 들고 여기 꽃고 저기 꽃고 선배님들이 벼를 베어 오면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벼를 베어 오면 털고, 말리고, 조제하고, 조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바지는 논두렁 진흙이 찰지게 묻어 장화와 물아일체가 되어 있었고 윗도리는 이미 머리에서부터 흐른 땀으로 인해 충분히 젖어 있었다. 금세 새까맣게 타버린 내 얼굴과 까슬까슬한 벼에 쓸려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에 충분한 답을 주었다. 한때 무한도전 논두렁 특집에서 제 몸을 못 가누며 이리저리 진흙탕에 얼굴을 파묻던 우스꽝스러운 출연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내가 그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차라리 수험서 2,000 페이지 넘게 공부했을
때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벼단 묶는
것마저 내 맘대로 쉽게
되지 않았고 몇 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벼단을 제대로 묶을 수가 있었다. 선배님들이 왜 논벼가 농업통계의 꽃이자 정점이라고 말하는지 논벼 시작하는 첫날 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일한 지 8개월째 되었으니 나름 농업통계를 많이 배우고 익혔다 싶었지만 논벼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겸손해졌다.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논벼의 경험은 나를 다시 한 번 겸손하게 만들어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젠 꽃길만 걸으소서

8개월 동안 통계조사 현장의 길을 걸으며 얻은 큰 깨달음이 하나 있다.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린다. 줄지어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 어느 날 줄지어 자라고 있는 작물들 옆 도랑에서 우연히 농부의 실수로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았다. 겉보기엔 그냥 뿌려진 씨앗이지만 오히려 그런 씨앗에서 자란 열매가 더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도 똑같다.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은 어설피고 부족하다. 어설피게 뿌려진 씨앗이지만 나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햇빛과 물과 양분을 주다 보면 그 결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내가 걸어온 길을 얘기하기엔 너무나 짧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부딪히고 씨 뿌리고 열매 맺었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한다.

조사원으로 현장업무를 하러 갔지만 도리어 그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 조사원이 아닌 그들과 같은 일원으로 함께 하며 배울 때가 더 많았다.

앞으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거라 생각하니 기대되는 바가 더 크다.

특히나 내가 처음 대상처에 가서 느끼고 결심했던 다짐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고단함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른다.

꽃길이 아닐 수도, 어쩌면 황폐하고 척박한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꽃길이 있을까?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설레고 행복하다.





좌충우돌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통계속의 나의 삶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둘

동북지방통계청 최 은 주



통계청에 첫 발을 내딛다!

짧은 시간이지만 통계 일을 접하면서 장롱 속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며 순간 고민에 빠져든다. 통계청에 처음 입사하던 때를 떠올려본다.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워오면서 청각장애 6급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선천적인 밝은 성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장애인으로써의 첫 직장으로 ○○시청 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계약기간 2년 중 두 달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무소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었고, 많은 망설임 끝에 원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일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농어업통계팀. 농사일이라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조금 심어 뜯어 먹어본 것이 전부인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차피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지침서를 들여다보며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나름 각고의 노력에 노력을 하며 지금껏 현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솔직함과 정성을 통하나 봅니다

처음 축산물생산비조사 업무를 인계받던 날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는데 몇 번을 불러도 기척이 없어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불렀더니 그제야 주무시던 응답자분께서 나오셨다. 선배님의 빠르게 진행되는 질문과 진성으로 답하시는 응답자분... 다음 주부터는 담당자가 바뀌어 함께 왔다는 소개와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며 돌아서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고, 다음부터는 혼자서 이분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다. 전임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응답자분이 직장의 교대 근무로 인해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꼭 사전 연락을 하라는 당부의 말도 전해 들었다.

드디어 혼자서 수행하는 날이 돌아왔다. 문자를 미리 드렸지만 집에 계시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축사에 가서 내가 조사해야 할 소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멀리서 지나가는 소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이 처음이라서 가까이 가기도 겁이 나기도 하고 큰 눈을 깜빡이며 멍뚱뚱 보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암소와 수소를 파악해보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어 “한우 암수 구별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농어업 통계팀 밴드에 올렸다. 잠시 후 자상하게도 한 선배님께서는 인터넷에서 찾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보내주셨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다 보니 출타하셨던 응답자분이 오셔서 하시는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딱 1년만 한다고 몇 번이나 와서 부탁하길래 ‘해주마’ 했더니 벌써 3년이 넘었잖습니까? 담당자는 또 왜 이리 자주 바뀌는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조사에 응할 마음이 안 생기네요.”라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더니 짜증을 내시며 약속한 1년을 훨씬 넘겼으니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기에 이럴 때 어떤 말로 이분께 응해야 하나 너무 당황스러웠고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웅웅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잘 안 들리는 소리가 더 안 들리기 시작했다. 가슴은 쉴 새 없이 쿵쾅거리고 처음 맡은 임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만 커져갔다. 그렇게 그날 조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맥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두 번째 조사를 나가는 날도 40분 걸리는 그곳으로 운전하며 가는 내내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분이 또 거절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순식간에 도착했고 떨리지만 마음을 다잡고 밝게 큰소리로 그분의 존함을 불렀다. 오늘도 여전히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나오시며 오지 말라는데 왜 또 왔냐고 그냥 가라고 하시며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큰 소리로 “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들으려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야 하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두려워질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시작한일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소중한 한 마디 한 마디 정확하게 기록하여 축산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덩으로 얻게 될 겁니다.” 라고...

그날 이후 집에 계시지 않을 때는 메모와 전화를 걸어 방문한 것을 알렸고 문자로 안부전화를 드리며 부단히 노력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이런 것 인지 늘 불러서 깨워야 나오시던 그분이 이제는 시간 맞추어서 밖에서 일하시며 기다리시기 시작했다. 말씀으로는 뭘 조사할게 많다고 매주 오냐고 그러시지만 내심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묻는 말에만 응하시고 계시지만 조금씩 농담도 해주시고 손수 키운 앞마당 자두도 따주신다. 8개월 차 나의 응답자님! 어렵게 시작했고 마음을 여셨으니 열심히 함께 오래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 넘어 상이로세!!!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농작물 생산조사. 처음 보는 “요도”라는 지도. 아무리 봐도 어디가 위쪽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는 이상한 것을 만났다. 살면서 해 뜨는 곳이 동쪽이라는 거 이외엔



별 신경 한 번 안 쓰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작물재배면적조사로 인해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버거운 상대였다.

녹슬어 버린 머리를 억지로 굴리려다 보니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져 급기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한쪽만 사용하던 아주 작은 보청기를 크기가 두 배 정도 되는 보청기로 양쪽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교체를 강행해야만 했다. 사무실 직원들한테는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 감내하며 업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이종고를 하루 하루 버티며 나아갔다. 2016년 작물재배면적조사는 10년에 한 번 씩 표본이 바뀌는 해라고 하셨다. 선배님들도 새로 배정받은 조사구로 인해 다들 바쁘시다고 하셨기에 걱정이 더 커졌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입인 나를 위해 애쓰시는 팀장님과 동료 직원분들을 볼 때마다 빨리 업무를 배우고, 익혀서 저분들께 누를 끼치지자는 말아야겠다는 마음에 심신은 더 고달파왔다.

그러나 빨리 배워야 한다고 빨리 배워지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구’, ‘필지’, ‘지대’, ‘경지면적’ 조사에 쓰이는 용어도 굉장히 생소했다. 요도를 들고나가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어떻게 놓고 보아야 하는지도저히 알 수 없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작물조사를 하다보면 뱀은 수도 없이 만나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무용담. 그것만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농작물을 지키려고 설치해 놓은 야생동물의 덫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건 칙칙산중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이다. 으악!!!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다른 직원분들께서는 닥치면 다한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데 작물조사 나갈 생각만 해도 올렁증이 생겨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현장실습이라는 교육아래 인근지역 실사를 나가던 날! 용기를 주시려고 잘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팀장님과 동료 조사관님!!!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가 아니었다면 이 험난한 조사를 어떻게 해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실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나가서 요도를 보며 심어진 작물을 조사하며 모르는 작물은 농어업통계팀 밴드를 통해 물어보기를 수십 번 금방 물어본 것도 돌아서면 다시 묻기를 반복하며 아직도 험매고 있다.

현장실습과 많은 질문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자신감을 충전하고 고랭지 채소밭으로 향했다. 기쁜 마음으로 달리던 것도 잠깐, 내 평생 이런 길을 운전하게 될 줄이야... 비포장은 기본에다 돌담길 굽이굽이 돌아도 이렇게 돌 수가 있다. 우당탕 우당탕 탕! 탕! 올라간 길이건만 길도 외길이라 돌릴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 너무 외진 곳이라 핸드폰 안테나도 안 서고, 길이 있을 줄 알고 험난한 길 들어가다 보니 어느새 2.3킬로. 2.3킬로를 후진으로 나와야 했기에 오금이 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연락을 취할 방도가 전혀 없는 곳. 용기를 내어 후진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천천히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시작했다. 여기 쿵 저기 쿵 차에 상처가 심해지고 있었다. 네 귀퉁이 모두 심하게 패이고 보조석에는 돌부리에 부딪혀서 움푹 들어가서 신상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이 되어버렸고, 견적이 70만원 나와 수리를 맡겼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날 난 만신창이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와서 팀장님께 하소연을 했다. 눈물 콧물 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가만히 들으시던 팀장님께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거 말씀 안 하셔도 지켜보는 분들 다 알고 계세요. 힘내세요!!” 라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처음 입사할 때와 지금 모습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선 외모가 많이 달라졌다. 옷차림은 정장에서 아웃도어로, 신발은 구두에서 운동화와 등산화로 바뀌었다.

그런 모습으로 응답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전에는 알지도 못 했던 그분들의 애환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고 그분들의 소박함을 알게 되었다. 외롭고 지친 순박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말 벗해드리며 서로 애환을 함께 공유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히 질 좋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송아지 암수 구별도 못한 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며 위로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통계청 선배님들의 깊은 속내를 모르고 혼자 속상해하고 원망한 적도 있지만, 되돌아보니 선배님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며 이제는 감사한 마음만 남았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 녁살도 좋아지고 응답자분들을 상대하는 것도 편해지면서 자신감도 늘어가고 있다. 또 언제 이런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登高自卑(登高自卑)-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셋

호남지방통계청 박 정 찬



#호남지방통계청, #광주, #첫 출근, #독근독근

해시태그 : 온라인상에서 #(해시)를 붙이는 것은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으로써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붙여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을 때 쓴다.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을 '묶는다(tag)'라고 해서 해시태그라는 이름이 붙었다. 핵심이 되는 단어 또는 문구 앞에 쓰임으로써 그 글을 요약하는 해시태그로써 처음 통계청과 저와 만남을 표시하면 위의 제목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위 단어 모두 '처음'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입니다. 통계청에 합격하기 전까지 27년의 인생에서 군 생활 22개월을 제외하곤 전주를 벗어나 살아본

그러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 환하게 반겨 주셨습니다. 한 번에 좋은 사람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직장생활은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장 선배님들 덕분에 그런 생각들은 잊고 매사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첫 업무는 경상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온라인쇼핑조사)와 연간조사 등이었습니다. 당시 전임자는 본인 업무로 인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인수인계는 잘 받지 못하였지만, 팀장님께서 직접 인계를 해주시고 또 선배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업무 인수인계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바쁜 업무 중에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등고자비라는 고사성어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경제조사과에 와서 선배님들의 등고자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없다고 해라

초창기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하면서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방문해 봤습니다. 조사기간 중 빠지지 않고 방문도 해보고 경제조사과 △△△ 팀장님과 불응 설득을 위해 동행 출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서로 바쁘게 전화로 하자고, 또는 아직

순서가 있다.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단정 짓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라, 오지마라고 해서 안 갈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서 친분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선배님 격려에 용기를 가지고 □□ 공장에 두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챙겨 방문했습니다. 긴장 속에 말씀을 드리니 놀랍게도

이사님께서서는 더운데 먼 길 오셨냐면서 친절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감사 기간이라 정말 바쁘셨던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통계조사란 조사대상의 양적 자료 수집보다 응답자 간 질적 자료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통계청 공무원증 패용보다 더 센 무기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 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자세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통계청에 입사하여 조사 나갈 때만 해도 씩씩하게 인사를 드리다가 간혹가다 불친절한 응답 태도에 점점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먼저 마음을 달으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든지 조사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력마감, #20일, #18:00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경상조사 비대면조사 활성화가 중시되고 있지만 현장 방문 없이는 조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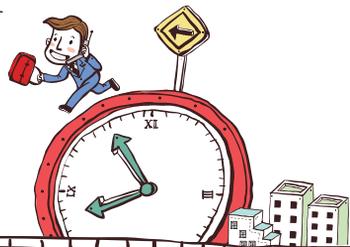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분께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사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먼저 10분 정도 시간을 구애한 뒤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대한 조사목적, 내용, 근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패용하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고 제 또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에 제 판에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해 드렸습니다. 처음 할애한 10분은 금세 20분 3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사모님, 혹시 제가 방문하는 것이 싫으신가요?’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다행히도 저 개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틈을 타 다시금 조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과 동시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조사 자료를 통하여 수립된 정책들은 다시 국민을 위한 수혜정책으로 돌아옴을 열심히 설명드렸더니 이전에 있었던 강한 적대적 표정은 사그라지고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매장을 나오며 문득 인계인수하면서 직무편람에 ○○사 대상처가 응답태도가 ‘상’이라고 적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분명 이전 조사 담당자 선배분도 처음엔 저와 같이 응답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에서 ‘상’으로 바뀌는 노력은 보지 않고 단지 ‘상’이라는 달콤한 결과물만을 그저 부러워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선배님들의 편한 응답 환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피나는 선배들의 노력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술 한 잔 하시게요.

건설경기동향조사는 처음 경제조사과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입력 중에 발생하는 답변하기 어려운 내검 질의사항 만큼이나 광·제조업동향조사처럼 공사 현장에 가보기 어려운 근무환경도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자료 공유 덕분에 조사 간 빈틈은 날로 줄어들어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평상시 성실히 응답을 해주는 광주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는데 항상 답변도 빨리 친절히 해주시고 응답자가 제 나이의 또래였기 때문에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조사기간 중 응답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해보아도 부재중이거나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마감이 가까워지자 여러 번 건설사에 방문을 해봐도 계속 부재중이었습니다.

아직 신입 통계인이기는 해도 이 정도 상황이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촉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 ×××건설사를 검색하였습니다. 역시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최근 과징금이 추납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건설경기 총괄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총괄자는 직접 ×××건설사와 유선연락을 취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점점 구겨지는 인상과 줄어드는 말속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한참 동안의 전화를 끝낸 총괄자는 이미 다른 과징금이 부가된 상황에서 조사를 불응하여 벌금을 맞는 듯 아무 상관없으니 벌금 물리라는 말과 함께 통계청에 대한 갖은 불만을 하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마감이 바로인데 막막했습니다. 자꾸 저에게만 시련을 주는 것 같아 원망도 들었습니다. 총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정 처리하고 다음 달에 같이 가보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매년 최악의 상황에서만 찾게 되는 경제통계 조사의 베테랑 ○○○ 선배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항상 '○○○ 선배님께서도 설득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업체다.'라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 선배님은 이번에도 흔쾌히 동행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혼자 업체에 가면서 답답함을 상상해보면 같이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건설사에 도착하여 관리부 인터폰을 눌러보았으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다들 출장인 건가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있는데 일부러 열어주지 않는 건가라는 의심과 함께 화도 났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기에 속는 셈 치고 다른 부서에 인터폰을 눌러 직원분께 방문하게 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답변해주시는 직원분이 통계청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부에 연락을 해보니 역시나 안에 직원분이 계셔서 면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상황 또한 다 알고 왔기에 딱히 꺼낼 말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 선배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뻘 되셨으니 응답자에게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조사가 결코 어렵지 않음을 말씀했습니다. 응답자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회사 상황도 안 좋은데 통계청 조사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 ● 등고자비(登高自卑) -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자 선배님께서서는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공감한다 하시며, 응답자를 설득하여 저와 이메일로 조사를 주고 받겠다는 약속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활한 응답을 받아내고 분위기는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저에게 ‘어? 정찬이랑 동갑이네? 둘이 술 한 잔 하고 친구처럼 지내라’라며 모두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선배님께 감사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에 누구나 처음부터 선배님처럼 능숙하고 원활하게 불응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업무에 능통하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반드시 지녀야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등고자비(登高自卑)

마지막 제 기억은 더 거슬러 아직은 수습 신분이었던 시절을 향합니다.

그날은 2016년 신년인사를 위해 모인 호남청 직원분들에게 신규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동기들 모두 여러 선배 앞에 처음으로 서는 것이라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긴장하며 자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년인사로 제 모토인 등고자비란 사자성어를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고자비(登高自卑),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을 순서대로 함을 말하고

두 번째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신년에 소망하시던 계획들을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자는 말이기도 했지만 신규자로서 공직의 첫 출발선에서의 제 마음가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두 한꺼번에 따라잡아 통계 전문가가 되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숨에 오랜 경륜으로 쌓인 부분을 쉽게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등고자비, 모든 일은 순서가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하면 어느새 저도 직무에 능통한 통계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는 항상 배울 것이 존재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통계학을 전공치 못한 아쉬움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배울 것입니다. 더불어 인계인수 차 동행 출장했던 조사관님이 응답자분들과 가정사 하나하나까지 알며 교감하던 유대관계 갖는 모습 또한 지위에 관계없이 어느 일에서든 배우려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경력에 부족한 제 경험을 써 내려가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어서 체험사례 쓰는 시간들이 뿌듯했습니다.

“일” 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넷

호남지방통계청 김 현 미



사회조사과와 만남

2008년 통계청 입사 후 담당업무는 사업체조사 분야로 나름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이 사업체의 담당자 유대를 강화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4년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통계조사관은 한 업무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업무를 경험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운영 철학을 말씀하셨고, 그 일환으로 익숙해 있던 경제조사과에서 사회조사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불안함과 초조함의 나날 들...

사회조사과 가족이 되고 보니 동료가 대부분 여직원으로 경제분야보다는 근무환경은 좋아 보였으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특히, 연동조사구를 담당해야 한다는 팀장의 업무분장 설명을 듣고 갑자기 파랗던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해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동조사구란 기존의 조사구가 아닌 새로운 조사구를 개척해야 할 상황으로 기본적인 조사체계는 전임자에게서 전달받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새로운 조사구를 설정하여 설득한다는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생소한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현장조사 경력 6년을 바탕으로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과 나름 장점인 상냥함을 더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있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묻고 진솔한 답변을 듣는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사구 현장으로 첫 출장을 나가는 날에 “ I Can Do It ”을 외치며 연동 조사구 설정할 시작점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지도정보를 이용해 확인해 보니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위치는 좁은 골목 깊숙이 박혀 있는 집이었다. 위치는 파악되었지만 로드뷰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시작부터 불안해진다.

무언지 모를 미지의 상황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긴장감이 백 배 천 배가 되어 갑자기 엄습해 오는 듯하다.

차를 운전하며 조사구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긴장감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손은 긴장 탓에 젖어 있었다.

도로엔 주차된 차들이 즐비했지만 인적은 별로 없고 가끔 지나치는 사람들은 얼른 보아도 상당히 연세가 있어 보이는 어르신들이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니 2층 건물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각종 플래카드로 인해 이곳이 재개발 대상지역이라는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재개발지역 거주민의 상황이 사회복지 수급권자 집단거주지역이라는 지역정보와 맞물려 직접 관련도 없는 그간의 영화나 드라마 속 철거민의 애환이나 웬지 국가업무에 대한 반감과 거친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더욱 마음은 불편해져 갔다. 불안한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아 재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문의하였으나 당장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다행히 조사구 설정에는 무리가 없었다.



“뭘 물어보려고? 내가 아는게 있나?”

좁은 골목을 한참 들어가 낮고 넓은 철제 대문 앞에 섰다. 시작점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선 초인종을 찾는데 그 흔한 초인종이 없다. 철제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계세요?”를 반복했다.

오히려 옆집의 남자 어른신이 문을 열어 내다보았고 어디인지 모를 집안의
 개들이 짖어대기까지 하는데, 정작 이 집에서는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에서 안 들리는지 한동안 인기척이 없다. ‘안 계시나?’ 면담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문 저 안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난다. 대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요?”

힘이 거의 빠진 다소 낮은 톤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문의 시작을 알린다.

“아 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 라고 합니다.”

“뭐요? 어디서 왔다고?”

“통계청이요! 통계청!”

“뭐라고?”

할머니가 그 연세 동안 들어왔을 엄청난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통계청’
 이란 단어는 익숙지 않은 모양이다.

“통계조사 때문에 왔어요~”

다행히 여자의 목소리라서 그랬는지, 다시 되묻지 않으시고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열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신다.

“할머니! 통계조사 왔어요! 뭐 좀 여쭙 보려고요~”

내 얼굴을 거쳐 위아래, 또 내 뒤편 좌우 공간을 모두 둘러보신 할머니는

“뭘 물어보려고? 내가 아는 게 있나?”

시작했으니 반은 성공이라는 생각에 또 할머니가 나에게 대한 경계를
 풀었구나 하는 속단에

“아 네~ 경제활동인구 조사라고요~ 신문이나 방송에 발표되는 고용통계
 조사예요. 고용상태를 조사해서 실업자도 줄이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몇 번을 연습했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판 데가서 해”라며 문을 닫으려 하신다. 문을 닫으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
어머님! 잠깐만요~”

시작점이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문을 닫으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 나도 모르게 ‘어머님’...
이라고 말했다... 간절함이었을까?

할머니는 다시 한 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추운 게 들어와 봐”
하시며 먼저 들어가신다. 거동은 하시지만 어딘지 좀 불편해 보이시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 집안에 들어서고, 서로 마주하며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뭘시라 했어? 뭘 조사한다고? 내가 며 잘못했나? 나 같은 할망구한테
뭘 물어본다 그래?”

대답할 겨를도 주시지 않고 연신 질문을 하신다.

집안까지 들어와 그래도 좀 차분해지니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할머니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다.

설명을 드리는 중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도 하시고
고생한다 하시며 이젠 마실 거라도 주겠다면 일어서려 하시기에
애써 만류하는데 다시 앉으시며 그러신다.

“아파~나 암것도 몰라! 금께 판집가서 해! 나 어디 가야해!
시간도 없어”

그러면 “어머님! 제가 다시 올게요. 언제 집에 계시나요?
저녁때라도 상관없으니 말씀만 해주시면 다시 올게요”



하니 “대중없어 ~오지 말어” 하신다.

쉬울 거라 생각한 적 1초도 없지만 잠깐의 기대감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리곤 정막이 흐른다. 물리적으로 날 내보내시진 않지만 얼른 나가라 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떠밀리듯 그 집을 나왔다.

첫술에 배는 안 부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원망의 감정까지 생긴다.



“어머님! 귀찮게 안할게요, 저만 믿어 주세요”

며칠 뒤 용기 내어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주차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골목을 들어서자 저 앞에서 느린 걸음으로 다가 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드렸다. 금세 기억하시고는 “또 왔는가? 나 보러 온 건 아니재?” 하신다.

“어머님 뵈러 왔죠! 그런데 어디 나가세요?”

“요 앞에 좀 나갔다 올라고... 근디 목욕탕 갔다가 친구한테 말했드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못하니 노인네들한테 꼬치꼬치 별것을 다 물어보고 엄청 귀찮게 한다고 하지말라데!”

“아니예요~ 어머님! 연세에 상관없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고 그런 자료가 모아져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도 만들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저를 믿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한동안 생각을 하시는 듯하더니 “어서 이리저 말고 일단 들어가게!” 하신다.

집안에 들어서자 바로 냉장고 안에서 음료수 하나를 내어 주시며 “찬디 이거로 목이라도 축여! 며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제?”

그 말씀에 불과 두 번째 들어온 할머니 집의 거실이지만, 금세 익숙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몸이 힘이 갑자기 쭉~빠지는 듯 긴장감이 일거에 사라지고
“당연하죠~어머님! 귀찮게 안 할게요, 저만 믿어 주세요”

새로운 업무의 첫 발이 그렇게 내디뎠다.

며칠 전 할머니의 남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 셧다고 하신다.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면서도 암투병하는 남동생 병간호까지 하셨는데 세상을 떠나 셧다며... 눈물을 흘치시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다고 하신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에 힘들어 하시던 할머니가 더욱 기력이 없어 보이신다. 그 할머니와의 대화는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말들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야기하는 도중 할머니는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살면서 화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야기 하면 내 손을 잡으시며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

‘아! 이 분...사람이 그리웠구나~’

그렇게 조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조사에 필요한 우편함을 설치하려고 바쁘다는 남편을 억지로 불러 할머니택에 우편함을 설치하였는데, 남편에게 이 분이 이런 분이더라 하였더니 되려 투덜투덜했던 자신이 민망했었는지 언제든 동행해 준다고 불러라 한다.





“김형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몇 차례의 방문이 이어졌을까~

이젠 설거지나 방안 청소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와 맞물려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려앉은 천장과 싱크대 선반, 때가 늘어붙은 벽지...

‘이건 당장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거지만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회조사과 자체적으로 응답자 친화적 환경 구축 활동으로 적합한 조사구 대상 세대를 추천하여 환경미화 등등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 어머님택을 신청하였는데 다행히 선정되었다.

도배와 청소 등등....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거다.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합심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극구 사양하시는 할머니를 설득하고, 유난히 폭염이 기세등등 했던 2016.7.30. 토요일 사회조사과 직원 7명이 더위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업무를 분담하여 더러운 도배지를 뜯어내고 도배를 하였고 한쪽에서는 집안 내부 살림살이를 다 들어내어서 깨끗이 씻고 말려 다시 정리정돈을 해드렸다. 평소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바퀴벌레, 쥐배설물 등이 쏟아져 나온다.

할머니는 더위에 벌게진 얼굴로 일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안쓰러운 듯 고마운 듯 마실 물을 가져다 나르신다.

4시간여 땀을 흘렸을까?

“저희들 갈게요”

“가지마 가지마! 점심 채릴랑께 먹고가”

그렇게 점심 먹고 가라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지치고 배고프지만 기분 좋은 미소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보조조사표에 우울하고 많이 아프다는 내용의 편지를 자주 써주는데 8월 말 회수한 보조조사표에 빼놓지만 정성 들여 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김현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저도 고마워요~



어느덧 할머니택을 이웃집 놀러 가듯 갈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통계청 고마워~ 선생님 고마워하신다.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과의 만남은 마음을 여는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손익계산 결과를 바라보는 짧은 비즈니스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에서 언제 오나 기다려지는 반가운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이리 보람된 일이었나 되새겨 본다.

언젠가 우편함을 본 할머니의 아들이 사무실로 전화하여 따지듯 하였을 때 사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말았지만, 내심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하고 살아가시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또다시

다짐해본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다섯

호남지방통계청 서 한 경



드디어 연동조사를 시작하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통계청에 첫 발을 디딘 후, 2004년 통계청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입사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회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표본조사 연동교체를 했다. 늘 하는 일인데 연동조사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야!’라며 애써 대수롭지 않은 듯 중얼거리지만, 막상 조사구의 가구를 방문할 때면 웬지 위축이 된다.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을 추스르며 연동조사구 6번 그룹의 조사를 시작한다. 이럴 때 우리 딸은 ‘고고 썩’이라던가. 요도와 표본명부를 바라보다가 “휴... 또 단독주택이야?”라는 얇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과거의 경험상 비나 눈이 올 때마다 조사에 애로가 있었던 단독주택의 ‘추억’이 있었기에 살짝 짜증이 생겼던 것 같다. 하지만 정해진 조사구를 바꿀 수 없기에 원룸만 포함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나의 새로운 조사구를 알게 된지는 겨우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조사구이며 컴퓨터가 없다 보니 전자 가계부는 설득 자체가 불가능했다. 종이 가계부로 설득을 시작하여 7개월째 가계부 100%의 회수율을 성공시켰다.

이제 나에게 가계부 100% 회수라는 ‘작은 선물’을 안겨준 나의 조사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수차례 헛걸음 끝에 만난 작은 희망

첫 번째 방문하는 날~

연동 출장 첫날, 조사구는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 옹기종기 몰려있는 주택가 풍경이다.

내가 원했던 아파트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걸 보며 ‘어떻게 아파트를 요리조리 피해서 주택가로 잘도 배정받았네’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났다.



첫인상이 중요하기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한 옷차림과 신분증을 착용하여 드디어 첫 집을 방문하였다.

핑동~ 핑동~ 벨을 누르며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다. 나오라는 사람은 온 데 간 데 없고, 개들한테만 환영 아닌 환영을 받는다. 짚어대기 시작하는 개들의 등쌀에 방문 안내문을 붙이고, 또 다른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주택가를 여러 번 돌아 보니 상가주택의 비어 있는 상가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통계청을 알기라도 한 듯,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맙고 반가웠다. 먼저 나의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방문 목적을 설명해드렸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설명을 마친 후 전자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니, 선뜻 써주시겠다 말씀하셨다. 맘속으로 이분을 통계 조력자로 부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자, 조사를 모두 끝마치기라도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두 번째 방문하는 날~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대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보지만 묵묵 부답... 문자로 방문하였음을 알리고 문자의 답을 기다려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내심 마음이 급해져만 간다.

세 번째 방문하는 날~

오늘은 제발 만나 뵙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대문 앞에서 벨을 눌러 보지만 오늘도 소득 없기는 마찬가지...

네 번째 방문하는 날~

핑동~ 누가 나오는 듯 인기척이 느껴진다. 아주머니의 표정을 먼저 살펴 보며 분위기를 파악했다. “안녕하세요? 몇 번 방문을 하였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연락이 안 되어 걱정했습니다.”

마치 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속마음을 감춘 채 나는 그분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나의 방문 목적을 알아차리더라도 하신 듯,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말문을 여시는 아주머니. “아무래도 가게부는 못할 거 같아”라며 전과 다르게 가게부를 거부하신다. 마음 한구석이 찡렁 내려앉는다.

‘아,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친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게부 리플릿을 보여드린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라 했던가.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다.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심리상담사들은 항상 밝은 얼굴로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드리고 방문했을 때 여전히 시큰둥하시는 아주머니... 이럴 때는 작은 절벽 앞에 선 느낌이다. 더 가까워져야 하기에 음료수를 구입 후 방문하여 “저희 사촌 언니랑 나이가 같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하며 어울리지 않는 너스레를 떠다. 웃으며 다가서는 나에게 더 이상 냉담하게 대하기가 조금 민망하셨는지 “커피 한 잔 할래요?”라며 말씀을 던지신다.

커피 잔을 마주하며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애를 쓴다. “평소 가계부를 쓰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가계부를 부탁드려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통계조사 중 가계부가 국가정책에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 조사인지, 그리고 전자 가계부를 쓸 경우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드렸다.

흔쾌히 승낙하시진 않으셨지만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입력 방법을 알려드렸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은 듯 보였지만 잘 안되면 아들에게 입력을 부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얼마 후, 비어있던 상가에 돈가스가게가 들어왔다. 나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주머니가 옆 주택 2층 가계부 지역으로 이사 오신 돈가스가게 주인에게 전자 가계부에 대해 설명하며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변을 토하신다. 통계 가계부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으시고 설득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어느새 통계조력자가 되어주신 아주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웃으며 반기시고, “요즘은 힘든 일이 없냐”며 친정언니처럼 물으신다. 천군만마 응원군을 얻은 듯 코끝이 찡하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정확한 질문과 응답을 얻어내고 싶다. 나는 진정한 프로다. 나의 열정적인 모습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길 원한다. 나의 업무적 충족만을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조사를 통해 그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귄이 있는 인연으로 자리 잡고 싶다.



사례 2.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몇 번이고 방문하였는데도 만나지 못한 2층 세입 가구를 다시 방문하였다. 두세 차례 현관을 두드리니 큰 덩치의 두 청년이 윗옷을 벗은 상태로 팬티만 입고 나오는 게 아닌가. 나는 매우 당황스러워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모른다.

창피한지도 모르는 듯 그런 차림으로 “무슨 일로 왔느냐” 되물어보니 나는 더 어쩔 줄 모르겠다. 시선을 얼굴에만 고정시킨 채,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 목적을 말한다. 그러곤 점심 식사를 하는 것 같아 식사를 핑계 삼아 “식사 중 이시니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서둘러 말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예전에 5번 그룹 연동 교체 시 경험했던 낯 뜨거운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단독주택의 한 가구를 방문하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 문을 몇 번 두드리며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사람은 나오지 않고, 야릇한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란 마음에 바쁘게 계단을 내려온 적이 있었다.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여 두 번째 방문을 동료 언니와 동행 출장을 하였다. 2층 계단을 오르며 오늘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관문을 푹푹 두드렸다. 오늘은 아무 소리가 없다.

세 번째 방문은 저녁에 동료 언니와 함께 방문을 하면서였다. 푹푹... 한참을 기다렸다. 기운이 쭉 빠져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나이 드신 한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방문 안내문을 보셨는지 신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며 적극 협조를 해주셨다. “인구조사부터 하자”며 흔쾌하게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돌아 나왔다. 마음 졸이고 긴장하며 계단을 올랐던 일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쉽게 조사를 하는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3. 나의 고물사랑

나는 오늘도 신문과 파지를 챙긴다.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넷이나 되지만 다들 어렵게 살아서 용돈 한 푼 받지 않고 손주를 돌보며 받는 얼마 안 되는 돈과 고물을 주워서 생활하는 한 어르신의 맥을 방문하기 위해서이다. 전자 가계부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있는 신문을 챙기면서 나의 고물 사랑이 시작되었다.



신문, 책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파지만 보면 눈이 동그래져 행여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까 급히 챙기는 나의 모습을 보며 가끔씩 나도 당황한다. 내 눈에도 그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인다. 그 어르신이 나의 뇌리에 오버랩(overlap) 된다.



아무리 많은 신문과 책, 파지를 가져다 드려도 한 달 5만원도 되지 않는 수입. 폐지만 보면 그분이 생각나고 자꾸 챙기게 되며, 가구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면 왠지 미안해진다. 손에 신문 한 꾸러미라도 가지고 방문을 하면 무언가 도움이 되어주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집에 있는 무거운 책과 신문을 챙겨 가져갈 때면 집에 계신 어머니가 “어깨 아프게 뭐 하러 그런 걸 들고 가냐”며 자꾸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씀 마시라”면서 “폐지 주워서 팔아 근근이 먹고사는 사람도 있다”며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출장 갈 때마다 집을 뒤지곤 한다. 신문을 챙겨다 주는 나에게 뭐가 그리도 고마우신지 허리를 연신 굽히며 고맙다고 늘 인사를 하시는 그 어르신. 환갑 가까운 나이에든 아무런 불평도 없이 전자 가계부를 입력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께 항상 감사하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계부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가계부를 쓰시는 일도 힘든 일인데, 집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된다 하여 전자 가계부 회수율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전자 가계부를 부탁드렸습니다. 느릿느릿한 손동작의 독수리 타법으로 전자 가계부를 입력해 주신다. 꽤 많은 고충이 있으실 텐데도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딸이 부탁하는 것처럼 모두 들어주신다.

통장 불러오기를 하면 사례금으로 5만원이 입금된다는 말에 주저 없이 은행에 달려가 빠른 조회 서비스 등록을 하시고, 인터넷에 통장 자동이체를 등록해 드리니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자동이체 불러오기를 척척하십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나의 통계조사의 힘이 되고 보람이 되며, 정확한 통계 조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회조사 통계업무를 담당한 10여 년 세월 속에 연동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끔씩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조사가구의 삶이 평안해야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 때문인지,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한 가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넉넉함



속에 사는 사람들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번갈아 오가며 업무가 어렵고 힘들 때면 주름 가득한 손으로 요구르트를 슬쩍 건네시는 할머니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한다.

낮선 집의 문을 열고 모르는 분에게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인연을 맺은 조사구는 더욱 애착이 가고 조사가 끝나서도 연락이 오기도 한다. '사람 사는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가슴이 먹먹해오기도 한다.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내근직과 달리 통계조사는 몸으로 움직이고 발로 뛰고 영업사원처럼 상대방을 감동시키며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중요한 통계자료를 얻어내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쉽게 얻어낼 수 없는 나만의 희생이 필요한 직업이다. 원룸 1인가구를 조사할 때면 2인 1조가 되어 통계 조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가족으로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에 불응으로 인해 가끔 좌절감을 느끼고 가구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부딪치며 힘들게 얻어낸 응답들이 나에게 보람과 뿌듯함을 안겨다 준다.

가구조사를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통계조사를 잘하는 나만의 노하우이다. 잦은 연동 교체로 나의 마음은 더욱 훈련되고, 굳게 닫힌 문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직장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고 많은 가구들을 만나면서 삶을 배우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 있다.” 바로 그들이 그 성공을 이끌어준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곧 나의 조사구의 가구가 나의 조력자 일 것이다.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통계사업을 이해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가계부 작업을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분들이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나는 지금도 뜨거운 햇볕 속에도,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저는 외판원이 아닙니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섯

동남지방통계청 이 재 민



작년 8월, 최종 합격 발표 문자를 받고 설레는 기분으로 지내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 실무수습 신분증 대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그동안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보면 긴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첫 직장에서 일할 생각에, 교육원에서 남들 모르게 걱정도 좀 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체 경제 지도를 그리는 월간동향 조사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 약간 긴장도 됐다. 11월에 경제조사과에 배치된 후 정신없던 부서 상황 속에서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긴 해도 뭘가를 찾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조금은 더 성숙해 보인다.



올릴 때마다 받기가 약간 무서워지는 전화기

“안녕하세요, 통계청 이재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이 조사 계속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럽던 이 질문도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냥 대답을 외운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전화 걸기 전에 할 말들을 미리 종이에 적은 적도 있었다. 이번 달부터는 혹시 자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수화기를 들며,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저 오후에 퇴사할 겁니다. 2시쯤이면 오셔서 저 없습니다.”

실제로 방문하니 오후 2시에 퇴사한 응답자

“저희 회사 폐업했어요.”

폐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니 계속 조사해야 하냐고 짜증 내던 응답자

“자료 그냥 제 마음대로 해드렸어요.”

결국은 연간 보정까지 하게 만든 응답자

수많은 응답자들과 통화하면서 특이한 상황도 많았다. 한 번은 말문이 터진 응답자와 1시간 정도 전화를 붙든 적도 있었다. 내 팔과 귀가 붙쌍해서 전화를 내려놓고도 싶었지만 그럴 수야 있다. 혹시 자료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답자의 통계청 자료 불신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전에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는 응답자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고 위안을 삼으며 묵묵히 들었다.

“선생님, 이 통계조사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드리긴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용 모터 기어라는 게.....”

대화 시간을 20~30분 연장 신청하려면, 중간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거나 의견을 반박하면 된다.

물론 이런 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좋은 점도 있다. 지침서에는 없는 전문적인 지식을 들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천 개가 넘는 산업분류가 존재하고, 언젠가 조사하게 될 산업분류에 대해서는 지침서에는 없는 응답자의 일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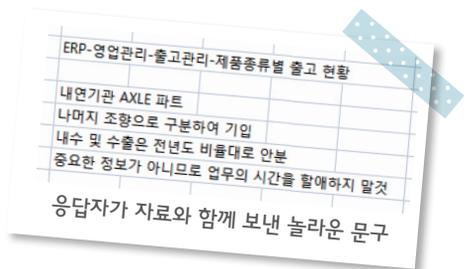
“과실주라는 게 과일주 개념이 아니라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공정에서...”

“레귤레이터는 압력 조절밸브에 들어가구요, 피팅은 이음새인데 꼭에 해당됩니다.”

“저희 아웃렛 규모가 너무 커서 애초에 재고조사가 매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의류와 신발 구분하는 문제도.....”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조사 같다. 지침서와 품목해설집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응답자에게 가능한 한 사업체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많이 들어야 한다. 지침서와 품목해설집이야 내 옆에 항상 든든하게 대기하고 있으니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응답자가 손에 쥐고 있다. 응답자가 부장급 정도만 돼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이제 막 사업체에 입사한 응답자나, 통계 조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인 경우에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할 때도 있다.

메일로 자료를 주는 업체가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편집 없이 보낸 적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응답자를 만나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잘 설명해야 한다.

근데 더 난감해지는 경우는 사업체를 방문해도 출입 거부를 당할 때이다.

“저희 업체 함부로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 이제 차장님이 아니라 부장님입니다.”

“보안상 문제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내가 외판원도 아니고 나랏일을 하러 온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물러날 때면 블랙커피 한 잔 원샷 한 거 마냥 굉장히 씁쓸하다. 조사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응답자에게 정보를 얻어다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구하거나, 공장이 문을 닫아 주변 분들에게 공장 상황을 들은 적도 있다.

“저 공장 지금 파산 신청 기다리고 있죠. 조만간에 설비 매각할 거고 사원들도 출근 안 하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와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제일 난감했던 경우는 지난 5월, 한 사업체에 보낸 팩스 자료에 대한 회신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예, OOOOO입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이재민입니다. OOO이사님 계시나요?”

“그 이사님 퇴사하셨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통계청에서 매월 OOOOO에 광업제조업동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팩스 자료를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팩스가 하나 오긴 왔는데..... 광업제조업동향 조사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맞습니다. 팩스는 일단 제대로 갔나 보네요.”

“저희 회사가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우선 새로 오신 ○○○이사님께 나중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받으시는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총무부 ○○○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서를 옮기거나 퇴사를 해서 응답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는 자주 겪어본 일이었다. 전날 멀쩡하게 통화했던 응답자가 다음날 아침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마감이 끝나가던 날,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다.

“저희가 결산이 너무 늦어져서 자료가 안 나오네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류 사업체들 중에 결산이 늦게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

‘6월에 다시 전화해보고 자료 받고 방문도 해야겠다. 그리고 보니 웬지 내가 맡은 사업체 응답자들만 퇴사하는 거 같네. 기분 탓인가.....’

실제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응답자들만 6명이나 퇴사한 달도 있었다.

6월,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어 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한 번 자료를 못 받은 적이 있는 사업체에 전화를 걸 때면 언제나 초조하다.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

일주일 전까지 걸었던 전화번호가 결번이라니. 다른 번호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사업체를 검색해 봤지만 홈페이지가 없었다. 네이버 주소로 검색된 전화번호를 눌러보니 결번은 아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거기만 여름이 빨리 와서 하계휴가 중일 리는 없고..... 혹시 전화 벨 소리가 0dB인가? 후, 방문해야겠다.’

출장을 내고 관할 지역 내에서도 멀다는 OO구를 향해 지하철을 탔다. 환승하려고 버스정류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40~50분 정도 간격으로 오는 버스가 내 앞에서 야속하게 떠나가고 있었다. 지하철 5분만 더 빨리 탔으면! 5분만 서둘러서 나왔다면! 그 5분의 나비효과가 만들어 낸 40분의 지루함이었다. 환승을 못 찍고 버스 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사실도 뭔가 불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스 요금 1200원이 아깝기도 했던 것 같다.

약 2시간에 걸쳐 겨우 사업체 앞에 도착했다.

‘아! 진짜 멀다. 운전 연수 받아서 차를 빨리 몰든가 해야지.’

교육원 때부터 들었던 운전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 긴 시간 동안 오다 보니 작년 12월에 통계청 수첩을 사업체에 돌리려고 평소 잘 알지도 못 했던 스마트폰의 지도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곳저곳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니고 걸어 다니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불현 듯 떠올랐다. 대중교통은 다니지 않아서 걸어 올라가야만 했던 높은 언덕도 기억이 나고 인터넷 지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곳은 1시간 동안 헤매며 걸었던 기억도 난다. 여긴 다행히도 인터넷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사업체 규모는 큰 편이었다. 혹시 문을 닫은 상태면 어떡하나 했는데 문은 열려있었다. 문 안쪽으로 경비원으로 보이는 분께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비원께서 날 살짝 보시더니 다시 옆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용기 내서 말을 붙였다.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000 사원님 좀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누구요?”

“총무부에 O, O, O 사원님이요.”

“거기 지금 사람 없습니다. 가세요.”

“아, 총무부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통계청에서 온 거면 통계조사하러 온 거 같은데 나가쇼.”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여름철에 파리도 이보다 공손하게 내쫓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외판원 쫓을 때 상황 같다는 생각에 조금 회의감도 들었다. 다른 사업체에서도 못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내쫓겼다. ‘손 모양이라도 예쁘게 해주지.....’ 경비원께서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 건지 나를 살짝 밀어내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다. 다급하게 말을 더 붙였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오면 다들 계실까요?”

“그건 난 모르겠고 지금 통계조사할 사람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요.”

“여기 사업체가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계속 방문하기가 그런데 혹시 핸드폰 번호라도 하나 좀 알 수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가세요.”

결국 경비원께서 닫으려고 했던 출입문이 굳게 잠겼다. 얻은 것은 마음속의

혼돈뿐. 그래도 욕은 듣지 않으니 다행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그때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구경(?) 하던 직원이 알려줬다.

“OOO사원님 오늘 출근 안 하셨고요. 핸드폰 한 번 해보세요. 번호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헛걸음은 안 했구나 싶었다. 아까 경비원한테 무시당했던 것은 잊어버렸다. 사실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방금 전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번호를 잘못 받아 적었을까 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 전 통화했던 통계청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사업체 앞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저희 회사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청 자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8월까지의 저희가 못 드릴 거 같아요. 8월 이후도 잘 모르겠고요.”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음.....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섰다. 전화를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현재 상황을 팀장님께 보고했다.

때는 7월 중순, 매미도 세상 밖을 나온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며 지쳐 쓰러져 가는 무더위였다. 팀장님과 계장님 한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사업체로 향했다.

“자료 달라고 말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응답자 이야기도 조금 들어주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살짝살짝 넣어주는 거지.”

“만약에 사업체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자료를 계속 재촉해서 몰아붙일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뒤로 한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네!”

“우리가 자료 받을 거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응답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지침서에는 없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눴다. 개인적으로는 지침서 교육보다, 이렇게 틈새를 노려 업무 선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더 잘 들어오고 도움이 된다.

드디어 다시 도착한 사업체. 문득 생각난 전에 만난 그 경비원이 오늘은 다른 사람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 그 경비원이다. 팀장님이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여기 총무부에 이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쪽 건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

분명 그 경비원이 맞았는데 달라진 태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팀장님께 경비원이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물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대처한 것이 없진 않겠지만, 똑같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억울했다. 저 경비원분이 내가 공무원이 아니란 걸 관심법으로 알아채고(그 당시에는 실무수습이었다.) 그렇게





내쫓았나 하는 이상한 상상도 했다.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사님을 겨우 만나
뵐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전에
통화했던 사원분은 퇴사하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있으니 이사님이 친히
차 세 잔을 가져왔다. 내가 혼자 왔어도 차를 받았을까 싶었다. 팀장님께서
자초지종 상황을 잘 설명하셨다. 이사님도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 지금 저희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요. 원래 있던
직원들도 일부가.....”

이런저런 회사의 복잡한 사정을 들으며 느낀 것 중 하나는 팀장님이 말을
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야기 속에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 내가 사업체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경비원이 날 통과시켜서 내가 이사님과 대화를 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나를 간파(?)하고 제지했던
경비원이 개미다리에 붙은 먼지만큼은 고마워졌다.

최선의 마무리가 끝나고 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동안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다. 자료를 받아냈다는 것보다 2개월 넘도록 신경 쓰이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좋았다.

“우리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니까 경비원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

“저 업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밸브가 원래 규격도 다양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나거든.”

확실히 응답자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하긴 하다. 말을 잘 붙여야 하고 우회해서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 선배들로부터 듣는 노하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려면? 결국 내가 아는 게 있어야 한다. 물론 무작정 조사에 부딪혀도 잘 대해주는 응답자도 더러 있긴 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멀리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준비해서 나올게요. 잠시만요.”

“매번 저희 자료가 좀 늦죠? 죄송해요. 바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응답자들만을 상대하지는 않는다. 응답자들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자들에게 맞춰야만 한다.

최근 지침서와 품목 해설집을 보면서도 상당한 고뇌에 빠진다. 어떤 산업 분류는 내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산업분류는 어려운 용어 사용도 굉장히 많고, 공정 과정을 이해하기 힘든 공장도 있다. 전에 응답자가 반대로 나에게 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나 스스로 ‘그냥 단순히 자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응답자도 편해지면서 원활한 조사가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모르는 것을 찾아 주변에 묻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훌륭하고 완벽에 가까운 조사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배운다.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서. 외판원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난 외판원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일곱

동남지방통계청 박 정 숙



1998년 11월 어느 날...

나는 결혼을 했다. 새댁들이 그러하듯 나의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고, 그 꿈의 시작은 가계부 쓰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새해만 되면 내 손에는 어김없이 가계부가 들려 있었다. 모든 가계부가 그러하듯 내 가계부 역시 1,2,3월까지의는 빼곡히 촘촘히 쓰이다가 4월이 되면서부터는 공란이 많아지게 되고 더위가 찾아오는 6월이 되면 백지장처럼 하얗게 깨긋한 자태를 뽐내며 한 해를 마무리 하곤 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계부에서 손을 놓았다. 그렇게 가계부는 내 손에서 잊혀 갔고, 내게 가계부란 그저 도전은 하나 끝을 볼 수 없는 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 부서로 이동, 사회조사과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 업무가 무시무시한 가계부를 쓰는 일이었다. 내 가계부도 적지 못해 하얀 백지로 내버려 둔 그 일을 생판 알지 못하는 가구에 가서 가계부를 쓰게 하고, 또 그 가계부를 완벽하게 재탄생시키는 일을 한다. 다른 업무를 하면 서도 그 일이 정말 신기했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었다.

그렇게 2016년 새해는 가계부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시작되었다.

어안이 병병한 채 선배님의 손에 이끌려 업무 인수인계를 하러 첫 조사구에 갔다. 어느 통계 조사가 그렇듯 호불호는 있기 마련이었다.

사회조사과 업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특히 우리 집 돈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이니 더욱 예민한 듯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떠나는 선배님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며 아쉬움 마음을 전하는 응답자가 있는 반면, 이제는 담당자도 바뀌고 오래 했으니 우리 집은 이제 그만 빼달라고 애원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서로 난감한 상황이 그리 연출되고 있었다. 두 번째 조사구도 세 번째 조사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인수받고 이제 주사위는 내 손에 쥐어지고, 나머지 차후의 일들은 나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3월...

내가 출격할 시간이 되었다. 가계부 회수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내가!!

조사구에 도착해 가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해 한참을 배회했다. 가구의 응답자들이 무서웠다.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 가계부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던데.. 나름 메모를 해두긴 했지만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구에 들어가 대충 질문을 하고 가계부를 회수하려는데

아버님께서 “이것들도 알아가야 하는데” 하시며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내역을 불러주신다. 내가 잘 받아 적지 못하니 아예 통장을 주시며 보고 적어 가라신다. 헐~~~ “아버님... 절 뭘 믿고 통장을 보여주세요?”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아버님은 허허 웃으시며 “뭘... 볼 것도 없는데,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음 가져가든가..” 하신다. 완전 주객이 전도되어 가계부 잘 쓰고 계시는 가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통계청 직원이 되고 말았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는가!! 아버님은 또 얼마나 당황 하셨을까?

그렇게 몇 집을 돌아 드디어 우리 집은 빼달라 통사정을 하던 가구 앞에 도착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어찌지.. 어찌지...하다 결국 돌아서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우리 일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만 쓰고 싶다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머니의 말씀인즉... 지질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공개하기 싫다고 하셨다. 두 칸짜리 방에 장성한 아들이랑 일정한 직업도 없이 겨우겨우 먹고사는 자신의 일상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여태껏 공개해 준 게 도리어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난 발걸음을 돌려 나왔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잠시 시간을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가 그리 미울 수가 없었다. 하필 지금 불응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뒤로도 몇 번씩 들러 메모도 붙여두고 통화도 시도하면서 연락을 기다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았다. 8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어머니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지금 오세요.” 하고 부르니 깜짝 놀라신다, 당연하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그 시간에.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시며 집으로 들어가자 하신다. 드디어 입성 성공.. 마주 보고 앉을 수만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게 보여진 집안의 모습은 어머니가 왜 그리 꺼려하셨는지 짐작이 갔다. 그런 나의 표정을 들켰는지 어머니는 내가 왜 안 한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며 말문을 여신다. 나는 얼른 표정을 수습하고 어머니 설득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마치 매뉴얼이 정해진 것처럼 처음에는 통계의 목적을 운운하며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등 주위들은 통계법을 들이대며 가당치도 않은 말들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는 장봐 오신 물건들을 정리하시며 가끔 음료수와 과일을 내어주시면서 얘기를 듣고 계셨다. 그러나 그런 어구들이 이미 마음이 떠난 어머니의 귀에 들릴 리도 없거니와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가 “이제 그만 가세요..” 하신다. 이럴 수는 없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한 시간째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해서, 내 입장이 곤란하니까 가계부를 써야만 한다는 내 이야기... 그건 설득이 아닌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되었다. 그건 통계의 목적도, 쓰지 않음 벌금을 내어야 한다는 통계법도 아닌 그냥 그냥 그런 이야기들.. 모든 사람이 아는 우리들 사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어머니도 나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이치인가 싶었다. 또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또다시 “많이 늦었어요. 돌아가세요..” 하신다.



그 목소리는 아까 내게 가라고 하셨던 목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는 정말 가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고 주섬주섬 챙겨 나오는데 어머니가 내 뒤통수에 대고 말씀하신다. “가계부는 두고 가요. 되는대로 써서 내어 놓을 테니 가져가고, 하지만 잘 쓴 가계부는 기대하지 말고요.” 난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그냥 멀뚱거리며 서있기만 했다. 그렇다고 힘들면 꼭 써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어렵게 주시는 귀한 자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가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휴~, 한숨을 길게 내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이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치부를 들어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귀하고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일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어려운 일임을 새삼 느꼈다.

또 하루가 밝았다..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조사구를 방문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응답자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긴장에 긴장을 더하면서..

땡땡~~

“네~~”하며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은 70은 넘어 보이시는 어머니..

전자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지요, 새 담당자입니다.”

“아!! 잘 왔어요. 나 이것 좀 가르쳐주고 가요. 이게 막혀 어렵네..”

이런!!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더니 전자 가계부 사이트를 열어주신다.
 난 그제야 '아~~ 전자 가계부 사이트가 이리 생겼구나.'하고 있었다.
 “가계부에서 영수증 나누기를 해야 하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하신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어머니의 그 질문 내용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것저것 마우스 클릭만 하다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사실 업무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어렵네요. 사무실 들어가서
 선배님들에게 여쭙어보고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니,
 “참 맞다. 이 일은 처음이라 했지요. 내가 내 맘만 너무 바빴네.” 하시며
 도리어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돌아 나오는 길에 나의 신혼 때 가계부쓰기의 흑역사가 기억이 났다. 젊은
 사람도 정말 귀찮고 힘들어하는 가계부를 수기도 아닌 컴퓨터로 저리도
 열심히 적어 주시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돌아와 사무실에 앉아
 종이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신혼 때 못다 이룬 현모양처의 첫 발걸음이었던
 가계부 쓰기에 다시 도전해보리라!! 그리고 내가 사회조사과 업무를 맡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자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나 역시 종이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있다. 비록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맞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나는
 나의 가계부를 쓰고 있다.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나는 응답자들로부터 너무도 큰 격려와
 감사를 받았다. 가계부나 경제활동 자료를 마감하고도 수시로 내려오는 내검
 그것도 5차, 6차에 걸쳐 내려오는 내검 질의에,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언제나처럼 또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가구의 응답자 어머니들... 이제 내가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
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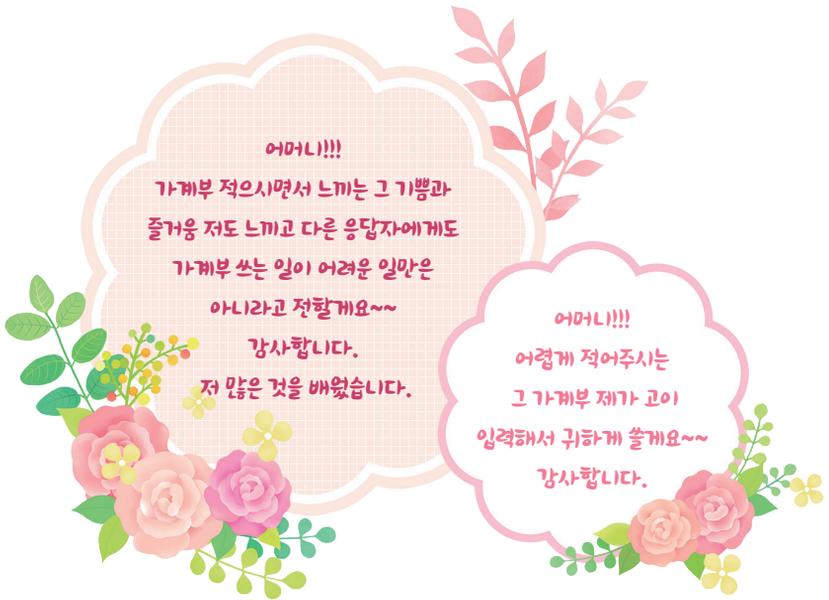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 마침..

우수 가계부 시상이 있었고, 추석이 가까워져 가구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다.
나는 평소 고마운 어머니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추천서를
작성하였다. 그 마음이 닿았을까.. 다행히 고맙게도 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나도 기뻐다.

또한 그 자그마한 선물에도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어머니들을 보니 내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더 뿌듯했다.

사회조사과에 새로운 업무를 시작 한지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활동조사의 불응이 발생하고,
그것 설득해놓고 돌아서면 전입 전출 가구가 생기고, 또 한숨을 쉬고 나면
이번에는 가계가 불응이다. 이제는 겁도 안 난다. 몰라!! 배 짜!!! 그렇게
불응이 나고 설득하고를 반복하니 내게는 13권의 가계부가 남아 있었다.





그 13권의 가계부에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기록되는 가계부도 있고, 9월 큰 수술을 앞두고도 8월 가계부는 마무리 해놓고 가마하신 할머니의 정성의 가계부도 있으며, 건설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작성된 고단한 아버님의 가계부도 있고, 또 수험생을 둔 어머니의 사교육비에 쪼들려 죽겠다며 한숨으로 작성한 가계부도 있다. 자녀들의 용돈기입장을 보며 자녀들이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며 그렇게 부모랑 자녀가 함께 쓰는 소통의 가계부도 있다.

나처럼 너무나도 싫은데 얼굴을 보면 거절하지 못해 또 작성된 억울함의 가계부도 있고, 맞벌이 부부의 빠듯한 삶의 애환이 있는 가계부도 있다. 물론 젊은이의 소유라 여기는 컴퓨터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어 즐겁다는 어머니의 호기심의 가계부도 있고, 또 언제 불운이 날지 모르는 외출을 타는 가계부도 있다. 이렇듯 13권의 가계부는 각각의 다른 얼굴 모습으로 나와 가구를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조사에 있어 누구나 회수율에서 자유롭지는 못한다.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지라 가계부 회수율에 항상 부담이 있다. 그래도 이 13권의 가계부를 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응답자들이 계시기에 내게는 앞으로 15년은 더 다녀야 하는 통계청이 밋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게 외친다.

“아직 저에게는 13권의 가계부가 있습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흔히들 통계는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라는 말을 한다.

그 등대는 밤배들이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지, 어디를 비추어주길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고로 나는 생각한다.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우리는 응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전달되었을 때 진실한 응답이,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것이다. 그래야 그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길을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전달하러 가구를 방문한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길 바라면서.

땡땡~~~

“어머니.. 저 왔어요.. 통계청요.”

당신의 삶에 다정한 그 무언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덟

동남지방통계청 나 재 민



아쉬움이 남는 첫 연동

2015년의 늦여름.

나는 정장을 입은 채 낯선 아파트의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모기를 쫓으며 방금 불이 켜진 집이 몇 층인지 세고 있었다. 연동이 뭔지, 가게나 경제활동 인구이니 용어도 익숙지 않았던 입사 초기. 들어가자 덜컥 연동을 맡아 버렸지만 신입의 패기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한 뒤였다. 첫 직장인데 초반부터 실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낮 동안 지침서를 계속 읽었지만,

정작 문 앞에 서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게 보이는 아마추어가 안타까우셨던 건지 의외로 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완고하게 거절하시는 분도 많았다.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하기 귀찮아요.”

초인종 소리에 문은 열어주셨지만 설명을 듣자마자 싫다고 하셨다.

“만나는 게 꺼려지시면 우편함으로 보조조사표 꽂아주셔도 되고요, 아님 전화통화로만 응답해주셔도 됩니다.”

간곡히 부탁했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싫다, 귀찮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고는 문을 닫았다. 언제 찾아가더라도 매물찬 불응이 몇 번 반복되더니 급기야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이렇게 사람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인터넷 찾아봤는데 위헌이라는 말도 있고 문제 많던데.”

안고 나온 강아지는 계속 꺽꺽 짖는 데다가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은 계속 꺼져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답변에 정신이 아찔했다.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조사인데 위헌이겠어요, 저희도 다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웃으며 다시 설득해 보려 했지만 이미 “쿵”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신 뒤였다. 좁은 아파트 현관 센서 등마저 꺼져버린 어둠 속에 서있자니 가슴이 죄어왔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헌이라는 말도 있고...’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뱅뱅 돌았다.

비싼 돈 들어가며 고생해서 공부하다가 공무원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제 장점인 친근한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응답자 유대강화에 힘써 양질의 통계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당찬 포부도 굳게 닫힌 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수도 문을 두드릴 수도 없이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다.

여름 정장을 입고 처음 찾아갔던 조사구도 어느덧 가을이 되어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매서운 건 차가운 응답자들의 반응이었다. 이 일을 앞으로 몇 십 년이나 어떻게 더 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좀 더 나이가 들거나 인생 경험이 쌓이거나 아님 다른 어떤 위안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생긴다면 과연 내가 매몰차게 닫혀버리는 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을까?

늦은 밤, 차도 없어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그런 회의감이 끊이질 않았다.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가구마다 찾아가 응답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사회통계팀 업무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보조조사표에 늦어서 미안하다며 수고가 많다고 손수 메모지에 적어서 따로 붙여 우편함에 꽂아두는 집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맘 상하는 일 없이, 불응 없이 무사히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어제 초저녁에 문을 두드려 왔는 바람에 잠이 깨어가지고, 내 그날 한숨도 못 잤다 아이가. 인자 오지 마소. 내 머리도 아프고 신경이 쓰이가 죽겠다.”

허리고 두통이고 자주 아프셔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통에 좀처럼 잘 만날 수 없는 할머니의 전화였다.

오후 4시에는 집에 계신다기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어 5시쯤 한 번 더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게 화근이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자주 찾아간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다.

오후 5시에 잠드실 건 뭐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고는 나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건 또 무슨 억지이신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노인분들은 초저녁잠 깨면 밤새 잘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옆자리 선배가 그렇게 말해주긴 했지만, 전화로 전해지는 신경질적이고 언짢으신 목소리에 다시 조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나 봤을 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붙잡혀서 할머니가 최근에 어디가 아파서 어떤 병원에 가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들어야 했는데, 고되고 바쁘긴 했지만 응답자와의 유대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허무할 정도였다. 얼마나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았건 간에, 할머니한테 나는 그저 다음 달이면 나는 다시 본인을 귀찮게 구는 사람에 불과했다.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문도 안 열어주셨으면서 전화에 대고 있는 신경질 없는 신경질 다 내도 되는 사람일 뿐인 것이다.

조심조심 살얼음 건듯 조사하기를 몇 달.

하루는 병원에 입원 하셨다길래 집을 꽤 오래 비우셨으니까 조사대상에서는 제외여서 ‘아싸~’ 하고 이번 달은 편히 넘어가나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살갑게 병원에라도 한 번 찾아가 보세요. 이번 달 조사는 제외더라도 이런 기회에 잘 친해놔야지”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게 아닌가!

조사 때문에 만나는 것도 영 불편한데 괜히 아프신데 찾아갔다 욕만 더 듣는 건 아닐지 겁이 났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제법 음료수 세트도 사서 병원으로 찾아갔다.

“뭐 한다고 이런 걸 돈 주고 사 와! 여기도 많은데!”

역시나 할머니는 ‘바쁠 텐데 오느라 수고했다.’ 따뜻한 말보다는 쓸데없는 돈 썼다고 타박부터 하셨다.

“에이, 어머니 보러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활짝 웃으며 둘러보니 4인실 병실에서 간병인이건 자식이건 누구 한 명 곁에 없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순간 ‘외로움이 병이 된다.’는 말이 실감 났다. 나이 들고 아프셔서 예민한 데다가 계속 혼자 지내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갑자기 무거운 마음이 들면서 조사도 조사지만 먼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뵈었다.



“어머 어머니, 이번에 감귤이 참 달길래 어머니
생각나서 좀 사 왔어요.”

하고 찾아가면,

“혼자 살아서 먹지도 않는데 뭣하러 이런걸
사 와!”

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시면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서 어느 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자식 분들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손주 누구가 어디서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알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듣기만 했던 나도 물어볼 거리도
생기고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보낸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과 같이 할머니의 마음도 녹았는지,
처음 연동 시작하며 가계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하도 아프시다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역정을 내시기에 몇 달 간 가계부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게 아닌가.

“그래, 가계부는 어찌 써주면 되겠노?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안되겠나.”

하시는데 말씀에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처음에 그렇게
화만 내시고 무서운 할머니와 친해져 가계부까지 써주신다고 하시니,
자신감이 생겼다.



응, 우리 집 컴퓨터 박 주러 오는 아가씨”

가계부를 써 주시는 분 중에 사주를 공부하는 분이 계셨다. 듣고 있는 사주 강의를 컴퓨터로 옮기질 못 해서 기입지도를 하러 갈 때마다 휴대폰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주거나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드리는 등 자잘한 일들을 봐드렸다.

내가 아니면 딱히 컴퓨터 봐달라고 할 사람도 없으셨기 때문에 절대 나한테 가계부 더 안 쓰신다고 하실 일은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탁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놓였다. 조사하던 중 4주 간 교육을 갈 일이 생겼는데, 오래 자리를 비운 동안 혹시 고장 나서 답답한 일이 생기시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전으로 가는 전날도 일부러 퇴근하고 찾아가 밀린 파일을 옮겨드리고 나도 생소한 컴퓨터 잔 고장들을 겨우겨우 검색해 가며 늦게까지 해결해드리고 올라왔다. 나름 만반의 대비를 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 간 지 이주쯤 되었을 때 전화가 오셔서 한참을 이리저리 망설이다가 말씀하셨다.

“저기 이번 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서, 근데 대전 교육받으러 갔었으니까 여기까지 그거 해주러 오긴 좀 힘들겠지?”

사주보실 때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업데이트를 해주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장 주말에 사주 보러 손님이 올텐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가계부가 늦어지면 애가 타는데 언니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 주말에 부랴부랴 내려왔다.

그런데 아뿔싸, 간발의 차로 손님이 먼저 와 계신게 아닌가. 언니와 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언니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끄는 동안 내가 업데이트를 해놓기로 무언의 동의를 한 후 바쁘게 컴퓨터를 보고 있자니 밖에서 손님이 언니에게 물었다.

“근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 어. 그게, 음. 우리 집에 한 번씩, 컴퓨터 봐 주러 오는 아가씨!”

통계청 직원인데 가계부 기입지도 해 주러 온 김에 이것저것 계속 부탁한다고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궁색해서 둘러대셨겠지만 컴퓨터 봐 주러 오는 아가씨라니.

대전에서부터 달려온 것이 허무했지만 한편으론 언니의 삶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언니한테서 꼬박꼬박 가계부만 물어보는 통계청 직원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언니의 답답한 점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 비약이 심한 건진 모르겠지만 나도 언니의 삶에, 응답자의 삶에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당신의 삶에 다정한 그 무언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 만난 응답자와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선배님들을 보며 저런 연륜과 경험을

단숨에 따라잡진 못 할 테고 차라리 선배님들처럼 세 살에서 여덟 살 사이의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기가 있는 집에 방문하면,

‘몇 개월이에요? 한창 걸음마 열심히 할 때네, 우리 애도 이 나오는 게 늦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하고 아이 이야기로 쉽게 몇 십분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내 아이 사진을 넣어둔다면 ‘이 사람도 이런 가정이 있고 애들 데리고 먹고살려고 이렇게 열심히가 보네’ 하는 마음에서 모진 소리는 좀 덜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여러 응답자를 만나고 연동이나 불응 설득의 경험을 해 본 결과 지금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단순히 통계청 직원으로 가구의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자들이 나에게 문을 열어 주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의심스러운 조사로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추운 겨울 굴 한 봉지 들고 와서 놀다 가는 사람이기도, 우리 집 컴퓨터 봐 주러 오는 아가씨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몇 십 년간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가구에게 나는 친절한 상담사, 똑똑한 과외 선생님, 같이 수다 떨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또는 내가 더 나이가 든다면 함께 육아 이야기를 나눌 아기 엄마, 물어보지 않아도 시장 어느 집이 반찬을 잘하는지 말해 줄 너살 좋은 아줌마, 말 못할 고민을 나눌 친정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될 응답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러야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아홉

충청지방통계청 김 경 애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운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연동표본 교체를 위해 방문한 아파트의 썰렁한 분위기는 차가운 바람을 더, 더, 더욱 차갑게 했다.

날씨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추웠지만 씩씩한 발걸음을 표본가구를 향해 내디더 본다.

‘땡땡, 땡땡~~’

‘.....’

다시 한 번,

‘땡땡, 땡땡~~’

‘.....’

‘아, 첫 집부터 안 계시는구나!!! 이제, 옆집으로 가자.’



‘땡땡, 땡땡~~’

‘.....’

연속해서 3가구에서 응답이 없다.

큰맘먹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으니 일단은 기운이 조금 빠지지만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 가구의 문을 두드려본다. 그리고 느리게 열리는 현관문과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젊은 여자.

“무슨 일이시죠?”

“네, 통계조사가 있어 방문했습니다.”

「깡」

그대로 다시 닫히는 문.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고 있었다. 별로 산뜻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2개월 후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되고 기초 조사부터 불응했던 가구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땡땡 ~~’

“누구세요?”

“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왔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2개월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응답이 현관문 안에서 흘러나온다.

‘아!!!’ 그리고 동시에 나한테서도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만 바라보고 돌아온지 3번째.

오늘은 웬일인지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동안 나에게 「지옥의 문」으로 보이던 곳이 오늘은 「천국의 문」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었네. 관리사무소에서 온다고 해서 열어 봤더니…, 일단 들어오세요.”

나를 위해 열린 문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가구에 발을 들여놨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볼 일이 끝난 후 긴장된 마음으로 선한 인상의 젊은 여자와 마주 보며 앉을 수 있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라고 고용동향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실은”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아파트 현관문이 나에게 우연히 열린 것처럼 우리의 대화도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시작부터 힘들었던 결혼 생활로 결국은 이혼하게 된 언니와 조카 2명, 그리고 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본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모두 상처 받은 사람들이라서 누군가와와의 접촉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정중한 거절의 말이 돌아왔다.

아직은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의 절절한 사연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 할 수없이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마시자며 돌아 나왔다.

사무실에 돌아와 어떤 방법이 설득력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비자의 『세난(說難)』에는 “설득이 어려운 것은 지식이나 말재주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담대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일 것이라 생각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은 친근하게 다가서기로 했다.

일주일 후,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그 가구를 방문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별 거부감 없이 현관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같이 차 마시고 싶어서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성명이 이어졌고 국화차를 마시며, 대학시절 추억을 나눌 수 있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어디인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다음을 기약했다.

다음 방문에는 맛있는 쿠키를 사서 방문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가구명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질 수 있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늘리는 것이 나를 재미있었다.

이렇게 조사구에 갈 때마다 외부인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씨에게 방문하여 차를 마시고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누며 조금씩 벽을 허물어갔다. 언니의 원만치 않았던 결혼생활 얘기, 어린 조카들의 상처 및 방황에 관한

얘기, ○○씨의 길지 않았던 서울에서의 사회생활 경험 등을 들으며 같이 슬퍼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나의 학창시절 얘기 및 외로웠던 자취생활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추억을 공유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조금씩 가계동향조사를 설명할 수 있었다.

짧은 듯 길었던 3년이 지나고 통계조사가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로 외부인을 꺼려했던 ○○씨와도 아쉽지만 「감사장」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짧지 않은 3년 동안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친구가 된 우리는 이대로의 이별이 아쉬웠다.

통계조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저녁에는 산책도 같이 하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비록 통계조사를 통해 만났지만 우리는 기쁨은 곱해주고 슬픔은 나누어 가지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내 마음속의 블랙홀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

충청지방통계청 심 효 신



유난히도 가을이 빨리 와서인가?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도 마음은 한없이 춥고 허전하며, 가을 하늘은 또 왜 이리 높고 푸르려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지..

당장이라도 출장 길을 잡고 운전대를 돌려 어디로든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을바람은 아득한 그리움을 묻어 나르며, 문득 영상처럼 참 많이도 외로워 하셨던 그분이 떠오른다.

지금은 잘 살고 계실까? 손목을 직접 칼로 베어 몇 번씩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분은 외부와의 모든 인연을 차단하고 혼자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며 홀로 지내고 계셨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받고, 너무도 외로워 사랑을 호소하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몸부림이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늦은 저녁, 맞벌이 부부가 많아 낮에 경제활동 실사 때 만나지 못한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퇴근하는 길에 난 또다시 ○○○조사구로 향하였다



마침 응답자분들도 집에 계셔서 훈훈한 조사를 하고, 다음 집으로 접어드는 골목 어귀.. 전 담당자에게만 전해 들은 우울증이 심해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불응 가구의 주택에서는 암울한 기운만 감돌 뿐, 늦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이며, 베란다 문, 창문까지 꼼꼼 잠긴 채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다만 저 담벼락 너머로 베란다 창문 틈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한 불빛 사이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다. 한없이 손을 내밀어 붙잡고 싶고, 다가가 소리 내어 그 정적을 깨고 싶은 충동이 일게 했다.

난 대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며 나를 좀 봐 달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그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고요한 주택가에는 나의 소리만 메아리칠 뿐 그 가구의 고요를 깨지 못하고 묵묵히 바라보며 돌아 서야만 했다.

조사구가 바뀌어 인수인계를 해주던 전 담당자는 이 가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주머니가 심한 우울증 환자로 대문 밖에 나오지를 않고,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아들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면접이 어렵고, 아들 또한 환자 같다고만 전해 들어 불응인 상태라고...

설상가상 낡은 이 단독주택에는 초인종은 통째로 다 뜯어져있었고, 우편함도 아예 없었으며 대문 밑과 마당 사이의 작은 틈도 종이박스로 다 막아 놓아서 누가 보아도 아~ “외부와 단절하고 싶어요..”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통계 경력이 몇 년인가? 전 담당자의 인수인계는 예의 전달 사항으로만 들리고 어차피 이제부터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두렵거나 피하고 싶지 않은 작은 걸림돌(?)로 느껴졌다.

그러나 이 또한 나의 선부른 자신감이었다. 항상 우울하신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꿈쩍도 않고, 나는 이제나저제나 대문 밖을 서성이며 소리 없는 외침으로 그렇게 단절을 하며 무더운 여름을 두어 달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 바람의 감촉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길거리에 가로수도 하나둘 낙엽이 되어 뒹굴고, 어느새 계절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던 어느 가을날 ~

그날은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날씨였고 난 아주 상큼한 발걸음과 들뜬 기분으로 ○○○조사구의 불응 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동안 그 집 앞마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그 큰 감나무엔 감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고, 그 집 앞 골목까지 가지가 뻗어져 늘어진 가지에서 떨어진 큰 감들이 도로가에 나뒹굴고 있었다.



“어 감이 마당밖에 떨어져 있네” 하고 대문 틈으로 보니 현관 입구 계단에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게 아닌가?

낮은 잠바를 걸치고 너무도 말라 광대뼈만 남아있는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초라하였으며 그저 무심히 감나무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없이 앉아 계셨다.

난 길거리에 감을 얼른 줍기 시작했다. “어머니~~~ 감이 너무도 예쁘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근데 길거리에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주웠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것도 다 따야 할 것 같은데 같이 따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하며 대문을 밀어보니 웬일인지 문도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천천히 발걸음을 들여놓으며 “어머니 정말 예쁜 집이네요! 어머니 얼굴도 참 고우신데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어디 힘이 있어서 감이나 따시겠어요? 제가 따 드릴게요” 하며 “사다리는 어디 있어요?” 하니까 손짓으로 가리키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감도 줍고, 높은 가지의 감도 하나하나 따서 박스에 담으며 지나온 나의 작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시며 죽고 싶는데 죽을 수도 없다며, 손목을

몇 번 그었는데도 명이 길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맨날 사고 치고 집에 와서 돈만 뜯어가려고 한다며 우시고..

남편은 벌써 몇 년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신다고 ..

혼자서는 밥도 먹기 힘들다고 그 누구도 다 보기 싫어서 이렇게 혼자 방에 계신다고 힘없이 말을 이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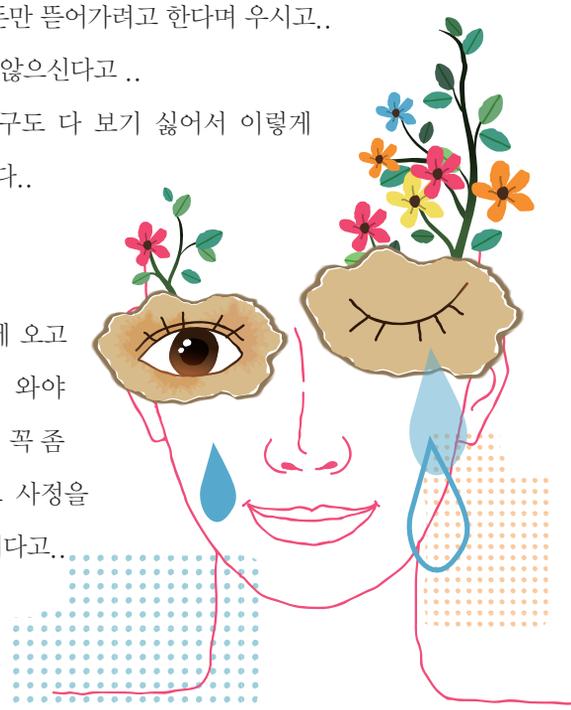
전후 사정을 다 들은 후에 난 어머니께

“이 집에는 초인종도 없어 제가 다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으니 전화를 하고 와야겠네요!” 하며 전화번호를 물으니 오히려 꼭 좀 전화 좀 해 달라시며 내 손을 꼭 잡고 사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외롭고 무서우시다고..

낮에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해가 누엿 누엿 질 때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불안해 살 수가 없으니 그 시간에 전화해 주면 더 고맙겠다고 까지 하시면서 말이다.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통화하며 우리의 관계는 개선되고, 불응도 없어지면서 봄날처럼 기분 좋은 대화와 통계조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난 통계청 직원이기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응답자와의 유대관계를 원만히 하고, 그 어머니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며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어 주는 걸로 내 의무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는 본인의 생·사를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처음엔 돈이 없어서 이 넓은 단독 주택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 가고 싶으니 꼭 좀 와서 집 좀 자세히 보고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하신다.

부동산 사장님만 오면 무서우니 같이 와달라고 하시며 말이다.

그 정도야 뭐 하고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과 집을 방문하고, 집이 낡아 수리해야 한다는 말씀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자 이젠 전세를 내 놔달라고 말씀하시고 집이 팔리면 이사를 해야 하니 원룸도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점점 나와의 통화 횟수는 많아지고 요구 사항도 하나둘 늘어나면서 난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면 혹시나 상처를 받아 큰일이 날 것 만 같았다.

어머니는 우울증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평생 사랑을 받아 본 일이 없으시다며 남자 친구를 소개해주면 안되겠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아마도 부동산 사장님이 얼굴도 고우신데 좀 꾸미고 밖에도 나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때문은 아닌지..) 이제 일도 해서 돈 도 벌어서 쌀이라도 사야 밥을 해 먹을 테니 식당이든 어디든 일자리도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기운도 없어 밖에 나가시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지, 남자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 난 후의 뒷감당은 나더러 어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휴~~~ 답답하다.

“어머니~! 첫째도 둘째도 일단 건강부터 찾으셔야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니까 일단 병원서 타은 약 꼭꼭 드시고 식사도 꼭꼭 챙겨서 거르지 말고, 운동도 할겸 동네도 조금씩 걷고 하세요~~~!! 그래야 힘도 나고 기력이 생겨 일거리를 찾죠!” 하니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화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낮에는 언제 오냐고 전화하시고 저녁에는 외롭고 무섭다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전화를 자꾸 하신다.

그러면서 저녁이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점점 나에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힘에 버거워지며 자꾸 피하고만 싶어진다...

그야말로 비경제활동인구 한 명, 불용 가구 한 가구 설득하기 위해 내가 이 정도로 몰심양면 힘을 써야 하는 건가? 묻고 싶어지기도 했다.

어느 날은 늦은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소리치신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살려 달라고 하셔서 난 너무 놀랐지만 이야기를 계속했고 어머니 점점 수그러들어 신고할 정도 까진 안 갔지만 긴 이야기와 놀란 가슴으로 그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다음날 죽을 시들고 방문을 해 보니 목소리는 예전보다 좀 안 좋으셨지만 은행도 다녀오시고, 외출도 하셨다니 조금 마음은 놓였지만 나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은 거실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신다. 들어가 보니 하얀 죽 하나에 묵은 김치 한 조각이 밥상에 초라하게 굳어져 저 구석 한켠에 버려지듯 있었고, 방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여져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다른 방에서 빠끔히 문을 열고 화장을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아~~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신 거구나...

그렇게 긴 가을과 추운 겨울이 내 갈등과 함께 깊어가며 연동 조사구로 끝나갈 봄날이 왔다.

답례품 상품권으로 쌀을 사다 드리며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와의 인연 꽤 오래되었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 말씀하신다. 그전에도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나중에 꼭 복받고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될 거라고 너무 고맙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밥 잘 먹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이별을 알고 계시나.....!

“그래요... 근데 어찌지요? 여기 통계청 조사기간이 다 되어서 전 더 이상 여기 못 와요 이제 3년이 다 되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돈도 벌어야 하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끔 외출도 하시고, 일도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건강 찾으셔서 웃는 얼굴로 가끔 배요~~알겠죠?”

하며 꼭 안아 드렸다..

차마 “힘들면 전화하세요!”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애써 눈물을 감추시며 중얼거리신다.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그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속으로 혼자 살아갈 삶의 계획을 읊조리시고 또 읊조리시는데 내 발걸음은 대문을 또각또각 나서고 있었다.

두 눈을 꼭 감고 한참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절망을 꼭 이겨 내게 해 달라고..”

내 깊어지는 갈등의 끝을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연동으로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뜸해지면서 그렇게 나의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마음 한편 양심이라는 놈이 자꾸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하나둘 열릴 때면

이렇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가을날이 되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 어머니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내 한계가 그 정도 밖에 안되었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양상한 나뭇가지를 남기고 떠나는 자연의
순리처럼..

이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바스락바스락
밟아본다...



"금금한 어느 하루"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스물하나

충청지방통계청 임 현 서



통계공무원으로써 공직생활을 시작 한지도 언 20년을 넘어 차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통계업무의 경지면적, 각종 생산업무 조사를 접하고 있을 즈음 작년 상반기에 업무의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지역전담제라는 명목으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농가경제조사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농가경제조사 업무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습득해야 하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의 잦은 접촉으로 친밀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제가 새로 맡은 한 농가 할아버지의 영농일지로 금금한 어느 하루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농가는 올해 86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사는 농가입니다. 현재 통계조사에 적극 응답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로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영농일지를 일기의 개념으로 기장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변소 좀 파내 주시오”

6월 13일 지출표 내용



오늘은 아침 식사 일찍이 하고 마늘약 1병 두통 타가지고 마늘 다마네기 밭에 품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이웃에 똥차가 오는 것 같아 나도 대변 좀 파내고 싶은 생각이 나 이웃에 차저가우리 변소 점 파내 주시오하여 와서 우리 소마도 퍼내 갔습니다.

“똥쓸 비둘기”

6월 23일 지출표 내용



오늘은 광춘밭에 방공 조금 심었습니다. 중공 심은 것은 뵈족이 나오는데 날려 데이는 비둘기가 와서 콩 꼭지를 따먹으니 지고 있으면 안 오고 집에 왔다가 보면 언제 또 빼먹고 아주 성가실었습니다.



"금금한 어느하루"

6월 25일 지출표 내용



이번달 전기료 31,320원 입니다.

오늘은 판교장에 가서 고추약도 사고 지(취)약도 사 지(취)드려 다니는데 약을
노았습니다. 많은 약을 먹었는데 지(취)가 주근 데는 없으니 금금합니다. 고추약,
지약 5많은 돈 쓴 것 가타요. 오늘도 고추약 12,000원 풀약해서 22,000원 지불
하였습니다.

매주 할아버지 영농일지의 해학스러운 내용에 대해 금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은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금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협조적이시진 않으셨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방문할 당시 할아버지 첫마디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거 아냐? 너무 귀찮아 못 하겠어” 난색을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강낭콩 수확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때론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인연으로 영농일지는 지속적인 기입지대로 영농일지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일기형식이 아닌 지출표 작성방법을 조금씩 배우
면서 즐거움을 느끼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또한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전담제 실시로 인해 농가경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나는 농가들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 20년 내공을 바탕으로 불응 없는 농업통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영농일기

아침 일찍이 식사를 하고 아침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서천 황의 내과 화합약을 타러가 약을 타 가지고 서천에서 9시30분 버스를 타고 집앞에 내려 집에 갔습니다. 집에 와서 해관에 가서 놀다 점심도 먹고 술도 한잔식 나누고 장기 두고 놀다 오후 4시경에 다 각기 집으로 도라왔습니다. 회랍약 1개월 분 10500원 차비 2600원



진화된 영농일지

오늘은 집식구는 원대 병원에 약을 가질어 갔음
아침 일찍이 판교역 택시비 5000원
기차타고 익산 역차비 2인 1900원 1900원
익산역에서 원대병원 2인 2600원 버스
익산역에서 판교까지 2인 3800
판교역에서 택시비 5000원
병원 약제비 3개월 합계 68500원



아~ 그리고 쥐가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죠? 얼마 지나 할아버지께 여쭙 보았습니다.

“아버님 쥐는 좀 잡혔나요?”

“죽은 쥐들은 못봤어. 어디 가서 지약 많이 쳐 먹고 죽었겠지...”

“흥 흥 흥”



겨울날의 연동을 좋아하세요?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둘

경인지방통계청 최혜림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도 끝났다. 건물을 나서면 얼굴을 때리는 듯한 높은 습도를 헤치며 출장을 나갈 때면 작년 겨울 추위에 덜덜 떨며 했던 연동이 자연스럽게 생각 나곤 했다. 흔히들 농담 삼아 ‘가구업무의 꽃’이라고 부르는 연동—물론 반어법이다—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 같은 속앓이를 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지? 화내고 욕하면 어떻게 도망칠까?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어 남들은 불금이라고 신나할 때도 연동 생각을 하면 가슴과 어깨에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금요일이 되어도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좋든 싫든 해야 하는 일인 것을.



새로 받은 연동조사구는 신기하게도 조사가 끝나는 조사구의 바로 앞 동이었다. 이 아파트단지의 특징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한 편이지만 겨울엔 그야말로 칼바람이 분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복도식 아파트의 고층이라 가구를 기다리다가 말 그대로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추위를 경험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앞 계단 벽에 붙어 바람이라도 피하고 있던 중 한 가구주 분과 마주쳤을 때 목도리라도 하고 있으라는 걱정 어린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까. 가뜩이나 내 얼굴을 모르는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데 목도리와 마스크로 가리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못 하는 것일 뿐.



구역설정 때 부른 배를 안고 있던 배우자 분은, 예비조사 때 아기를 안고 있었다. 축하 선물로 신생아 내복을 사드리려고 현금매장에 갔을 때 그 가구의 첫째 아이가 떠올랐다. 그래서 한 벌 더. 다시 그 옆집에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에게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 집은 통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한 벌 더. 예쁘게 포장된 내복 세 벌을 들고 출장길에 오른 나에게 주무관님들은 내복 팔러 가냐고 농담을 하실 정도였다. 내복을 팔아서라도 응답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 다들 하시면서.

내복 선물을 통해 같은 상황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유형이 다름을

새삼 느꼈다. 한 집은 정말 고마워하며 협조도가 높아졌지만, 다른 한 집은 부담스러워하며 빗진 것도 아닌데 자꾸 오지 말라며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Pro-설득을 통해 가게부를 써주기로 한 집이 있었다. 조금 무리해서 권한 느낌이 들었지만 예비 가게부는 잘 나왔기에 괜찮은가 보다 싶었던 것도 잠시, 결국 못하겠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무너질 듯한 실망감을 가득 안고, 경제활동인구조사만이라도 진행하다가 기회를 엿봐 다시 설득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일한 시간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지 여쭙 보았다. 하지만 다시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일한 시간 말해주다가 가게부까지 연결될 것 같아서 아예 안 할래요. 건강하세요 ^^’라고 적혀있었다.

‘아~ 눈치 빠른 분, 마음 아프게 웃으며 인사해주시 마세요...’



현관에서 식탁까지

할머니는 친절하시지만 꼭 현관에서만 이야기를 하셨다. 앉으라며 현관 앞바닥을 가리키거나 의자를 현관 앞까지 가져다주신 적도 있었다. 여름엔 선풍기까지 끌어다 놓아주시기도 했으니 분명 방문이 싫으신 건 아닌데... 그냥 당신의 공간에 누가 들어가는 게 싫으신가 보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세가 많아 모아주시기만 하는 영수증을 정리하던 중 가구 매장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쓴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 금액으로 보면 침대나 책상인데 현관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가구는 눈에 띄지 않았기에 전화를 드려 손주에게 침대를 사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방문 날 할머니는 노인네 사기라도 당했을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냐고 웃으며 물으셨다. 뜨끔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어 웃음만 지었다. 난 그냥 금액이 큰 영수증이 있기에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내 업무는 할머니에게 너무 다정히 포장되어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다음 방문에 할머니는 맛있는 포도를 사 왔다고 먹고 가라며, 드디어 집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으라고 해주셨다. 그렇게 죄송한 오해 덕분에 나는 드디어 현관에서 식탁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



램프의 요정이 세 명

첫 연동이기 때문이었는지 이 조사구를 시작한 이후로 총괄자님과 팀장님, 타 과 팀장님(관리자)까지 무려 세 분이 동행해주셨다. 몇 달 동안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빙자한 수다를 떨면서 가계부에 양곡까지 끌어낼 타이밍을 노리며 눈치를 보던 가구에서도 선배님은 똑딱하고 성공을 이끌어내셨다. 경험 많은 분들이 설득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그분들의 연륜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본청의 어떤 분은 설득에 자꾸 도움을 받으면 직원의 ‘근성’이 없어진다면 설득 지원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셨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다양한 설득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좋은 학습방법이다. 혼자서 부딪히며 혼자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관찰을 통해 습득하고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가는 것은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다른 분들의 동행은 불응률 감소라는 목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힘듦과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는 ‘위로’의 효과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직원의 고충을 함께하고 싶어 하신 경인청장님의 ‘관리자의 불응 설득’ 프로젝트는, 다행히 나는 회수율 상승에 도움을 받았지만, 결과물이 없었더라도 경인청장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만으로도 일부의 효과는 거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2017년이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리로 인해 더 이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는 중간중간 가구의 눈치를 보며 가계부를 꺼낼 타이밍을 노리는 작전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구를 방문할 때의 두근거림과 걱정은 가구조사가 계속되는 한 늘 함께 할 것이다.

영화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에서 여주인공은 도서관의 쪽지를 받고 쪽지의 주인을 궁금해하며 설렌다.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그랬듯이 언젠가 통계청 직원의 방문 예정에 응답자들이 설렘을 안고 기다려주는, 연동이 정말로 ‘가구업무의 꽃’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나의 두 번째 스무살 통계일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셋

호남지방통계청 유 해 경



누구나 커음을 있다

갑자기 가을이 되어버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숨 막힐 정도로 무더웠던 날들, 자다가도 수시로 일어나 에어컨을 켜고, 또다시 얼마 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별떡 일어나 꺼야 했던 괴로운 2016년 여름,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과 무더위, 그런데 여름은 가고 누구나 시인이 되고픈 가을이 왔다. 그 시간과 함께 현장조사 직원으로써 1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흘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축동향조사가 진행 중에 ○월 축산물생산비조사 내역과 덧붙인 수신 메시지다.

얼핏 보면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경험이 없는 초보통계 업무를 하는 나에겐 짧은 몇 글자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알기에 ‘감동’ 내지 ‘심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듯싶다.

나의 두 번째 스무 살 죄층우돌 통계 직무수행은 이랬다.

어쩔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할 정도로 내 입사 시기에 사무소는 분소로 축소되면서 전체 직원들에게 새롭게 업무가 배정되었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직원은 매일매일 바쁘게 이루어져 갔으며 신규직원까지 챙길 마음의 여유 또한 전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회 경력이 탄탄하다고 자부했던 나는 해당 업무지침서 및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었다.

이론과 실제 상황은 달랐다.

업무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출장 업무에 서툰 상태인데다가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간 첫 출장지는 비육돈 농가였다. 전 담당자와 동행 출장업무때 경영주 부재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안내전화는 했던 것과 합하면 사실상 두 번째로 첫 만남은 아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경영주와 대면 상황을 나름 정리했던 긴장감과 기대와 달리 황당 그 자체였다.

‘방역 중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풋말을 확인한 뒤 입구에서 축사 방문에 대한 매너 수칙을 준수한다며 옷맵시를 정리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조사표를 들고 금지선을 넘어갔다. 물론 전 담당자의 주의사항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내 모습을 보며 외치는 경영주의 고함소리가 첫 대면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깨뜨리고 말았다.

“바보 아니에요? 한글 못 읽어요?!”

아무지게 한방 먹었다. 외부인 출입금지 항목에 해당된 것이다.

“대인 소독실에 가서 방명록 작성하세요 !”

경영주인 듯 경영주 아닌 사람이 멀리서 외치는 음성은 단호했다. 그리곤 인사를 할 틈새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축사에 관련 업무를 하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사를 방문한 경험도 없고 혹여 축사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심한 악취 냄새에 코를 막고 뛰었던 경험으로 볼 때 나에겐 축사시설물이 낯선 존재인데 축사 방문순서를 알 턱이 없었다. 「대인 소독실」이 뭐 하는 곳이며, 어디인지 코앞에 두고 한참을 찾았다.



바로 출입금지 밖으로 물러난 뒤 시키는 대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좀 과장해서 30분 넘게)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 담당자 말에 의하면 매번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경영주의 동선을 파악해 점심시간에 맞춰 경영주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 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경영주는 측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기를 꺼려했는지 만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일을 그르친 적이 허다했다고 한다.)



경영주 스타일

이미 익히 들어 예상은 했지만 황당 그 자체였다. 하던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야 옷에 묻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다가오는 사람이 내 시야에 들어 오니 순간 헐~ ‘조사하고 갈까? 그냥 확! 가버려?’ 하는 심한 내적 갈등이 나를 괴롭혔다. 그냥 있자니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그냥 가자니 다음에도 계속 강하게 나올 것 같아 앞으로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고....

‘휴~~’

앞이 캄캄하고 한숨만 나왔다.

“조사 내용이 뭐니까?”

“매번 같은 질문입니까? 앵무새도 아니고...”

할 말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불쾌감과 안하무인인 사람을 처음 접한 나는 말을 잃었다.

방문 목적과 조사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축산물생산비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본 다음 업무 담당자가 바꿨다며 명함을 건네준 뒤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했다.

아직 낯선 업무였고 축산관계자 만남이 처음이라 축산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도 못 했을뿐더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해당 농가에 사용되는 용어 차이로 인한 혼동, 내 기분이 나쁜 것은 둘째 치고, 어찌나 무뚝뚝하고 사무적이고 화난 어투로 대하는지, 되려 좀 무섭기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다가는 한소리 들을 것만 같았다.

‘뭐야!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해야 하나?’

의문이 생겼다.

경영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러 업체 및 기관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방문과 전화로 시시콜콜한 반복 질문 내용이 쇠도하다 보니 유독 짜증 섞인 행동과 어투로 말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쉽게 가시지 않는 불쾌감이 나의 첫 출장 업무를 멋지게 장식하고 말았다.

그 이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자만 남기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조사방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

현재 다른 조사업무도 하고 있지만 축산물생산비 조사대상처는 10농가다. 그중 유독 이 농가는 매우 비협조적이고, 축사 위치 또한 불편하다.

축사에 가는 길은 으스스하고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비좁고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한참을 가야만 하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 출장 업무 수행하기엔 부담스럽고 나름 긴장되는 조사대상처이지만 가축동향조사와 중복이 되는 표본 농가여서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곳이다.

전 담당자 역시 나름 신경이 많이 쓰던 농가라고 특이사항을 알려줬지만 항상 경영주가 잘 만나주질 않았기 때문에 친숙해질 틈을 제공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해당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6명으로 약 4,000두 내외 정도 규모 있는 농장이지만 축사에 관한 모든 작업을 직원과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첫 만남에도 축사 분뇨치리를 하고 있었고 매번 작업 중이었다. 일하는 도중엔 그 어떤 방문자라 할지라도 작업하던 것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면담할 수 없어,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세 번째 출장 업무로 축사 방문했을 때 축사 입구에서 만난 축산 약품 업체 직원의 정보를 참고해 이쯤에서 조사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그때가 작년 12월이었다.

출장 방문은 하되 외부인 통제를 철저히 꺼리는 경영주의 축사관리방침에 따라 축사 방문 때 꼭 걸쳐야 하는 「대인 소독실」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는 서면(書面) 조사하기로 했다.

먼저 방명록을 작성하고, 정성껏 쓴 해당 월 생산비 조사 협조 안내문과 답례품, 그리고 필요에 따라 축산관련 정보자료(예를 들면 축산관측, 통계 보도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 양 축산경영주와



공동작전이 수행하듯 「대인 소독실」 한 칸에 다소곳하게 놓고 오고 가기를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다.

그 후로 몇 번의 문자 발송이 더 이루어져서야 조사항목별 작성된 내용을 송신해준다. 출장 방문하기 하루 전이나 당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문자도 보냈지만 기대도 예상도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오늘도 못 뵈고 그냥 돌아갑니다.

참고하실 자료와 함께 [대인소독실]에 놓고 갑니다. 아카시아꽃 향이 아주 좋습니다. 돼지들은 행복하겠습니다. 다음엔 꼭 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향기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 유해경 올림 -

계속되는 무더위로 축사관리는 물론 폐사되는 가축이 많다고 합니다. 도움은 안 되지만 걱정반 위로반.. 심정으로 안부 전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 유해경 올림 -

안녕하세요? 00 통계청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 가을 문턱에 왔습니다. 사장님! 이달은 가축동향조사가 병행하는 달입니다. 조금 빨리 축산물생산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례품 지급하러 금일 오전 (2일) 방문하겠습니다. - 유해경 올림 -

무응답이었다. 매월 자료는 받지만 때로는 자료 내용이 흐릿해서 구분하기 어려워도 수신 재요청은 어불성설이다. 눈을 부릅뜨고 식별해야만 하는 불편도 감수하고 인내해가며 매월 조사표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랬던 경영주가 변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주 1회 이상 안부 문자를 보낸 효과가 있었는지 상세한 자료는 물론이고 보내주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문자를 보았을 때 그 기분이란!!



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를 이렇게 한다

현재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의 4축종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축종을 한 권으로 통합한 조사표이다 보니 많은 빈칸을 다 채워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귀찮음이 작용했는지 성실하게 자료조사에 임하던 몇몇의 농가가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가 신참인 줄 안 걸까!’

“이달까지만 하고 바빠서 그만할게요!.” 문자만 남기고 푹...

“조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귀찮아서 그만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전 직원은 질문도 없던데.....”

뿐만 아니라 “지난달과 같습니다.” 라며 성의 없는 대변만 반복되기 일쑤였다. 똑같은 형식이 되풀이되고 마치 신선함을 잃어버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지겹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 비옥도 조사표 (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월	1	2	3	4	5	6	7	8	9
2월	1	2	3	4	5	6	7	8	9
3월	1	2	3	4	5	6	7	8	9
4월	1	2	3	4	5	6	7	8	9
5월	1	2	3	4	5	6	7	8	9
6월	1	2	3	4	5	6	7	8	9
7월	1	2	3	4	5	6	7	8	9
8월	1	2	3	4	5	6	7	8	9
9월	1	2	3	4	5	6	7	8	9
10월	1	2	3	4	5	6	7	8	9
11월	1	2	3	4	5	6	7	8	9
12월	1	2	3	4	5	6	7	8	9

[축종 - 비옥도]

* 비옥도 조사표 (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월	1	2	3	4	5	6	7	8	9
2월	1	2	3	4	5	6	7	8	9
3월	1	2	3	4	5	6	7	8	9
4월	1	2	3	4	5	6	7	8	9
5월	1	2	3	4	5	6	7	8	9
6월	1	2	3	4	5	6	7	8	9
7월	1	2	3	4	5	6	7	8	9
8월	1	2	3	4	5	6	7	8	9
9월	1	2	3	4	5	6	7	8	9
10월	1	2	3	4	5	6	7	8	9
11월	1	2	3	4	5	6	7	8	9
12월	1	2	3	4	5	6	7	8	9

[축종 - 젖소]

* 번식우 조사표 (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월	1	2	3	4	5	6	7	8	9
2월	1	2	3	4	5	6	7	8	9
3월	1	2	3	4	5	6	7	8	9
4월	1	2	3	4	5	6	7	8	9
5월	1	2	3	4	5	6	7	8	9
6월	1	2	3	4	5	6	7	8	9
7월	1	2	3	4	5	6	7	8	9
8월	1	2	3	4	5	6	7	8	9
9월	1	2	3	4	5	6	7	8	9
10월	1	2	3	4	5	6	7	8	9
11월	1	2	3	4	5	6	7	8	9
12월	1	2	3	4	5	6	7	8	9

[축종 - 번식우]

* 번식우 조사표 (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월	1	2	3	4	5	6	7	8	9
2월	1	2	3	4	5	6	7	8	9
3월	1	2	3	4	5	6	7	8	9
4월	1	2	3	4	5	6	7	8	9
5월	1	2	3	4	5	6	7	8	9
6월	1	2	3	4	5	6	7	8	9
7월	1	2	3	4	5	6	7	8	9
8월	1	2	3	4	5	6	7	8	9
9월	1	2	3	4	5	6	7	8	9
10월	1	2	3	4	5	6	7	8	9
11월	1	2	3	4	5	6	7	8	9
12월	1	2	3	4	5	6	7	8	9

[축종 - 육계]

축종도 다르고, 경영 스타일도 제각각이라 조사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 내용을 정리해 축종별 농가특성에 맞게 매월 조사할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한 다음 A4 한 장으로 된 서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기간만큼 분량을 복사해 파일로 묶었다. 겉표지에는 조사기간을 포함해 그에 따른 파일을 각 축종농가에 배부하였다.

서류 정리가 서툰 경영주 대부분은 농사일과 겹하고 있었고 배부한 파일에 매월 발생하는 자료(사료비내역서, 정산서, 기타서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응하는 농가에겐 다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농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축산물생산비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을 인식시켜주며 설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농가는 경영주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팩스 또는 문자 전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정산서 제공)와 함께 직접 대면으로 조사에 응해주고 있다.



뒤시 중헌지 우리는 안다

통계는 현실적 특수성을 수와 양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시행착오와 위험성이 가장 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원의 성실한 자세와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응답자의 성의 있는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면 인간관계란 의심과 각박함만이 남게 된다.

나는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원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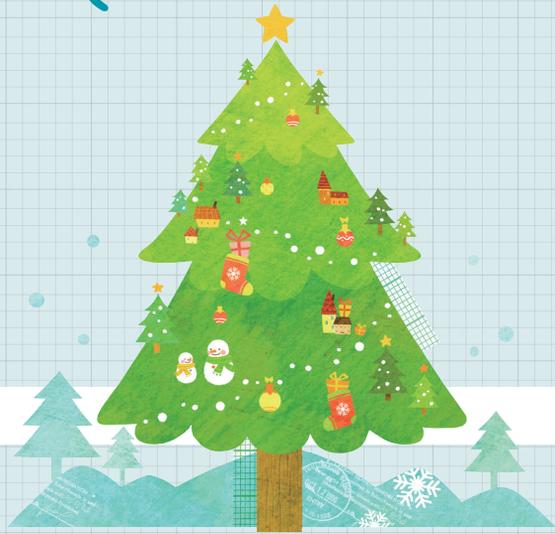




그게 바로 통계인의 길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넷

동남지방통계청 우 정 식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로 시작하는 ‘고향의 봄’이란 노래의 배경이 되는 곳은 ○○○○ ○○이다. 지금은 지하철이 오가며 아파트가 끝없이 들어서서 따뜻한 시골의 느낌보단 회색빛이 어울린다. 하지만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의 변두리는 여전히 여름에는 시리도록 초록이 변지며 가을에는 누런 황금들녘이 풍요로움과 뭔가 모를 뿌듯함을 선사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농업이란 단어는 언제나 나에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존재해 있었고, 첫 직장을 그만두고 ○○사무소 농어업생산통계팀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지도 모른다. 아무리 힘들고 싫었던 시간들도 지나고 보면 미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3년간 내가 겪은 통계청에서의 3년은 내 기억의 포장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아름답다.



응답자 설득

일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날 때쯤 축산물생산비조사 농가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매달 새로운 조사를 머리보다는 몸으로 익히며 이등병의 어병함을 풍기던 시기라 매사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성격인 나에게도 조금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체할 농가의 명부를 받아들고 출장지로 이동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통계청 입사하기 전 회사에서의 경험이었다. 제약 회사였는데 영업직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서 회사의 물건을 홍보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존감을 버린 채 감성노동을 해야 했고 그런 덕분에 낮을 가리는 성격도 어느 정도는 능글맞아졌다.

대체 명부의 가장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농가를 찾아갔다. 건강상의 이유로 농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다. 급히 찾아간 두 번째 농가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농장을 쉰 지가 몇 년째라며 그때는 무척 신선했던 나라에 대한 불신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껌싸게 자리를 뜨고 싶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분노와 한을 이해하는 척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듣고 차에 타서는 깊은 한숨을 두 차례 내쉬고 마지막 농가를 찾았다.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농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혀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다이얼 소리뿐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분에게 말을 여쭙는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씨 아십니까?”

“어 난데!”

형사들이 차에서 잠복근무를 하듯 계분 냄새를 맡으며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해야 할 나의 운명이 순식간에 꽃길로 뒤바뀐 느낌이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조사에 응해줄 대상을 만났으니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다.

축산물생산비조사가 어떤 조사이고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자로 잦듯한 어조로 설명을 드렸다. 나의 기나긴 설명에 비해 돌아온 대답은 짧고 굵었다.

“송신타. 안 할란다.”

순간 ‘왜 사장님은 국가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하늘이 내린 기회를 거부할까?’ 라는 의문의 물음표 들이 내 온몸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친도 본적이 없었던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내 잇몸을 꺼낸 미소와 함께 조사 필수품이라는 카드로 응답자 회유에 들어갔다.

“제가 그냥 조사에 응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의 의미로 매달 농협상품권 2만원을 조사 필수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흔들림 없던 응답자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굳건히 잠겨있는 빗장을 풀기에 조사 필수품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순간 떠오른 것은 자연이다. 당시 팀장님의 배려로 축산물생산비 조사구만은 내가 살던 지역으로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조곤조곤한 말투는 버리고 강한 어조의 사투리로 회심의 한마디를 던진다.





“사장님 저도 이 동네 삽니다. 어머니 가게는 ○○○이구요.”

“아 맞아~! 니가 그 집 아들내미가 우리 동기들 거서 계모임 자주 한다.”

사장님의 눈에 서려있던 의심과 경계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치 어린 시절부터 나를 보았던 사람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한 사장님과의 인연은 2년 정도 이어졌고 지역전담제가 시행되면서 지금은 다른 농가를 조사하고 있다. 인수인계를 해주던 날 섭섭하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그게 바로 나요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다 보면 생산량 조사에 포함되는 작물이 심어진 필지는 더욱 신경을 써서 면적 측정을 하고 혹여나 경작자가 있다면 미리 미리 인사를 드리고 나의 존재를 알리기에 바쁘다. 바로 표본으로 선정되어 경작자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면적은 넓었으나 매실나무만 심어서 조사 하기에 참으로 좋은 필지였다. 5월 그곳에는 간작으로 콩을 심어 놓은 것이다. 아직 어려서 잘 보이지 않은 콩의 존재를 발견한 내 스스로를 대견하다 느끼는 감정은 웬지 이 필지가 생산량 조사에 선정되면 어느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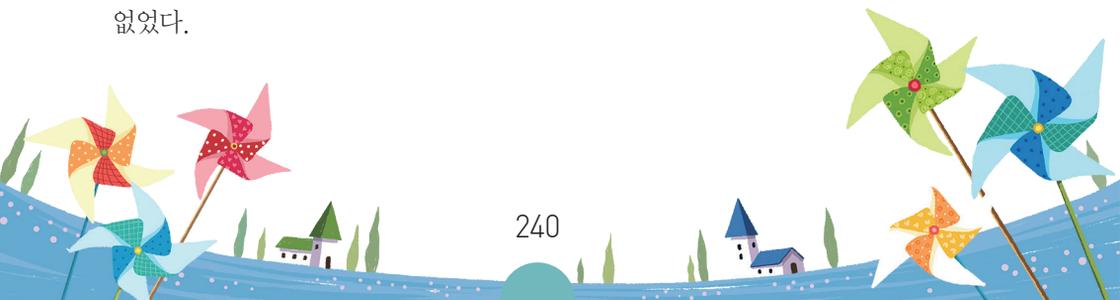


경작자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근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해야 할 필지가 여기만은 아니기에 얼른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을 잊고 지냈다.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그 필지가 콩 실 수확량 조사 표본 필지로 선정이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작자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파악을 하게 되었다. 콩은 잘 있는지 혹시나 본인이 심은 콩의 안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밭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사구로 향했다.

들리는 건 적막한 바람 소리뿐이고 인적 또한 드문 곳으로 변해 있었다. 한동안 그곳에서 서성이다 진영읍사무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직불제 담당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멀리서 보이는 담당자의 실루엣은 이미 많은 농민들을 상대했는지 지쳐 보이고 더 이상 오늘은 누구와도 어떠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용기를 내어 명함을 내밀며 내가 처한 상황을 몇 곱절은 더 연민을 느낄 수 있게 슬픈 눈으로 설명을 드렸다. 혹시나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찌지 많은 경우의 수가 뇌리를 스쳐갔지만 모든 것들은 기우일뿐, 석연치 않은 듯한 말투였지만 내가 알고 싶었던 경작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셨다. 주소지로 찾아가니 주택이었다. 역시나 출근을 하셨는지 집에는 부재중이다. 사실 표본필지의 특징이 명확해서 굳이 요도를 보여드리면 지번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서 경작자를 만날 필요까지는 없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통계청 ○○사무소에 근무하는 농어업생산통계팀 ○○○이라고 합니다. 콩 실 수확량 조사 경작자 파악을 하기 위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필지 매실나무 사이에 콩 경작하셨는지요?”

“예 제가 심었는데 그거 관리를 못해가 엉망인데 좀 잘 된 곳을 조사하는 게 안 났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좋고 잘 된 것은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기 마련인데 전문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 그런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기가 민망해한다. 그럴 땐 통계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수궁을 하게 된다.

“예 사장님 농사가 잘 된 곳만을 조사하게 되면 올해 콩 농사가 잘 되었다고 잘못된 통계자료가 나오기에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여러 표본을 통틀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 하이소”

이렇게 수궁의 답변을 들을 때면 큰 쾌감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울림을 얻을 수 있다. 수확 일정을 여러 번 물어봐도 결국 수확하는 건 경작자 마음이다. 출근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전화를 받게 된다.

오늘 콩을 수확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알려준 것만으로 실기를 피할 수 있었기에 고맙다. 얼른 장비를 챙겨 현장에 왔다. 예초기를 맨 분이 수확 대기를 하고 계셔서 말을 건네본다.

“△△△사장님 되십니까?”

“아뇨 저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 경작자는 어디 갔나요?”

“몰라 농사를 이래 이상하게 지어놓고 어디 갔나 몰라. 농사를 이래 지을 거면 짓지를 말지”

맞장구를 치고는 싶었지만 큰 리액션 없이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일하러 오신 분의 말과는 다르게 나무에 가려 일조량이 부족한 걸 감안하고도 나쁘지 않다. 얼른 조사를 끝내고 조사 필수품 전달을 위해 다시 한 번,

“△△△사장님 어디 가면 만나 뵈 수 있을까요?”

일하는 분에게 경작자의 위치를 물어본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이지 가관이다. 식스센스 이후로 이런 반전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요”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다.

신표본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 경작자를 만날 수는 없지만 유쾌함과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그대 바깥까지 이해할거야

○○사무소는 내륙에 있는 3개의 지역만을 담당하기에 어업생산동향 조사는 나에게 낯설었던 이름의 조사이다. 평소 낚시를 즐기는 나이지만 우렁이양식은 뭔가 어색했다. 인계를 받고 조사 필수품 전달과 조사를 위해 응답자의 양식장에 찾아갔다. 양식장 안에 마련된 곳에서 응답자가 식사를 하다가 인기척에 나오신다.

“통계청에서 우렁이 양식 조사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좀 하고 가이소”

능력이 없으면 겸손하고 눈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기에 응답자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생산량을 묻고 필수품을 전달하고 자리를 뜬다. 나오면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도 좋고 앞으로의 조사가 수월할 것만 같다.

우렁이 양식장은 모내기 시점에 친환경 목적으로 쓰일 우렁이를 생산하고 그 이후로 식용으로 먹을 우렁이를 생산한다. 식용 우렁이를 생산할 시점부터 응답자와의 연락이 쉽지가 않고 출장을 나가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조사기한이 다가올수록 조바심은 더해가고 전화를 거는 횟수가 늘어난다.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되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통계청 직원입니다. 우렁이 생산량 여쭙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바쁜데 와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는교 나중에 하이소”

내 기억 속에 친절하고 상냥했던 응답자는 온데 간데 없고 높은 데시벨의 호통만이 잔잔하게 남아있다. 영업 직원에게 반쯤처럼 통계청 직원에게 불응은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 어떻게 된 걸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수 없이 고민해 보지만 뚜렷한 정답은 없다.

결국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근시간이 넘어서 전화를 해본다. 전화를 거는 동안 두렵고 무서운 감정이 나를 감싼다. 군대도 다녀오고 이보다 더한 고객들을 상대로도 무조건적인 칭송을 해본 나 자신에게 겁먹지 말라고 주문을 걸어본다. 전화음이 울릴 때 마다 내 좌심방우심실도 쿵쾅대기 시작한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낮에 전화 드렸던 통계청 직원입니다. 통화 가능하신지요?”

“아 참말로 바쁘데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랍니까?”

툭툭대는 말투이지만 내가 알아야 할 우렁이 생산량과 가격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 그 뒤로도 우렁이가 동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조사는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나 퇴근길에 잠시 방문을 하여 조사를 하였다. 양식장이 한가할 즈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많은 양식장을 사장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서 운영하다 보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사료비는 오르고 경쟁 양식장은 많아져서 단가가 안 좋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다.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고 통계조사에도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응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타이밍은 내 앞에 오게 되어있다.





그게 바로 통계인의 길!

3년이란 시간을 농어업생산통계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직업병 아닌 직업병도 생겼다. 옆집 할머니가 심어놓은 양파의 면적을 나도 모르게 목측으로 재어 본다거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을 작물분류표로 구분을 해본다던지 말이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보는 시야는 무궁무진하게 달라진다. 일을 하면서 쌓이는 경험처럼 보다 높은 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관심으로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나는 응답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래가 통계조사가 됩니까?”

처음 입사할 때는 자신 있게 그들의 말에 반론을 하지 못 했다. 물론 지금은 자신 있게 그들이 물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나라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질 높고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그 제한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책임감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응답하나 측정 하나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쓰인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계인의 길일 것이다.







응답자
부문 특별상

인연으로 얻은 노하우!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통계청 달력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듯하다. 전국의 수많은 농가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통계청 영농일지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통계청 일지가 끝나더라도 나의 영농일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영농일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캐낸 값진 보물이 될 것이며, 미래의 나의 나침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보다 잘 사는 농촌이 되길 바라본다.

- 특별상작 「영농일지는 우리 집 나침반」 중에서 -

두 번의 인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스물다섯

응답자 한 특 수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다.

나는 통계조사와 두 번의 인연이 있다.

한 번은 농림부에서, 한 번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와의 인연이다. 첫 번째는 내가 농업 관련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조사에 응했지만,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 후에 마지 못해 조사에 응했다.

조사에 응했던 마음가짐과 과정은 다르지만 나는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된 거절에도 찾아와 부탁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인연을 시작으로 지나간 10년이란 시간을 돌이켜 보면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 받은 도움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 번의 좋은 인연도 행운인데..

그래서 나는 통계와의 두 번의 인연이 더욱 소중하다.

1992년 가을 어여쁘고 통통한 아가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농림부에서 농가경제조사를 하고 있는 김OO입니다”라며 웃는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인연으로 통계와의 5년간의 긴 인연이 이어졌다.

우리 동네에서 10가구가 농가경제조사에 응답한다고 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시골이라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의심도 하지만 김OO 여직원은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밝아 낯을 많이 가리는 나도 마음의 문이 금방 열렸던 듯하다. 당시 농지계량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조사에 응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찾아와 딸처럼 살갑게 안부를 물어주고 싱크대에 있던 설거지도 스스럼 없이 해주던 직원이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도 사다가 동네 마을회관에서 짹짹 쪼개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주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이 있어 조사기간 5년을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통계조사와의 인연은 끝난 듯하였지만, 2012년 가을 즈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하며 또 다른 000 직원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조사를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 앞으로 5년간 찾아올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당시 나는 농림부 농가경제조사가 끝난 후 2011년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달여 간의 병원 생활을 보낸 후 겨우 집에 돌아와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후유증으로 가물가물한 기억력과 어눌한 말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감히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나 몸도 아프고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요!”하고 직원을 돌려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통계청 직원은 두 손에 과일과 음료수를 가득 들고 또다시 찾아왔다. 안 된다고 몇 차례나 이야기하였지만 이 여직원은 자기가 많이 도와줄 것이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는 말과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앞마당에 앉아 땅콩을 수확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하고 말없이 앞에 앉아 흙 묻은 땅콩을 따고 있는 통계청 직원!

“보다시피 나는 몸도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조사를 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가 옆에서 도와 드릴 테니 영수증 모아 주시고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인연이 시작되었다.

말없이 앉아 땅콩을 따는 모습에 차마 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제 역할을 못해 뻘뻘뻘한 글씨로 영농일지를 써놓고 “이거 알아볼 수나 있으려나?”하면 “제 눈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농번기에는 통계청 직원들이 찾아와 고추도 심어주고, 말뚝도 박아주고, 수확이 끝난 후에는 고추 비닐을 걷어가며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다. 밭에 여러 작물을 심어 놓으면 우리 집 밭에는 채소며 유실수 등 없는 게 없다며, 통계청 신규직원에게 작물을 알려준다고 작물 실습도 나온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두 번째 인연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4년 가까이 영농일지를 쓰면서 손가락에 힘이 생겨 글씨도 어느 정도 쓰게 되었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말투도 좋아졌다.

통계청 직원의 계속된 부탁에 마지못해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내가 더 도움을 받는 그런 인연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방문한지 일주일이 되어 가면 통계청 직원이 언제 올까 궁금해 하며 간식거리를 준비하고, 집을 비울 일이 있으면 다음에 오라고 전화하는 나를 보면서 인연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통계청 3년 만기 적금, 이자로 받은 이모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스물여섯

응답자 김 옥 진



되돌아보니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한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 곧 3년이라는 끝날 시점이라는 느낌에 서운함이 먼저 듭니다.

가계부란 주부이면 누구나 써야 되는 큰 과업(?)처럼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거부감부터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을 조금은 힘들게도 하였던 기억에 살짝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이번 기회에 한 번 써보는 습관을 들이자'며 결심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통계청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좋은 언니(담당자분)를 만나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니, 혼자서 가계를 꾸리며 많지 않은 수입이지만 규모 있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 빚은 줄어들고, 지금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보증금이 모이고 있어 아이들과 저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에 저는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기회에 통계청과 통계청 직원과의 인간적인 감사한 마음을 몇 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2년간의 시간을 겪어본 결과, 통계청은 국가기관의 딱딱함에서 오는 거리감보다는 한 가정을 살갑게 보살피는 사회복지기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먼저, 방문과 전화로 가계부의 세부적인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큰 힘을 주신, 저희 집을 관리해주는 ○○○님께 글로써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가계부 외에 어렵고 힘든 가정사까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담당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생활로 늦게 귀가하는 나를 대신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 동네를 지나시는 길에 종종 찾아와서 아이들이 잘 있는지 살펴주시고,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 문단속 잘하는지 봐 주시고, 아무나 문 열어 주면 안 된다고 교육해주고, 그 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간 날은 아이들도 이모가 왔다 간 듯 신나서 저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겨주시는 것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김장철이면 직접 직원들의 손길로 담근 김치로 한해 추운 겨울을 든든히 나도록 냉장고를 채워 주시고 우리 가족의 마음엔 따뜻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절임 배추 자체가 맛이 있어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갔어도 추운 겨울날 적당히 익었을 때 김치 전과 찌개를 해 먹었을 땐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전라도 친정어머니의 젓갈 풍성한 맛과는 또 다른 맛에 엄지 척~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군침이 도네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우리 막내아들이 가족의 추억으로 말하곤 하는 2015년 5월 가족 초청 과천 과학관 체험이랍니다.

체험전을 통해 다른 곳에서 저처럼 가게부를 쓰고 있는 가족분들을 처음 만났지만 웬지 모를 한배를 타고 있다는 동질감으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가 쓰는 가게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다른 가족들의 체험담을 들으며 웃고 공감하며 나 개인적인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성실히 써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들었고 풍성한 도시락부터 음료와 간식 외에 다양한 체험관을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푸짐한 선물까지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족의 못 잊을 추억이 되었답니다.

가게부는 온 가족의 돈 쓰임을 적는 것이라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큰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가 가게부를 쓰면 봉사점수도 나와서 손쉽게 시간을 채울 수 있었고 본인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는 용돈을 적으면서 꼼꼼한 용돈 관리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와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생이라 물건 사고 영수증 가져오기라든지 종이 가게부에 기록하는 것이 소홀할 때도 많긴 하지만 이런 일로 가족 간 대화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경제활동조사 들어갑니다~”하며 물어보다 보면 요즘 누구와 친한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등 은연중에 아이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셋째까지 속속들이 챙길 수가 없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날이면 오갈 데도 없고 명절 선물을 받아 본적도 없는 쓸쓸해질 수도 있는 우리 집에 꼬박꼬박 찾아와 명절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담당자가 직접 준비하시는 정성이 느껴져서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이 가게부보다 작성이 편리한 전자 가게부를 소개해주시고 계다가 사례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그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조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까지나 통계청과 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통계 가족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농사를 배우면서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스물일곱

응답자 이 승 모



저는 지금 청도군 ○○면에 거주하는 농부입니다. 청도는 고향이고 본가가 있지만, 학교는 대구에서 직장은 서울에서 KT(한국통신)를 다녔으며 정년 퇴직 후 본가로 내려와 모두가 꿈에 그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는 열한 대 할아버지 ○○공께서 거처하신 이후 3백여 년을 내려온 우리 일족의 세거지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항상 꿈꾸었던 작업복에 밀짚모자 쓰고 트랙터를 모는 농부가 막상 현실로 다가왔지만, 농사는 아직도 머릿속 생각이었을 뿐 농사일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야 저에게 막중한 현실로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저가 2008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하고는 시골 본가와 서울 집을 오가면서 지냈으나, 그렇게도 강건하시고 깨끗한 거목이시었던 아버님께서 별세하시고 나서는 자연히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로 내려와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혼인 둘째 아들을 챙겨야 하는 처는 서울 집에 남았고 저만 정도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막상 아버님이 안 계시니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차례차례 생겨나고 또 해결하는 과정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되신 어머니께서 아버님같이 졸지에 돌아가시지 않도록(저에게 아버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농사짓는 모습만 보여주는 아직은 농사일에 숙달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경지는 논이 7마지기, 뚝은 감 약 50주, 양봉 10군, 그리고 임야 만평에 밤나무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선친께서 이룩하여 물려주신 훌륭한 고택 한옥 ○○제가 저의 자랑입니다.

농사로 얻는 소득은 대략 논에서 140만원, 감에서 3~500만원, 그리고 꿀에서 200만원 정도이니, 어찌 농사를 짓는다 하겠습니까만, 우연한 기회에 영농일지를 작성할 기회를 얻은 이래 지금은 방문하여 조사하시는 통계청 류○○님도 반갑고 이것저것 챙겨 주시는 선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일지 작성은 귀찮고 편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영농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통계학은 수학 공부에 따르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함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잊었으나, 그래도 정규 분포, 카이분포는 생각나며, 학교에서 통계학 시험 치느라 애쓴 것도 추억입니다. ○○공 종손이신 형님 소개로 농사 일지를 작성할 기회를 준 통계청은 저에게는 소중한 복된 인연입니다. 새로운 농법과 다른 농부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영농일지)은 지금도

농사일이 궁금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기록을 찾아보는 소중한 기록 참고입니다.

직장을 다닐 적에는 한 달 정도를 마냥 폭 쉬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처음 두서너 달은 노는 등 모든 것이 좋았으나, 6개월이 지나갈 즈음엔 마냥 놀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청도 본가에 부모님이 계실 때이니 한두 주씩 내려와 있으면서 어릴 때 친구 한둘과 만났으나, 오랜만이라 처음엔 좀 서먹한 느낌이었으며, 집안 형님, 아재, 아지매와 인사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 집으로 와서는 옛 수원농대(현 서울대 농대) 자리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의 버섯교육을 받아보니,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싶었고, 다음 카페 꿀벌사랑동호회를 열심히 탐색하면서는 양봉으로 연간 천만원을 버는 꿈에 젖어 행복하였으며, 우리나라 아마추어 무선을 살리겠다며 햄 트랜시버(무전기)를 만들 생각으로 구로공구상가와 용산전자상가에서 공구와 콩알보다 작은 IC, 콘덴서 등 전자부품을 구하고는 전기인두로 회로 기관에 부품을 납땜으로 붙이면서 마누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부품은 확대경으로 보면서 납땜을 하여야 하였으니 쉬운 작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싫증 나고 잘 안되면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음력 시월 초 이틀에는 아버님과 선산 아재 그리고 세분 할아버지를 모시고 경남 고성군 △△제로 가서 ○○이씨 종회와 시조 묘향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는 ○○이씨 시조님을 모신 사당이며 △△제 중건 공사를 아버님이 직접 △△제에 기거를 하시면서 공사를 하셨던 곳이니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퇴직 후 2008년 10월에 본가에 왔을 때,

선친께서 하루는 퐁장군을 사 오라 하셨는데, 동곡장이나 청도장 등 여러 재래시장은 물론, 견재상에 물어보아도 결국 살 수가 없었는데, 왜 요사이는 쓰지도 않는 퐁장군을 사 오라 하셨는지 궁금하였으나, 아버지가 떠나신 후 한참을 지나서야 대략, 그 연유를 짐작만 합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가 필수품인데, 농사꾼은 퇴비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퇴비를 농협에서 1톤에 23만원을 주고 사기에는 부담이 되니 자가 제조를 해야 하는데, 소를 키우지 않으면 개똥이라도 있어야 퇴비를 만들 수 있지만, 현실 대안으로 전래 방식으로 인분을 퍼 나를 퐁장군을 사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재래식 화장실이 없으니 퐁장군이 있어도 어디에서 인분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다 ‘이완주 박사가 지은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도서출판 들녘)’를 읽고는 퇴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퇴비를 만들려면 질소성분이 필요한데, 우분이나 개똥 혹은 인분이 질소질로 딱입니다.

그제야 퐁장군 구매 의문의 답은 나왔습니다만, 참 우둔한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상을 어머니 모시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집 밖 길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이 끝나고 안정을 찾을 때에는 새로이 복막염이 와서 새벽에 대구 ○○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시는 등으로 정신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서 집 앞 논농사도 팔순의 안○○ 어른이 도저히 못 짓는다 하여 제가 맡아서 지어야 했고, 뒷밭의 감나무는 그냥 하는 대로 약치고, 유박 뿌리고, 풀 베는 일은 때에 밀려서 항상 느끼막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마누라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며 지적을 하지만 못 들은 척하며 벌을 3군 구입하여 양봉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일도 점차 몸에 익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서울집에서 본가로 처도 내려오니 밥도 빨래도 안 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편안함의 대가로 수시로 들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잔소리가 예전보다 듣기도 편안한 건 어쩐 일인지요. 매년 1월에 하는 영농교육을 받으면서 영농교육프로그램으로 청도군 감 아카데미, 경북농민사관학교 등 훌륭한 농사 교육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번째 교육으로 농기계운전 과정을 이수중인데, 농사에 도움도 되고 여러 작물 농사를 짓는 전문가를 사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요즘 농사는 농기계나 포크레인 등 기계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효율성도 낮고 수확량이 적기에 농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연 생산성 저하로 기계없는 농사는 못할 바는 아니지만 텃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올 6월 중순 집 앞 논에서 피를 뽑고 있는 데, 마침 지나가던 길부덕 아지매가 하시는 말씀이 논일 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시길래 ‘뭘 괜찮습니다’ 했습니다만, 사실 모내기 한 후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밭이

폭 빠지는 무논에서 허리 굽혀서 피를 뽑는 일이 쉽지 않았고, 거기에는 농용수에 섞이어 들어오는 생활오수 때문에 논에서 작업은 냄새와 감염 걱정으로 기분 상 거북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농용수로와 하수로를 분리하여 달라고 말은 하였지만, 농용수와 하수로 개념 없이 논과 밭에 건축 허가를 하여 논농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만, 세상일이 어디 쉬이 풀리는 게 잘 없다면 그냥 위안하며 지냅니다.

통계청과의 소중한 인연을 쓴다는 것이 저의 엉뚱한 닳두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을 반성하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영농일지를 작성하면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통계청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농사일을 하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고마운 통계청! 감사합니다.





국민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통계청'을 응원합니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덟

응답자 전 매 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걸음마를 배우고 뛰기도 하며 말도 곧잘 하고 귀염을 떨며 재롱을 피우게 되지요.

그럴 때면 어른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욱 재롱을 부리며, 어른들이 천재가 나왔다고 하면 아이는 진짜 천재인 줄 알고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들곤 하지요.

요즘 제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제가 통계청 직원과 인연이 되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어언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가계부를 쓰려고 하니 두려운 생각도 들고

내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 같아 두려움이 들기도 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몇 분의 담당 직원이 바뀌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안부를 물어가며 문자도 주고받다 보니 통계청 담당 직원과 어느새 친숙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어 허물없는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에 「가계부 체험수기」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약간 난감하기도 했지만 차마 담당 직원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써보자’ 하고 없는 용기를 내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짧게나마 그동안에 겪었던 통계청과의 인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시골에서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조용한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옮겨 이사 온 지역은 바로 광주 서구 ○○동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참하고 예쁜 여자가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라인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통계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계부를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세대에서 자기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가계부 기입을 거절한다고 꼭 써주셨으면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선물비도 나오고 규모 있는 가계지출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계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쓴 가계부가 정부 경제정책이나 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데 국민으로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협조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담당 직원이 안쓰러워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아이를 손잡고 나온 새댁들과 나와 비슷한 동년배의 주민을 만나기라도 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 차 한 잔을 하며 우리 집도 조사대상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와 담당직원의 수고를 도란도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내 가계부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매월 사례금으로 4~5만원이 지급되는데 집안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변 가구에 은근슬쩍 가계부 작성을 자랑하듯 권유하였습니다.

후일 몇 가구 더 가계부 설득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담당직원의 모습을 볼 때 내색은 안 했지만 '약간의 도움이 되었구나!' 하고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통계청 담당직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산세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우리 집도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 그동안 조금씩 부어오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어 보고자 하는데 분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까지가 쉽지도 않고 혹여나 잘못할까 봐 두려운 생각이 스칠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통계청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더니 바쁜 일정에도 바로 와주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덕에 몇 년 후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에 행복한 마음에 부풀어 있기도 한답니다.

남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적은 봉급으로 자녀 두 명을 대학 교육을 시키고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기까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남편과 나를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돈을 써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년퇴임 후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4년 결혼한 아들이 감기 증상이 오래간단 싶었는데 대학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고 얼마나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지... 꼭 아들의 백혈병을 완치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걱정과 적지 않은 치료비를 조달하면서 조혈모세포이식과 꾸준한 치료 덕에 지금은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직을 앞두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의 막막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되었던 시절’ 통계청 직원과 속마음을 털어 놓으며 이름 모를 골수기증자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회상해 봅니다.



2015년 가을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져 뇌출혈로 119 앰블런스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편마비로 걸지도 수저 질도 못할 때 당황하고 놀라 눈물만 흘러야 했던 시절들.....

그나마 지금은 경과가 좋아 6급이라는 장애진단을 받긴 했지만 일상생활과 사춘 조카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관리업무를 봐달라는 부탁으로 다니고 있던 직장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큼 완쾌되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보낸 세월들이 '전자 가계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요즘 특별히 소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여 년간의 흔적들을 살펴보다 보니 깜짝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별어서 생활하는 것 중에 나 자신을 위해 쓴 것은 몇 안 된다는 사실에 씁쓸함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통계청 표본가구로 전자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칠 평범한 주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몇 년간의 가계부의 수입내역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 보이게 된 것입니다.

퇴근한 남편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말했죠.

“여보~ 이제 나도 나를 위한 투자를 좀 하며 살아야겠어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와 당신 간병으로 나를 잊고 살았던 거 같아요.”

“어허~~ 내가 비록 장애가 있는 몸이지만 당신 손잡고 백화점 얼마든지 따라다녀 줄 테니 명품 가방도 사고, 메이커 옷도 사서 입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닙시다.”

그 이후 명품백도 메이커 옷도 사지 않았지만 남편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가계부 쓰는 일에 귀찮아하지 않고 열정을 보여준 보답을 톡톡히 받은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매스컴이나 TV를 통해 통계청 자료가 나와도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보내고 재미없어 채널을 돌리곤 했는데 내가 직접 가계부를 쓰다 보니 통계자료가 보도될 때마다 귀가 쫑긋해지게 되었습니다.

TV에서 통계에 관한 보도가 나옵니다.

‘60대는 소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는 보도를 보면서

‘어! 내가 지난달에 돈 쓴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국가통계에 반영 되었나?

또 이런 내용의 방송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노후가 염려되어 지출은 감소하고 저축은 늘었습니다...’ 한다.

‘어! 내가 지난달에 적금 하나 들었는데’ 하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듣다 보면 우리 집 상황과 비슷하여 깜짝깜짝 놀라며 신기하게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축만이 애국이 아니고 잘 소비하는 것이 애국이고, 소비가 있어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가계부를 쓰는 3년여 동안에 터득한 것이지요.

이제 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가계부 쓰기는 ‘나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의미 있는 기회’ 였습니다. 그동안 납부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수당을 받아 가며 「국가 통계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통계청 대상가구로서 가계부 쓰기는 종료되어도 나의 지출의 변화는 아름답게 나의 삶 속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국가의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통계청 가계부 쓰기에 참여하여 통계청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민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통계청’을 응원합니다!



영농일지는 우리 집 나침반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스물아홉

응답자 최 천 덕



연어처럼 고향으로 ~

농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높다란 빌딩 숲에 둘러싸여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팍팍한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 했다.

그렇지만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농촌이 자리하고 있었다.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과 이웃 간에 색다른 음식이라도 생기면 나눠 먹던 인정이 떠올랐다. 모자라면 모두가 나서서 힘을 모아 힘든 일을 거뜰히 해주었을 뿐 아니라 즐거워서 함박웃음을 짓고, 피곤함도

잇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던 그 시절이 눈에 아른거렸다. 그렇게 추억을 잊지 못해 늘 꿈꾸며 살았다.

풍족하지는 못해도 풋풋한 인정이 넘쳐나고 일한 만큼 행복을 흠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내 노력을 합당하게 보상해주는 곳이 바로 농촌이자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어처럼 농촌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사업을 접고 7년 전 남편의 고향인 ○○에서 새로운 동지를 틀게 되었다. 밭을 임대해서 2400평의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업관련 책을 읽고 영농교육에도 자주 참여해 농사지식을 배우고, 틈나면 마을 어르신을 찾아 말벗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농비법을 하나둘 익혀 나갔다. 하지만, 풍부한 농사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시작한 농촌 생활은 생각한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얼떨결에 받아드 영농일지!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 것은 인연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가지 인연을 맺게 된다. 좋은 인연도 있고 우물한 인연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인연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기도 하고 평생의 은인이나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스치는 바람에서, 맑은 하늘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오후 한낮.

용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4년 전 가을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오전 일을 마치고 더위를 피해 휴식 중인데 통계청 직원이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여직원은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였다.

처음엔 공무원이 하우스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때까지의 나의 상식으론 통계청이란 막연히 어떤 통계를 내는 곳 이겠지 정도로 알고 있었다. 직원은 ‘농가의 살림살이를 파악하여 농업문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영농일지 쓰기를 권유 하였다. 친절하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부탁의 어조로 말하는 직원의 말에 거절할 수 없어 영농일지를 얼떨결에 받아들고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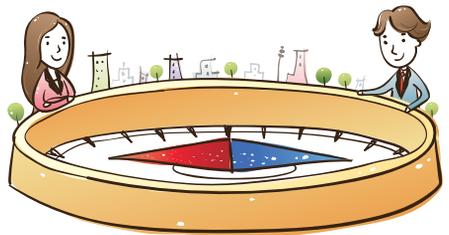


영농일지는 우리 집 나침반

통계청 영농일지를 쓴지 4년 차 되어간다.

반 권유와 반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영농일지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농사의 또 다른 업무이자 내 삶의 일상이 되었다. 통계청과 인연을 맺고 쓰기 시작한 영농일지를 통해 나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모여져 우리나라의 통계 생산이 된다는 사실에 나도 적게나마 대한민국의 통계에 작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든다.

제일 큰 변화는 남편의 태도이다.



영농일지 기입 전에는 토마토 하우스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농사에 들어가는 생산비에 대해 남편은 나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졸업시즌 등을 생각하면서 출하시기에 맞춰 종자를 식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는 편이 아니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연말이면 농협에 난방비 값으로 3~4 천만원 입금해 주기 바쁘고, 인건비 주기 바빴다. 농협의 빛은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는 우울한 나날이었다. 보람은 온 데 간 데 없고, 내 가슴을 멍들게 하곤 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관행적인 농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 일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농약대금, 비료대금 등 농업관련 지출 내역에 관한 모든 영수증을 남편이 챙겨주기 시작했다. 농사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나 또한 어딜 가나 영수증을 꼭 받는 습관부터 생겼다.

기억에 의존했던 나의 경제 개념, 내가 쓴 돈의 출처를 찾지 못해 그냥 어디다 썼겠지 하며 지나쳤던 내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영농일지를 통해 내 수입과 지출 특히 내 소비성향을 볼 수 있어 어떤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재정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난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계적인 생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의 삶의 양식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영농일지는 나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있는 소중한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어 나에게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매달 통계청에서 회수해가고, 분기별로 영농일지를 되돌려 받고 있어 4년 동안 쓴 영농일지를 볼 때면 온 마음 가득 가을의 풍성함 만큼이나 마음의 부자가 된 것만 같다. 시간이 주어지면 내 개인의 농사 역사를 정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나의 농사 기록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자료로 만들고 싶다. 그 안의 수많은 기록을 수치화하고 정보화하고, 그런 정보들을 해마다 쌓아서 하나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보들의 흐름이 바로 개인의 농사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영농일지는 지나간 것의 기록의 의미를 넘어 지금 현재에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프리지어 농사를 지었다. 재작년에 재미를 못 본 경험을 거울삼아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재작년 보다 15일 먼저 식부하였다.

모든 농사는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며칠 차이가 수확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동안의 기록을 들여다보니 대강의 농사 적기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졸업시즌에 맞춰 수확을 할 수 있어서 프리지어 꽃말처럼 희망, 응원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로 알찬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동안의 농사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는 농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영농일지 덕분에 피곤함과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나의 보물창고에는 감자, 토마토, 프리지어가 자라고 있다. 영농일지를 벗 삼아 나의 보물들이 금빛으로 보답하리라 믿는다. 오늘도 나는 햇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에서 프리지어를 매만진다.

내년 졸업시즌 때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올 모습을 기대하며...

현재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올해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을 장만하였다. 헌집을 사서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 건강하고, 효심 깊은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기에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통계청과의 소중한 인연

나는 통계청 직원이 온다고 하는 날은 아침부터 기다린다. 통계청 직원이 자주 바뀌어 친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헤어지게 되어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매달 받는 상품권이나 선물도 가정에 유용한 것이라 잘 쓰고 있다.

농사일에 지쳐 있을 즈음 조사차 방문한 직원과의 차 한 잔의 여유는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통계자료 때문에 만났지만 매주 얼굴 보고 전화 통화도 하다 보니 이제는 친동생처럼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이사 축하한다며 가져온

시계는 우리 집의 가장 중심에 장식되어 있다. 토마토 수확기엔 하우스에서 전화로 직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한차 가득 실어가기도 한다. 그런 직원의 마음이 고맙기만 하다

나의 삶의 현장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지에서 농부의 정직한 마음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어느 집의 식탁 위에 놓이고, 가족이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농산물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인가. 농촌과 농업은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농부의 손끝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이 땅에서 난 것으로 차려진 밥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보듬어준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이고 환경산업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느 날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담당하고 있는 다른 농가인데 방울토마토 농사짓는 농가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언니네 하우스를 방문해도 될까요?” 묻는다.

우리는 흔쾌히 허락을 하여 우리 하우스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하우스 전체를 둘러보며 토마토 농사짓는 것에 대해 이모저모 물어보았다. 우리 부부가 알고 있는 만큼 대답해 주고, 토마토 성장 과정들이 이 영농일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며 그동안 모아둔 영농일지들을 보여 주었다.

본인들도 대상 농가인데 “이렇게 까진 안 하는데…….” 하시며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 및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농일지가 매우 중요하죠. 영농일지를 보면 그해의 대략적인 농사일정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라며 영농일지 전도사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곤 미소 짓는다.

영농일지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소재라고 생각하겠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적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농일지가 나만의 기록에서 나눔의 기록으로 바뀌었을 때 농부들에게 얼마나 큰 촉매제가 되는지, 우리 부부는 귀농 첫해 경험할 수 있었다. 초보 농사꾼이 되어 겪는 시행착오와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농일지는 나의 이야기이다. 그 자료가 나누어질 때 과거의 내 이야기도 되고 현재의 내 모습도 되고, 앞으로의 내 모습도 되는 묘하게 동질감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방문 농가와 유기농 자재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농사에 대해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신선한 경험이었다. 올 한해 영농일지가 충실한 나의 기록이 되기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눔의 기록이 되기를 바라본다.

농사란 때를 맞추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의 농사 일정들을 참고하며 자기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농사 형편들을 나누다가 일이 너무 뒤쳐진 벗이 있으면 시간이 되는 이들이 품앗이로 거들어 주기도 한다.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 품질을 생산해 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결실의 계절은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다. 내 가게와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런 값진 열매로 풍요로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모든 농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파이팅을 외쳐본다.

최근에는 아들에게 용돈기입장을 쓰도록 하고 있다.

아들도 그날그날 쓴 용돈을 적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가고 있다. 용돈을 아끼면서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돈 주고 못 살 소중한 습관을 얻게 되어 흐뭇한 마음이다.



영농일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캐낸 값진 보물

까마득하던 5년이 벌써 다가오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흥가분한 마음과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교차한다. 내가 작성한 일지가 통계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서 참 보람된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도 무언가 책임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또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는 것이 매우 기분 좋았다.

TV를 시청하다 뉴스 시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한 뉴스 내용이 방송되면 귀가 솔깃해지고 웬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더욱 관심 있게 시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지 작성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생각은 크게, 행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배우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는 농업인으로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

열정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던가.

내년에는 일을 벌이기보다 내실을 실속 있게 다져나가며 남편과 마음을 맞추어 우리 부부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튼실히 다져나갈 생각이다. 현재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기쁨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한 소녀의 마음처럼 늘 반짝이는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통계청 달력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듯하다. 전국의 수많은 농가 중에서 내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통계청 영농일지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통계청 일지가 끝나더라도 나의 영농일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영농일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캐낸 값진 보물이 될 것이며, 미래의 나의 나침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어 보다 잘 사는 농촌이 되길 바라본다.



통계청과의 인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

응답자 강 후 인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통계청 ○○○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약간 어색한 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맞이 하였다. 통발작업을 마치고 몸도 피곤하지만 잠시 앉아 어가일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니 어가일지란 게 딱 보니 가게부가 아닌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십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게부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나라에 중요한 자료라고 하여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것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써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나의 짜증에도 세세히 어가일지를 넘기며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는 그녀를 보자니 매정하게 뿌리친다는 것도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 잡고 직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가 나도 도와줄 테니 같이 써 보자며 나의 속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처음으로 내게 그렇게 어가일지가 딱 하니 놓여졌다. 통계청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문하여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겠노라고 하며 잘 하실 거라며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어가일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 어가일지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하루하루 일지를 쓴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작업을 나가서 아침에 위판장에 들러 물건을 팔고 오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고 몸도 지치고 집안일 등을 하자면 피곤이 밀려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의 생활상을 어느 누군가에게 공개된다는 자체가 너무도 부끄러웠다.

보통 가계부라 하면 자기 혼자 작성하여 간직하며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것인데 말이다.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 통계청 ○○씨의 말대로 우리 집이 우리나라 어가의 대표라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귀찮고 걱정도 되곤 하지만 성실히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절감하기를 여러 차례..

매일 작성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가정의 생활상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기억이 나지 않는 지출을 생략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꼼꼼히 따지다 보니 이러한 어려운 점이 발생한 것 같다.

지출 부분을 집에 쓰는 것, 바다에 쓰는 것, 발농사에 쓰는 것 등 세세히 분류 한다는 게 여간 귀찮고 어려운 게 아니었다.

더구나 수협에 위판 하는 생선은 영수증만 주면 된다 하지만 이웃에 나눠먹은 것까지 적으라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닌가.. 사실 좋은 물건은 팔고 가끔씩 집에 들고 와 이웃들과 나누어 먹은 것까지 적으라니..

하지만 이런 나의 불평을 들어가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방문하면서 우리 집 수입·지출 분석표라며 가져온 내용을 보니 몇 달 간 우리 집의 돈의 쓰임새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돈을 쓰면서 큰 돈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세세히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가일지를 쓰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돈을 쓰는 습관이 생겼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어가일지를 쓰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 마을은 어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가구가 많은 관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아 통계청 직원의 방문 시 면접이 힘든 경우가 많아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나와는 시간이 종종 맞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고 어가일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가끔은 나의 사소한 심부름까지도 항상 웃으며 해주는 ○○씨를 보면서 그래도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애들 엄마라고 들었는데 많은 가구를 돌면서 고생하는 걸 보니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이웃 형님들에게 통계청 직원에게 협조해 주라며 몇 번 권유를

해보며 얘기를 했지만 이웃들은 ‘어가일지인지 가계부인지 그것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귀찮지 않는가?’라며 어가일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게 아닌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직원이 가져온 우리 집 수입·지출 분석표가 생각이나 그것을 들고 이웃 형님들에게 직원이 했던것처럼 모른다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담당 직원과 통계청을 홍보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동네는 통계청 직원이 오면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통계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어가일지를 작성한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었고 이제는 노하우까지 생겨 달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처음 어가일지를 작성한다는 의미를 통계청이라는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외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스스로 어가일지를 작성해야겠다는 굳은 다짐과 같은 내재적인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낀다. 친구들이 가끔 놀러와 나의 어가일지 쓰는 걸 보며 자기는 귀찮아서 돈 나가는게 뻘한테 쓰면 뭐 하난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난 진지하게 ‘어가일지 하나쯤~’ 이라고 말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가정생활에 큰 반성의 일지 쓰기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아들 녀석과 남편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와 어가일지를 쓰는데 많은 일조를 하며 식구들과의 대화도 많이 나누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앞으로도 알뜰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어가일지를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통계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위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나! 가계부 쓰는 여자야~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하나

응답자 손 상 남



나는 거제시 장목면 ○○리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10여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도에서 남편과 어업을 하며 생활하는 아주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통계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무더운 여름날이 끝나갈 때 즈음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란 섬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외지인의 방문은 눈에 띄었다.

여느 때와 같이 집마당에 앉아 바쁘게 그물 손질 중이던 나에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웃으며 말을 건네고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 집이 어가경제조사 표본대상처로 선정되어 방문하였다고 말을 하며 홍보 팸플릿을 주면서 열심히 설명하였다.

통계청, 표본조사, 어가경제, 답례품 모든 단어들과 통계조사 모든 것이 생소하고 바쁜 시간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설명만 들으려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발생하는 가계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입, 지출에 대하여 써야 된다고 말을 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까지 밝혀야 한다니... 점점 설명을 듣다보니 많지도 않은 수입이 공개되면 세금이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해야 한다니 정말 귀찮은 일이란 생각이 들어 통명스럽게 “나는 한 번도 가계부를 쓴 적도 없거니와 이렇게 시시콜콜 모든 내용을 다 적어야 한다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내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통계청은 세금이랑 상관없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비밀도 보장되니 안심하세요” 그리고는 그동안 몰랐던 통계청이 어떤 곳이고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이것저것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물으며 친하게 다가왔다.

아! 웃는 얼굴에 화도 못내고 나이도 동생뻘쯤 되어 보여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어 같이 이야기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부터 여기에 가계부를 써보세요!”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그렇게 받아든 어가일지..



그동안 가계부를 쓰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낮에 바다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늦둥이 아들 뒷바라지,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주부에게 매일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매일 쓰지 못하고 생각나는 것만 적어 두고 영수증도 눈에 보이는 것만 모아 두었다. 그 후로 매주 직원이 방문하여 이것저것 빠진 것을 물어보고 기록하니 ‘아, 그런 것도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났다. 그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 예전 같으면 지갑 속에서 구겨져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영수증들이 하나씩 모이고 처음에는 그저 귀찮기만 했던 가계부 적는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씩 한 줄씩 써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가계부는 처음의 빈 공간보다 채워져가는 공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가정은 돈을 계획성 있게 소비하고 저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집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어 이번 달에는 얼마의 수입이 나왔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면서 혼자서 “어 이것은 살 필요 없었는데, 이번 달 부식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남편은 아직도 “뭐 하러 시시콜콜 그런 것 까지 다 적어!”라고 핀잔을 주곤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기록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남이 하지 않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사명감이 느껴졌다.

물론 매달 나오는 답례품이 의무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언니 내일 섬에 들어갈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며 3년이
 한참 흐른 지금도 매주 한 번 문자메시지가 온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제때에 구하지 못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음을 알기에 항상 문자를 보내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오며 나쁜
 아니라 섬에 사시는 분들의 일도 서슴없이 도와주는 우리 마을의 심부름꾼이
 되어준다. 이런 고마운 사람이 또 있을까?

올해 5월에 개최한 응답자 간담회는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통계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말 뜻깊은 만남이었다.
 종종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응답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지만 친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지고 가족처럼
 집안 사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문자를 받았고 숙제를 시작한다.

내일 오는 직원을 만나기 위해...





왜 하필 나를?!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둘

응답자 김 시 덕



아내와의 이혼 후,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홀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부모님께 맡겨 두고 온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졌지만, 얼른 돈을 모아 함께 살게 될 날을 꿈꾸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건강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몽땅 쓰였고, 수술 후에도 3개월마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했던 부위에 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힘겨운 치료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낮선 여자가 웃으면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하러 왔다고 하며 면접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준 것을 후회하며, 웬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나로 쓰는 통계청이라는 기관도 생소하였습니다.

여태껏 살았던 동네에서는 한 번도 접해 본 적도 없었고, 통계청에서 가구를 방문하여 표본조사한다는 것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계청 직원은 공무원증을 내보이면서 통계청이 어떤 기관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홍보용 팸플릿 내용을 설명해 주었으며, 그중에서도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조사구로 선정되어서 조사를 할 것이며,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매월 통계조사에 협조해주면 상품권을 증정된다고 하더군요.

'상품권이 별거라고! 안 받고 안 해 주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아픈 나의 사생활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라며 피해자라 생각을 갖고 살고 있던 나는 누구와 만나고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짜증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통계청 직원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통계청 직원은 계속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난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무서움이고 고통이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내가 암에 걸려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살았던 나였으니까.....

통계청 직원은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닌, 내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말동무도 해주고 내가 마시는 ○○○○ 사 오고, 내가 입맛이 없어 굶고 있으면 빵도 사다 주며,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잘 챙겨주니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울컥하였다.

통계청 직원의 성실한 모습에 가계부를 써보겠다고 하곤 가계부를 받아 놓았으나, 정말이지 나의 사생활이 너무나 일일이 드러나고 답해야 하는 이런 조사는 정말 귀찮고 싫었다.

처음 얼마간은 가계부를 쓰려 해도 마음의 문을 열수가 없어 대충대충 썼으며, 몸도 좋지 않아, 제대로 기입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몇 칠 밀려서 쓰기도 하고, 가계부에 영수증 및 공과금 고지서를 붙여놓기도 하였다. 통계청 직원이 작성된 가계부 내용을 확인하며, 주민센터에서 받는 쌀이며, 세금 면제 여부, 전기 요금 및 통신비 할인은 받고 있는지 등... 꼼꼼히 기입하는 방법을 매번 설명해 주었다.

가계부 마감 날이 되어가도 귀찮아지고 내일.. 내일 미루다 보니 작성하기 싫어졌고 통계청 직원이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가계부 다 정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라는 핑계로 항상 미루고 날짜를 지나서야 완성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나고 기분이 나쁠만한데 찡그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통계청 직원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다.

이렇게 어렵고 어설픈 가계부 쓰기가 시작되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익숙하지 않은 가계부를 위해, 물건을 사면 꼭 영수증을 받는 습관도 들였고, 물건을 구입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돌아와 가계부 먼저 작성하는 습관도 생겼으며, 매월 자동이체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주거비와 각종 혜택도 꼼꼼히 챙기게 되었다.

이젠 잠들기 전에 가계부를 쓰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습관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 같다. 처음 부담을 안고 쓰게 된 가계부 쓰기가 이젠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니까요.

전에는 TV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무 관심 없이 흘러넘기곤 했으나, 통계청 직원이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우리 집이 통계조사 대상가구가 되고 '내가 응답한 내용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보게 되었다.

통계청 조사업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보령시에서 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하게 되었다.

며칠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했던 일이,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통계조사냐며 때때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며 통계 조사 협조를 부탁하였다.

나도 통계조사 응답만 해주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서 통계조사자료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현장에서 일하는 통계청 직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 조사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시작하여 각종 계획과 정책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통계청 직원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물 한 잔이라도 먹여 보내게 되었고 잠을 자기 전에는 가계부를 쓰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묘한 통계와의 인연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서른셋

응답자 이 병 천



나와 통계와는 정말로 묘한 인연이다. 처음 통계조사로 공식 생활을 시작하여 퇴직하는 35년 동안 오직 통계조사업무만 하였다.

난 35년간 나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통계를 사랑하며 정확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었다고 자부한다.

퇴직을 하면서 이것으로 이제는 통계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회에서 통계를 만날 때마다 감회가 새롭던 어느 날.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며 통계를 설명하는 우리

직원들을 만났다. 그립던 얼굴이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인사를 하니 우리 직원들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방문 목적을 들어 보니 우리 아파트의 우리 동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홍보와 가구 명부 작성하러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사시는 거 몰랐다면 통장님이 누군지 반장님이 누군지 부녀회장님이 누군지 아느냐고 정신없이 묻기 시작했다.

참 묘한 인연이다.

나는 퇴임을 한 후 우리 부락의 통장(이장)을 맡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더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내 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 일도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공문 하나가 우편으로 와 있었다. 우리 집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방문 예정이니 편한 시간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럴 수가 아니 통계청에서 퇴임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바로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내가 통계 응답자가 되다니 이런 통계와의 묘한 인연이 또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인연인가 보다.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내가 재직 시 표본 개편 할 때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머리에 스치면서 직원들의 어려운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내가 통계청에 35년동안 근무하면서 표본 개편을 수도 없이 해 보았고 표본가구를 설득하느라 눈물로 하소연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집사람 또한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재직 시 우리 집사람도 내가 담당한 현장으로 나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가계부를 써 줄 것을 사정한 그런 경험이 있기에 말이다

우리는 바로 전화해서 시간을 잡고 직원의 방문을 기다렸다. 역시 우리 통계청 조사원들은 친절하고 성실한 공무원이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방문하여 가구명부를 작성하고 통계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고 통계법에 의한 비밀보장도 고지해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힘들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요. 팀장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방문시간 약속을 잡아주시면 감사한데 전혀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협조 안한다고 오지 말라고, 어떤 분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오지 말라시네요.”라며 하소연을 한다.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표본개편이 뭐 어렵다 하겠는가?’

직원들이 돌아간 후 우리 부부는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짐을 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고.

그날 이후 나는 반사회나 경로당 회의 때도 통계청 직원이 가구를 방문하면 잘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협조가 되지만 가계부를 쓰는 조사 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협조를 당부해보지만 순순히 허락하는 가구는 거의 없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다. 우리 집사람과 나는 통계청 직원과 함께 밤이고 낮이고 함께 다니며 설득에 나섰다.

‘내가(남편이) 몸담고 있던 그런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나도(남편도) 이런 조사를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우리도 가계부를 쓰는 가구로 선정되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느냐’ 등등 온갖 입담을 동원하여 설득하러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던 가구도 통장과 함께 왔다 하니 문도 열어주고 우리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통장인 우리를 믿고 협조하겠다는 가구도 두세 가구 있었다.

이렇게 하여 모두 설득된 우리 조사구는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100% 가계부 회수율 기록을 달성하였다.

우리 집도 가계동향조사를 1년 7개월 동안 전자 가계부로 입력하고 있다.

하루하루 꼼꼼하게 빠진 것 없이 작성하다보면 살림의 흐름을 알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는 지혜도 생긴다.

이렇게 좋은 통계를 사람들은 왜 몰라 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점점 열악해지는 통계조사 환경에 답답함도 든다. 모쪼록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의 환하게 웃게 모두 모두 협조를 잘해주시면 좋겠다.

오늘도 전자 가계부 월 마감을 눌렀다. 조사공무원 이었을 때와 응답자인 지금 가슴 뿌듯하며 통계와의 묘한 인연에 감사하고 이 인연이 영원하리라 생각해본다.



2016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